자료 제공: 한말연구학회
자료 입력: 허재영 회원
자료 내용: 몽산화상 법어 약록 언해(1472)

<몽산화상 법어 약록 언해> 1472

. 話頭에 疑心이 긋디 아니ᄒᆞ면 이 일후미 眞實ㅅ 疑心이니 ᄒᆞ다가 疑心ᄋᆞᆯ 홀번 져근덛 ᄒᆞ고 ᄯᅩ 疑心을 아니ᄒᆞ면 眞實ㅅ ᄆᆞᅀᆞ매 疑心ᄋᆞᆯ 發ᄒᆞ논디 아니라. 짓와 괴요매 屬ᄒᆞ니라.(몽산 1)

. 이럴ᄊᆡ ᄌᆞ오롬과 雜念괘 다 ᄆᆞᅀᆞ매 드러 읏드미 ᄃᆞ외리라.(몽산 2)

. 다시 모ᄃᆡ 안조ᄃᆡ 端正히 호리라.(몽산 2)

. 第一엔 ᄌᆞ오로미오나ᄃᆞᆫ 반ᄃᆞ기 이 엇던 境界오 ᄒᆞ야 아로리니 ᄀᆞᆺ 눈ᄒᆞ 두베 므거ᄇᆞᆫ ᄃᆞᆯ 아라ᄃᆞᆫ 믄득 ᄀᆞᆺᄀᆞ지 ᄒᆞ야 話頭ᄅᆞᆯ ᄒᆞᆫ 두 소리ᄅᆞᆯ 擧ᄒᆞ야 「擧ᄂᆞᆫ ᄆᆞᅀᆞ마연저 가져실씨라」 ᄌᆞ오로미 믈러니거든 샹녯 양ᄋᆞ로 안조미 맛당ᄒᆞ니라.(몽산 2-3)

. ᄒᆞ다가 믈러가디 아니커든 믄득 ᄯᅡ해 ᄂᆞ려두ᅀᅥ 열거를 믈거러 누니 ᄀᆞᆺᄀᆞᆺ거든 ᄯᅩ 안자 ᄀᆞ장 話頭ᄅᆞᆯ ᄉᆞᆯ펴보며 時常애 疑心을 더니르와다.(몽산 3)

. 오라면 工夫ㅣ 니거 반ᄃᆞ기 能히 힘 ᄲᅮ미 져그리라.(몽산 4)

. 工夫ᄅᆞᆯ ᄒᆞ약 ᄆᆞᅀᆞᄆᆞᆯ ᄇᆡ 話頭ᄅᆞᆯ 擧티 아니ᄒᆞ야도 自然히 나든 ᄲᅴ 니르러는 境界와 ᄯᅩ 몸과 ᄆᆞᅀᆞᆷ괘 다 녜 ᄀᆞᆫ디 아니ᄒᆞ며 ᄉᆞᄆᆡ도 ᄯᅩ 話頭ᄅᆞᆯ 연즈리니 이런 時節에 키 아로미 갓가ᄇᆞ리라.(몽산 4)

. ᄯᅩ ᅀᆞᄆᆞᆯ 가져 아로ᄆᆞᆯ 기들우디 마롤디니라.(몽산 5)

. 오직ᄒᆞ니거나 ᄀᆞ마니 잇거나 호매 모ᄃᆡ 工夫ᄅᆞᆯ 그춤 업게 호리니 自然히 더러ᄇᆞᆫ 境界ᄂᆞᆫ 드디 아니코 眞實ㅅ 境界ᄂᆞᆫ 날로 더어 漸漸無明 허롫히미 이시리라.(몽산 5)

. 히미 充實ᄒᆞ며 너브면 疑團이 헐며「團은 무저기라」 無明이 헐리니 無明이 헐면 곧 微妙ᄒᆞᆫ 道理ᄅᆞᆯ 보리라.(몽산 6)

. 參禪은 조ᅀᆞᄅᆞᄫᅵ요미 ᄉᆞᆷᄉᆞᆷ호매 잇ᄂᆞ니 靈利ᄒᆞᆫ 사ᄅᆞ미 몬져 公案애 ᄉᆞᆯ펴 正ᄒᆞᆫ 疑心이 잇거든「靈利ᄂᆞᆫ ᄂᆞᆯ날씨라. 公案은 그 윗글와리니 사ᄅᆞ미 다 從ᄒᆞᆯ씨 話頭ᄅᆞᆯ 公案이라 ᄒᆞ니라」 ᄯᅩ ᄲᅳᆫᄅᆞ도 아니ᄒᆞ며 늣도 아니ᄒᆞ야 話頭ᄅᆞᆯ 擧ᄒᆞ야 隱密히 光ᄋᆞᆯ 두르혀 제 보면 주ᄇᆡ키 아로ᄆᆞᆯ 得ᄒᆞ야 몸과 ᄆᆞᆷ괘 便安ᄒᆞ리라.「光은 비치니 ᄆᆞᅀᆞᄆᆞᆯ 니ᄅᆞ니라」(몽산 6-7)

. ᄒᆞ다가 ᄆᆞᅀᆞᆷ ᄲᅮ미 가ᄀᆞᆨᄒᆞ면 ᄆᆞᅀᆞᆶ 조기 뮈여 血氣 調和티 몯ᄒᆞᆫ 等엣 病이 나리니 正ᄒᆞᆫ 길히 아니라.(몽산 7) * 가ᄀᆞᆨᄒᆞ다 = 急ᄒᆞ다

. 오직 正ᄒᆞᆫ 信心ᄋᆞᆯ 發ᄒᆞ야 眞實 ᄆᆞᅀᆞ매 疑心이 이시면 自然히 話頭ㅣ 나ᄐᆞ리라.(몽산 8)

. ᄒᆞ다가 히믈 ᄇᆡ 話頭ᄅᆞᆯ 擧호매 干涉ᄒᆞᆫ ᄲᅴᆫ 工夫ㅣ 히믈 얻디 몯ᄒᆞ리라.(몽산 8)

. ᄒᆞ다가 ᄃᆞ니거나 ᄀᆞ마니 잇거나 호매 疑心ᄒᆞ논 公案이 흔디 아니하며 다완디 아니ᄒᆞ며 話頭ㅣ ᄲᅳᄅᆞ디 아니ᄒᆞ면 늣디 아니ᄒᆞ야 自然히 나ᄃᆞ면 이러ᄒᆞᆫ 時節에ᅀᅡ 工夫ㅣ 히믈 어드리라.(몽산 8-9)

. ᄯᅩ 모로매 이 念을 護持ᄒᆞ야 샹녜 닛게 ᄒᆞ야 안즌 中에 다시 定力으로 서르 도보미 조ᄉᆞᄅᆞᄫᅵ니라.(몽산 9)

. 믄득 맛ᄃᆞ로매 ᄆᆞᅀᆞ맷 길히 ᄒᆞᆫ 디위 그츠면 곧 키 아로미 이시리니 「築着磕着은 맛ᄃᆞᆫ다 ᄒᆞ논 마리니 工夫ㅣ 니거 ᄭᅵᄃᆞᄅᆞᆶ 時節이니 녜 香嚴和尙이 工夫ㅣ 至極ᄒᆞ야셔 忽然히 집터 닷다가 ᄌᆡ벽으로 대수ᄐᆞᆫ 소리예 알며 靈雲和尙도 工夫ㅣ 至極ᄒᆞ야셔 挑花ㅅ 곳 보고 아니다 이 築着磕着ᄋᆞᆯ 디내야ᅀᅡ 아ᄅᆞ시니라」 알모ᅀᅡ 다시 안 後ㅅ일 ᄃᆞᆯᄒᆞᆯ 무르라.(몽산 9-10)

. 參禪은 모로매 祖師ㅅ 關ᄋᆞᆯ ᄉᆞᄆᆞ차ᅀᅡᄒᆞ리며 「關은 마ᄀᆞᆯ 싸히라」 微妙히 아로ᄆᆞᆫ 모ᄃᆡ ᄆᆞᅀᆞ맷 길히 그추메 다ᄃᆞ라ᅀᅡ ᄒᆞ리니「祖師關은 수ᄇᆡ 몯ᄉᆞᄆᆞ차갊 싸히니 趙州無ㄱ 字ㅣ라.」 祖師關ᄋᆞᆯ ᄉᆞᄆᆞᆺ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맷 길히 긋디 몯ᄒᆞ면 다 프를 브트며 남긔 브튼 精靈이리라.「精靈은 넉시라」(몽산 10-11)

. 즁이 趙州ᄭᅴ 무로ᄃᆡ 가히ᄂᆞᆫ 佛性이 잇ᄂᆞ니잇가 업스니잇가. 趙州ㅣ 닐오ᄃᆡ 업다ᄒᆞ니 오직 이 無ㄱ字ㅣ 宗門엣 ᄒᆞᆫ 關이니 有心으로도 ᄉᆞᄆᆞᆺ디 몯ᄒᆞ며 無心으로도 ᄉᆞᄆᆞᆺ디 몯ᄒᆞ리라.(몽산 11-12)

. ᄉᆞᆲᄉᆞᆲᄒᆞᆫ ᄂᆞᆯ난 사ᄅᆞᄆᆞᆫ 바ᄅᆞ드위텨 趙州의 올긔ᄅᆞᆯ 자바ᄃᆞᆫ 내 마ᄅᆞᆯ 도로 가져오라.(몽산 12)

. ᄒᆞ다가 ᄒᆞᆫ 터럭 긑매나 이시면 門外예 잇거다.(몽산 12)

. 覺圓上座ᄂᆞᆫ 아ᄂᆞᆫ다 모ᄅᆞᄂᆞᆫ다. 微妙ᄒᆞᆫ 아로미 圓滿히 ᄇᆞᆯᄀᆞ란ᄃᆡ 반ᄃᆞ기 趙州ㅣ 엇던 面目인ᄃᆞᆯ 아로리라. 無ㄱ字ᄅᆞᆯ 닐온 ᄠᅳ든 엇데어뇨.(몽산 13)

. 구믈구믈ᄒᆞᄂᆞᆫ 衆生이 다 佛性이 잇거시니 趙州ᄂᆞᆫ 어ᄃᆡᄅᆞᆯ 因ᄒᆞ야 업다 니ᄅᆞ뇨.(몽산 13)

. ᄆᆞᄎᆞ매 이 無ㄱ字ㅣ 어느 고대 잇ᄂᆞ뇨.(몽산 13)

. 本來ㅅ 아로미 ᄇᆞᆰ디 몯ᄒᆞ거든 다 疑心을 두리니 키 疑心ᄒᆞ면 곧키 아로미 이시리니 ᄯᅩ ᄆᆞ

ᄉᆞᆷ 가져 아롬 기드료미 몯ᄒᆞ리며 ᄯᅩ ᄲᅳ드로 아로ᄆᆞᆯ 求호미 몯ᄒᆞ리며 有ㅣ라 無ㅣ라 ᄒᆞ야 아로미 몯ᄒᆞ리며 虛ᄒᆞ야 업슨 거시라 ᄒᆞ야 아로미 몯ᄒᆞ리며 쇠뷔라 ᄒᆞ야 ᄲᅳ디 몯ᄒᆞ리며 나귀ᄆᆡ 말히라 ᄒᆞ야 ᄲᅳ디 몯ᄒᆞ리라.(몽산 13-14) *-키/ -가져

. 疑團이 날로 盛케 하야 二六時中 四威儀內예「二六ᄂᆞᆫ 열둘ᄊᆡ라 四威儀ᄂᆞᆫ 녀며 ᄀᆞ마니 이시며 안ᄌᆞ며 누ᄇᆞ며 호미라」 다ᄆᆞᆫ다ᄆᆞᆫ 無ㄱ字ᄅᆞᆯ 자바 隱密히 心光ᄋᆞᆯ 두르혀 제 보리라.(몽산 15)

. 옳제 보며 갊제 보며 옳제 疑心ᄒᆞ며 갊제 疑心ᄒᆞ야 滋味 ᄀᆞ장 업슨 ᄯᅴ 져기 滋味 이시리니 ᄯᅩ 煩惱 내요미 몯ᄒᆞ리라.(몽산 15-16)

. 疑心이 重ᄒᆞ면 話頭ᄅᆞᆯ 擧티 아니ᄒᆞ야도 自然히 알ᄑᆡ 나ᄃᆞ리니 ᄯᅩ 깃거호미 몯ᄒᆞ리라.(몽산 16)

. ᄒᆞ욱ᄒᆞ며 서의호ᄆᆞᆯ 제혼 조초ᄒᆞ야 바ᄅᆞ 늘근 쥐 골 너흐로 ᄆᆞᆯᄀᆞ티 ᄒᆞ야 오직 無ㄱ字ᄅᆞᆯ 擧ᄒᆞ야 보리라.(몽산 16)

. ᄒᆞ다가 안즌 中에 微妙ᄒᆞᆫ 定力 도ᄇᆞᆯ 어더든 正히 됴히 잡드롫디니 오직 힘써 아니호미 조ᄉᆞᄅᆞᄫᅵ니라.(몽산 16-17)

. ᄒᆞ다가 힘두어 잡들면 定力 境界 흐러디리라.(몽산 17)

. 能히 善히 ᄆᆞᄉᆞᆯ 써 忽然 定에 든 ᄯᅴ ᄯᅩ 定力ᄋᆞᆯ 貪코 話頭 니주미 몯ᄒᆞ리라.(몽산 17)

. ᄒᆞ다가 話頭옷 니즈면 空애 디여 微妙히 아로미 업스리라.(몽산 18)

. 定ᄋᆞᆯ 起ᄒᆞᆫ ᄯᅴ도 ᄯᅩ 모로매 定力을 便安히 護持호리니 뮈나 ᄀᆞ마니 잇거나 호매 ᄒᆞᆫ가지라 ᄌᆞ오롬과 雜念괘 다 그처도 ᄯᅩ 깃븐 ᄆᆞᄉᆞᆷ 내디 마롫디어다.(몽산 18)

. 믄득 화ᄒᆞᆫ논ᄒᆞᆫ 소리예 趙州關ᄋᆞᆯ ᄉᆞᄆᆞᆺ 디나「+地ᄂᆞᆫ 몯 어뎃던 거슬 어더셔 화ᄒᆞ논 소리라」 닐온 말마다 맛당ᄒᆞ야 살와살와ᄂᆞᆯ히 맛ᄃᆞᄅᆞ면「두사리 서르 맛ᄃᆞᆫ다 ᄒᆞ논 마ᄅᆞᆫ 스승과 弟子와 ᄒᆞ야 工夫ㅣ ᄒᆞᆫ가지로ᄆᆞᆯ 니르니라」 正히 모ᄃᆡ 안 後에 사ᄅᆞᆯ 이ᄅᆞᆯ 求호리라.(몽산 18-19) * -로+ㅁ(토씨+ 이름법씨끝이 붙은 경우임-이 경우는 '-ᄒᆞ-'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ᄒᆞ다가 그러티 몯ᄒᆞ면 엇뎨 法器 ᄃᆞ외리오.(몽산 20)

. 녯 聖人냇 보라ᄆᆞᆯ 보미 맛당컨뎡 모ᄃᆡ 杜撰ᄋᆞᆯ 마롫디니 아란다.「杜撰은 杜家ᄋᆡ 撰集이니 實티 아니ᄒᆞᆫ 글와리라」(몽산 20)

. 五祖演 和尙이 衆人을 뵈야 닐오ᄃᆡ 釋迦 彌勒이 오히려 ᄂᆞᄆᆡ 죵이라 ᄒᆞ니 ᄂᆞᄆᆞᆫ 누구.(‘오’가 빠진 듯함)(몽산 20)

. 바ᄅᆞ 아라 맛당히 니ᄅᆞ면 어루 分段 生死를 여희리니 다시 댓그테 어윈 거르믈 나소 드듸여ᅀᅡ 大丈夫의 이룸 ᄆᆞᄎᆞ리라.(몽산 21)

. 惟正 上座ᄂᆞᆫ 能히 아란다 몰란다.(몽산 21) 모ᄅᆞ+ㄴ다(‘ᄂᆞ’의 존재 여부)

. 몯 아라ᄃᆞᆫ 샐리 惺惺히 ᄒᆞ야 眞實 工夫를 ᄒᆞ야 法 다ᄇᆡ 參究ᄒᆞ야키 아로ᄆᆞ로 門에 드로ᄆᆞᆯ 사모리라.「參究ᄂᆞᆫ ᄎᆞᄌᆞᆯ씨라」 =否則急宜惺惺ᄒᆞ야 下眞實工夫ᄒᆞ야 如法參究ᄒᆞ야 以大悟로 爲入門호리라.(몽산 21-22) -키(크다)

. 닐온 參究호ᄆᆞᆫ 반ᄃᆞ기 釋迦 彌勒이 이 부톄시거니 엇던ᄃᆞᆯ 因ᄒᆞ야 오히려 ᄂᆞᄆᆡ 죵이어뇨. ᄆᆞᄎᆞ맨 ᄂᆞᄆᆞᆫ 뉘어뇨 ᄒᆞ야 疑心호리니 疑心이 盛커든 ᄯᅩ ᄂᆞᄆᆞᆫ 뉘어뇨 호ᄆᆞᆯ 擧ᄒᆞ야 光을 두르혀 제 보리라.(몽산 22)

. 모ᄃᆡ 힘ᄲᅮ물 키 時急히 아니홇디니 時急ᄒᆞ면 色心을 뮈워 病이 나리라.= 不要用心大緊이니 緊則動色心ᄒᆞ야 生病ᄒᆞ리라. (몽산 23) -키(크다)=크게

. 키 날회야 호미 외니 날회야 ᄒᆞ면 話頭를 니저 昏沉과 雜念괘 들리라.(몽산 23)

. 조ᄉᆞᆯᄫᅱ요미 그 ᄆᆞᅀᆞᆷ 善히 ᄲᅮ메 잇ᄂᆞ니 正ᄒᆞᆫ 信心을 ᄀᆞ장 發ᄒᆞ야 一切 世間앳 ᄆᆞᅀᆞᆯ ᄀᆞ장 ᄇᆞ리고 ᄉᆞᆲᄉᆞᆯ비 隱密히 話頭를 잡드러 ᄒᆞ면 안ᄌᆞᆫ 中에 ᄆᆞᆺ히믈 수ᄇᆡ 得ᄒᆞ리니 처ᅀᅥᆷ 안ᄌᆞᆶ 저긔 精神을 ᄠᅥ러펴 모ᄆᆞ로 端正히 홇디언뎡 등구표미 몯ᄒᆞ리라.(몽산 23-24)

. 머리를 구즈기 셰오 눉시우를 뮈우디 아니ᄒᆞ야 平常히 누늘 ᄲᅮ리니 눈 ᄌᆞ싀 뮈디 아니ᄒᆞ면 곧 몸과 ᄆᆞᅀᆞᆷ괘 다 寂靜ᄒᆞᆫ 後에ᅀᅡ 定이니라.(몽산 24-25)

. 定中에 ᄯᅩ 모로매 話頭를 알ᄑᆡ 나토오리니 定을 貪코 話頭니주미 몯ᄒᆞ리니 니즈면 空애 디여 도ᄅᆞ혀 定의 어리요ᄆᆞᆯ 니버 올ᄒᆞᆫ 고디 업스리라.(몽산 25)

. 定中에 힘 어두미 쉬브니 ᄯᅩ 모ᄃᆡ ᄉᆞᆲᄉᆞᆯ비ᄒᆞ야 아ᄌᆞᆯ티 아니호리라.(몽산 26)

. 믄득 一切 됴ᄒᆞ며 구즌 境界 現홇 저기 잇거든 다 모ᄃᆡ 뎌를 가졧디 마로리라. =忽有一切好惡境界現時어든 都不要管他ㅣ니라.(몽산 26)

. 話頭ㅣ 分明ᄒᆞ면 아니한더데 境界 自然히 ᄆᆞᆯᄀᆞ리라.(몽산 26)

. 定에 起ᄒᆞᆯ ᄊᆡ ᄌᆞᄂᆞᄌᆞᄂᆞ기 모ᄆᆞᆯ 뮈워 定力을 護持호리니 닐 뮈여ᄒᆞ니 논 中에 話頭를 便安히 디녀 疑心을 잡들면 힘쓰디 아니ᄒᆞ야도 니스며 隱密ᄒᆞ야 그 처딘 ᄡᅵ 업슨 ᄲᅴᆫ 工夫ㅣ 漸漸ᄒᆞᆫ 무저기 ᄃᆞ외야 ᄆᆞᆯ곤 ᄀᆞᆺᆶᄆᆡ햇 므리 ᄆᆞᆯᄀᆞ며 ᄆᆞᆯ고미 곧ᄒᆞ야 비록 ᄇᆞᄅᆞ미 뮈여도다. 이

ᄆᆞᆯᄀᆞᆫ ᄠᅳᆯ겨리리라.(몽산 27)

. 이러ᄒᆞᆫ ᄢᅴ 니르러ᄂᆞᆫ 키 아로미 갓가ᄫᆞ리니 ᄯᅩ ᄆᆞᅀᆞᄆᆞᆯ 가져 아로ᄆᆞᆯ 기들우미 몯ᄒᆞ리라.(몽산 28)

. 모딘 ᄂᆞᄆᆡ게 穿鑿히 求티 말며 모ᄃᆡ 혜아리며 저즈리디 말며 모ᄃᆡ 아로ᄆᆞᆯ 求티 말옥 오직 話頭ᄅᆞᆯ 擧ᄒᆞ야 보리라.「穿鑿은 ᄋᆞᆯ씨라」(몽산 28) * -말+옥(연결어미 '-고/곡/옥')

. ᄒᆞ다가 그 다ᄅᆞᆫ 公案애 疑心이 잇거나 ᄯᅩ 經典에 疑心이 잇거든 다 뫼화 뎌ᄂᆞᆫ 이 뉘어뇨 호매 가져다가 보리라.(몽산 29)

. 한 疑心이 다 와다 發ᄒᆞ야 맛ᄃᆞ라 화ᄒᆞ논 ᄒᆞᆫ 소리예 正ᄒᆞᆫ 누니 여러 ᄇᆞᆯᄀᆞ면 곧 能히 지븨 니르론 말와 機緣에 마ᄌᆞᆫ 말와 ᄉᆞᆲ그티 서르 맛ᄃᆞᆫᄃᆞᆺᄒᆞᆫ 마ᄅᆞᆯ 닐어 여러가짓 機緣ᄋᆞᆯ 아라 아히 잇던 一切 疑心과 마ᄀᆞᆫ 싸히어름 消ᄐᆞᆺᄒᆞ야 나ᄆᆞᆫ 거시 업스리라.(몽산 29-30)

. 法法ᄋᆞᆯ 圓滿히 通達ᄒᆞ야 升堂ᄒᆞ고도 모ᄃᆡ 져기 아로ᄆᆞᆯ 마롫디어다.(몽산 30)

. 다시 오라 너의 나소거러 室에 드롤 이ᄅᆞᆯ ᄀᆞᄅᆞ쳐 大事ᄅᆞᆯ ᄉᆞᄆᆞᆺ 알에호리라.「升堂 入室은 堂애 올아 室에 들씨나 道理 아ᄂᆞᆫ 次第라」(몽산 30)

. 黃檗이 百丈ᄋᆞᆯ 보아ᄂᆞᆯ 馬祖ᄭᅴ 다시 가 절혼 機緣ᄋᆞᆯ 擧ᄒᆞᆫ대 곧 혀ᄅᆞᆯ 비바ᄐᆞ니 이ᄂᆞᆫ 百丈ㅅ 히 ᄆᆞᆯ 得ᄒᆞ니야 馬祖ㅅ 히ᄆᆞᆯ 得ᄒᆞ니야.(몽산 31)

. 巖頭ㅣ 德山ᄋᆞᆯ 보아ᄂᆞᆯ ᄒᆞᆫ 번 喝ᄒᆞᆫ대「喝은 헥ᄒᆞᆯ씨니 ᄇᆡ홇 사ᄅᆞᄆᆡ 혜어료미 다 ᄠᅥ러디긔 우리틸씨라」곧 절ᄒᆞ니 이ᄂᆞᆫ 恩ᄋᆞᆯ 알아라 ᄒᆞ니야 恩ᄋᆞᆯ 갑가라 ᄒᆞ니야.(몽산 31) *-니+야(의문토씨? 씨끝)

. ᄯᅩ 洞山 마ᄅᆞᆯ 對答ᄒᆞ야 닐오ᄃᆡ 내 그 ᄢᅴ ᄒᆞᆫ 소ᄂᆞ로 받고 ᄒᆞᆫ 소ᄂᆞ로 눌로라 ᄒᆞ니 어늬 뎌의 바ᄃᆞ며 누르논곧고.「ᄯᅩ 洞山말 對答호ᄆᆞᆫ 巖頭의 德山 절혼이ᄅᆞᆯ 洞山이 닐오ᄃᆡ 巖頭옷 아니런든 德山ㅅ 喝ᄋᆞᆯ 몯 알리랏다 ᄒᆞ야ᄂᆞᆯ 巖頭ㅣ 그 말 對答ᄒᆞ욘 마리라.(몽산 32) -옷(토씨)/

. 두 늘그늬 骨髓ᄅᆞᆯ ᄉᆞᄆᆞᆺ 보닌댄 곧 됴히 ᄒᆞᆫ 디위 말ᄒᆞ야 여러 方앳 마ᄅᆞᆯ 긋누르리니 네 門의 드다호리라.(몽산 32-33) *--니+ㄴ댄

. ᄒᆞ다가 그러티 몯거든 ᄉᆞᆯ리 參究호미 맛당ᄒᆞ니 ᄒᆞ다가 參究에 干涉홇딘댄 곧 工夫ᄅᆞᆯ 닐옳디니라.(몽산 33)

. 바ᄅᆞ 모로매 本分ᄋᆞᆯ 브터 法 다ᄇᆡᄒᆞ야ᅀᅡ 비로소 올ᄒᆞ리라.(몽산 33)

. 반ᄃᆞ기 本來 參究ᄒᆞ논 公案애 疑心ᄋᆞᆯ 두리니 큰 疑心ㅅ 그텐 반ᄃᆞ기 키 아로미 이시리니

千疑萬疑를 다 ᄒᆞᆫ 疑心을 밍ᄀᆞ라 그 本來 參究에 일우ᄆᆞᆯ 取호리라.(몽산 33-34)

. ᄒᆞ다가 言句에 疑心 아니호미 이 큰 病이니라.(몽산 34)

. 모ᄃᆡ 諸緣을 다 ᄇᆞ리고 네 威儀 內와 두 여슷 ᄢᅴ 다ᄆᆞᆫ다ᄆᆞᆫ 話頭를 자바 光을 두르혀 제 보리라.(몽산 34-35)

. 坐中에 힘 어두미 ᄆᆞᆺ 하니 坐를 法으로 홇디언뎡 눈서블 바ᄅᆞ 보아 누늘 힘뼈 몸과 ᄆᆞᅀᆞᆷ과를 긋눌로ᄆᆞᆯ 모ᄃᆡ 마롫디니라.(몽산 35)

. ᄒᆞ다가 氣力을 힘뼈 ᄒᆞ면 곧 病苦를 어드리라.(몽산 35)

. 오직 모ᄆᆞᆯ 端正히 ᄒᆞ야 正히 안자 平常히 누늘 ᄠᅥ 身心과 境界와를 반다기 도라보디 마롫디니라.(몽산 36)

. ᄒᆞ다가 昏沉과 雜念괘 잇거든 져기 ᄀᆞᆺᄀᆞ지 ᄒᆞ야 ᄒᆞᆫ두 소릿 話頭를 擧ᄒᆞ면 自然 諸魔ㅣ 消滅ᄒᆞ리라.(몽산 36)

. 누니 一定ᄒᆞ면 ᄆᆞᅀᆞ미 一定ᄒᆞ고 ᄆᆞᅀᆞ미 一定ᄒᆞ면 모미 一定ᄒᆞ리니 ᄒᆞ다가 定을 어든 저긔 能ᄒᆞᆫ 일 사모미 몯ᄒᆞ리라.(몽산 36-37)

. ᄒᆞ다가 話頭를 니저 空애 ᄠᅥ디며 寂에 걸면 키 아디 몯ᄒᆞ야 두르혀 큰 病이 ᄃᆞ외리라.(몽산 37)

. ᄒᆞ다가 定中에 아닌 智慧 ᄯᅩ 能히 너브며 커 믈와 뭍과애 다 나ᅀᅡ가리라「믈와 뭍과ᄂᆞᆫ 事理 俱通ᄒᆞᆯ씨라」(몽산 38)

. 工夫ㅣ ᄒᆞ다가 흐워기 ᄒᆞᆫ 디위ᄒᆞ고 서의히 ᄒᆞᆫ 디위 ᄒᆞ야 滋味 업슨 ᄢᅴ 니르거든 正히 거르믈 나ᅀᅡ 드듸여 漸漸 程節에 드롫디니 모ᄃᆡ ᄇᆞ료미 몯ᄒᆞ리라.「程節은 길 녀 가ᄂᆞᆫ ᄆᆞᄃᆡ라」(몽산 38) * 길+녀+가다(?)

. 숣숣ᄒᆞ면 곧 寂靜에 들리니 寂靜ᄒᆞᆫ 後에ᅀᅡ 定이니 定이 各各 일후미 잇ᄂᆞ니 邪도 이시며 正도 잇ᄂᆞ니 아로미 宜커다.(몽산 39)

. 定을 起ᄒᆞᆫ 後에 身心이 輕淸ᄒᆞ야「輕淸은 몸 가비얍고 ᄆᆞᅀᆞᆷ ᄆᆞᆯᆯ씨라」一切處에 힘ᄲᅮ미 져거 뮈여ᄒᆞ니논 中에 ᄒᆞᆫ 무저기 ᄃᆞ회어든 ᄯᅩ 반ᄃᆞ기 字細히 ᄆᆞᅀᆞᄆᆞᆯ 뽏디니라.(몽산 39)

. 工夫를 조차ᄒᆞ야 始와 終과애 靜淨이 至極ᄒᆞ얀 곧 알오조 호미 至極엔 光明이 通達ᄒᆞᄂᆞ니라.(몽산 40)

. 氣韻이 肅靜ᄒᆞ며「肅靜은 괴외ᄒᆞᆯ씨라」家風이 ᄆᆞᆯ가「家風은 ᄆᆞᅀᆞᄆᆞᆯ 니ᄅᆞ니라」뮈며 괴외ᄒᆞᆫ

境界 ᄀᆞᆷᆞᆫ 하ᄂᆞ리 ᄀᆞᆮᄒᆞᆫ ᄇᆡ 이 第一 ᄆᆞᄃᆡ니 곧 그 ᄠᅳᆯ 乘ᄒᆞ야셔 나소거롫디니라.(몽산 40-41)

. ᄆᆞᆯᄀᆞᆫ ᄀᆞᆷᆞᆫ ᄆᆡ햇 므리 ᄀᆞᆮᄒᆞ며 녯 廟쏘뱃 香爐ㅣ ᄀᆞᆮᄒᆞ야 괴외ᄒᆞ며 ᄉᆞᆷᄉᆞᆷᄒᆞ야 ᄆᆞᅀᆞ맷 길히 녀디 아니ᄒᆞᆯ ᄢᅴ 또 幻身이 人間애 잇ᄂᆞᆫ ᄃᆞᆯ 모ᄅᆞ고 오직 話頭옷 니스며 니ᅀᅥ 긋디 아니ᄒᆞᄂᆞᆫ ᄃᆞᆯ 보리니.(몽산 41) *-옷/ -ᄃᆞᆯ/ -ㅣ ᄀᆞᆮᄒᆞ다(토씨 쓰임 유의)

. 이 고대 니르러ᄂᆞᆫ 드트른 將次 긋고 光明은 將次 發ᄒᆞ리니 이 ᄃᆞᆯ찻 ᄆᆞᄃᆡ니라. (몽산 42)

. 이 고대 ᄒᆞ다가 아ᄂᆞᆫ ᄆᆞᅀᆞᆷ곳 내면 純一ᄒᆞᆫ 妙ㅣ 그츠리니 큰 害니라.(몽산 42)

. 이 허믈 업스닌 뮈며 ᄀᆞ마니 이시며 호매 ᄒᆞᆫ가지라 ᄭᅵ며 자며 호매 ᄉᆞᆷᄉᆞᆷᄒᆞ야 話頭ㅣ 알ᄑᆡ 나토ᄃᆡ 므레 ᄉᆞᄆᆞᄎᆞᆫ ᄃᆞᆶ비치 ᄀᆞᆮᄒᆞ야 여흘믌결 中에 이셔 活潑潑ᄒᆞ야「活潑潑은 설설 흐르ᄂᆞᆫ 믌겨레 비췬 ᄃᆞᆶ비츨 닐온 마리니 ᄆᆞᅀᆞ미 聲色애 번득호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다 딜어도 흔디 아니ᄒᆞ며 헤텨도 일티 아니ᄒᆞᆫ ᄢᅴ 가온ᄃᆡ 괴외ᄒᆞ야 이 어디 아니ᄒᆞ며 밧도 이어도 뮈디 아니ᄒᆞ리니 이 세찻 ᄆᆞᄃᆡ니라.=無此過者ᄂᆞᆫ 動靜에 一如ㅣ라 寤寐惺惺ᄒᆞ야 話頭ㅣ 現前호ᄃᆡ 如透水月華在灘浪中ᄒᆞ야셔 活潑潑ᄒᆞ야 觸ᄒᆞ야도 不散ᄒᆞ며 蕩ᄒᆞ야도 不失時예 中寂ᄒᆞ야 不搖ᄒᆞ며 外撼ᄒᆞ야도 不動矣리니 是第三箇程節이니라.(몽산 42-43)

. 疑團이 허러 正ᄒᆞᆫ 눈 ᄲᅮ미 갓가ᄫᅳ리라.(몽산 43)

. 믄득 맛ᄃᆞ로매 啐호미 그츠며 더오미 그처 내 모ᄆᆞᆯ 훤히 ᄇᆞᆯ겨 부텨와 祖師왜 사ᄅᆞᄆᆡ게 ᄆᆡ이샨 고ᄃᆞᆯ 솔기자바든「啐은 ᄃᆞᆯᄀᆡ 알히 이러 ᄀᆞᆺ낧제 우루미라. 더오믄 밤 구ᄒᆞᆶ제 더ᄇᆞᆫ 氣韻이 소배 드러 ᄀᆞᆺ 심통애 들면 ᄠᅮᆨ 퍼달씨니 이ᄂᆞᆫ 見性홇젯 이ᄅᆞᆯ 形容ᄒᆞ니라」또 큰 宗匠ᄋᆞᆯ 보아 불요ᄆᆞᆯ 求ᄒᆞ야 큰 法器 ᄃᆞ외욣디언뎡 져기 得ᄒᆞ고 足사모미 몯ᄒᆞ리라.「宗匠은 善知識이라」(몽산 44)

. 안 後에 ᄒᆞ다가 사ᄅᆞᄆᆞᆯ 보디 몯ᄒᆞ면 後ㅅ 일 아디 몯호ᄆᆞᆯ 免티 몯ᄒᆞ리니 그 害 ᄒᆞ나히 아니니라.(몽산 45)

. ᄒᆞ다가 佛祖ㅅ機緣에 ᄀᆞ린 고디 이시면 이ᄂᆞᆫ 아로미 녀터 ᄀᆞ장 玄妙티 몯ᄒᆞ리라.=惑於佛祖機緣上有碍處是悟淺未盡玄妙ᄒᆞ리라.(몽산 45)

. ᄒᆞ마 ᄀᆞ장 玄妙ᄒᆞ거든 또 모ᄃᆡ 므르거러 光ᄋᆞᆯ ᄀᆞ초며 자최ᄅᆞᆯ ᄀᆞ초아 便安히 養ᄒᆞ야 力量이 오ᄋᆞᆯ며 ᄀᆞ자 大藏經이며 儒와 道ᄅᆞᆯ ᄒᆞ야 ᄇᆞ려 淸淨ᄒᆞ야 ᄀᆞᄉᆡ 업스며 圓明ᄒᆞ야 ᄀᆞ료미 업서ᅀᅡ 어루 노피 ᄂᆞᆯ며 머리드러 거싀 光明이 盛大ᄒᆞ야 先宗ᄋᆞᆯ 더러ᄇᆡ디 아니ᄒᆞ리라.= 旣盡玄妙커든 又要退步ᄒᆞ야 韜晦保養力量이 全備ᄒᆞ야 看過藏敎儒道諸書ᄒᆞ야 消磨多生習氣ᄒᆞ야 淸淨無際圓明ᄒᆞ야 無碍커ᅀᅡ 始可高飛遠擧ᄒᆞ야 庶得光明盛大不辱先宗ᄒᆞ리라.(몽산 46) *-ᄅᆞᆯ ᄒᆞ야 ᄇᆞ려(消를 번역한 것)/ -가자(갖추다)

. ᄒᆞ다가 녯 行履處ᄅᆞᆯ 밧고ᄆᆞᆯ 다 몯 ᄒᆞ면 곧 常 무릐게 디리라.(몽산 46-47) *-의게(-에

다)

. 또 ᄒᆞ다가 말ᄒᆞᆯ ᄲᅴ 아ᄂᆞᆫᄃᆞᆺ ᄒᆞ고 境ᄋᆞᆯ 對ᄒᆞ야 도로 迷ᄒᆞ야 말내요미 醉ᄒᆞᆫ 사ᄅᆞ미 ᄀᆞᆮᄒᆞ며 ᄒᆞ저즈로미 俗子ㅣ ᄀᆞᆮᄒᆞ야「俗子ᄂᆞᆫ 쇼히라」조가ᄀᆞᆯ 그슥ᄒᆞ며 現然ᄋᆞᆯ 아디 몯ᄒᆞ며 말ᄊᆞᄆᆞᆯ 邪正ᄋᆞᆯ 아디 몯ᄒᆞ야 因果ᄅᆞᆯ ᄡᅳ러ᄇᆞ리린댄 至極ᄒᆞᆫ 큰 해니라. =更若設時ᄂᆞᆫ 似悟對境ᄒᆞ얀 還迷出語ㅣ 如醉人ᄒᆞ며 作爲似俗子ᄒᆞ야 機不識隱顯ᄒᆞ며 語ᄅᆞᆯ 不知正邪ᄒᆞ야 撥無因果ᄒᆞ리린댄 極爲大害니라.(몽산 47)

. 몬졋 사ᄅᆞᄆᆡ 正ᄒᆞ며 邪호미 큰 양ᄌᆡ 잇ᄂᆞ니라.(몽산 48)

. 일 ᄆᆞᄎᆞᆫ 사ᄅᆞᄆᆞᆫ 주굼 사로매 能히 麤ᄒᆞᆫ 거슬 밧고아 ᄀᆞᄂᆞᆫ 거슬 사ᄆᆞ며 能히 뎌른 것 밧고아 긴거시 ᄃᆞ외에 ᄒᆞ야 智慧 光明 解脫로ᄡᅥ 一切法ᄋᆞᆯ 냃 三昧ᄋᆞᆯ 得ᄒᆞ리니「智光明 解脫은 見性ᄒᆞᆫ 後에 어둔 三昧ㅅ 일후미라」이 三昧ᄅᆞᆯ ᄡᅳᄂᆞᆫ 젼ᄎᆞ로 意生身ᄋᆞᆯ 得ᄒᆞ야 後ᄅᆞᆯ 向ᄒᆞ야 能히 妙應身ᄋᆞᆯ 得ᄒᆞ리니 道ㅣ 큰 바ᄅᆞ리 ᄀᆞᆮᄒᆞ야 더욱 드디옷 더욱 기프리라.(몽산 48-49)

. 達磨ㅣ 頌ᄒᆞ야 니ᄅᆞ샤ᄃᆡ 부쳣 ᄆᆞᅀᆞᄆᆞᆯ 아로ᄃᆡ ᄒᆞᆫ가지라. 差別이 업고도 行과 解왜 서르 마자ᅀᅡ 일후믈 祖ㅣ라 닐옳디라 ᄒᆞ시니라.(몽산 49)

. 또 宗門中에 부텨ᄭᅴ 더으며 祖師애 너믄 혜아료미 잇다ᄒᆞ야 니르디 말라. 聰上人은 信ᄒᆞ며 信티 아니호ᄆᆞᆫ 後ᄅᆞᆯ 向ᄒᆞ야 自然히 알리라.(몽산 50)

. 僧이 趙州ᄭᅴ 무로ᄃᆡ 가히ᄂᆞᆫ 佛性이 잇ᄂᆞ니잇가 업스니잇가. 趙州ㅣ 닐오ᄃᆡ 업스리라 구물구물ᄒᆞᄂᆞᆫ 衆生이 다 佛性이 잇거시니 趙州ᄂᆞᆫ 므스글 因ᄒᆞ야 업다 닐어뇨.(몽산 50-51) *잇+거+시+ᄂᆞᆯ

. ᄒᆞ다가 趙州禪을 口皮邊으로 ᄉᆞᆯ펴보리라 니ᄅᆞ린댄 다른 나래 쇠 막다히ᄅᆞᆯ 마ᄌᆞ리라.「口皮邊은 마ᄅᆞᆯ 니르니라」(몽산 51)

. 三世諸佛ㅅ 骨髓시며 歷代 祖師ㅅ 眼目ᄋᆞᆯ ᄒᆞᆫ 버네 드러내야 네 面前에 둔ᄃᆞᆯ 곧 아디 몯도다.(몽산 51-52) *-번(의존명사)/-ᄃᆞᆯ

. 性ᄆᆞᄅᆞᆫ 사ᄅᆞ미 ᄒᆞᆫ 엇게예 메여 가면 山僧의 막다히로도 또 너를 티고져 아니ᄒᆞ리니 또 니ᄅᆞ라 마ᄎᆞ매 엇더ᄒᆞ도소뇨.(몽산 52) *-도소-뇨

. 오직 이 無ㄱ字ㅣ 全혀 긑고히 업소ᄃᆡ 져기 긑고히 잇ᄂᆞ니라.(몽산 52) *긑곻(巴鼻)

. 惑이 닐오ᄃᆡ 이ᄂᆞᆫ 목수를 그츰 갈히며 差別智慧ᄅᆞᆯ 열 열쇠라 ᄒᆞᄂᆞ니 三十棒ᄋᆞᆯ 됴ᄐᆡ됴토다.(몽산 53) *惑의 경우--명사로 쓰일 때는 ᄒᆞ다가로 번역되지 않음

. 이ᄂᆞᆫ 賞罰이 비록 맛당히 닐어도 네 어듸 이셔 趙州본다.(몽산 53) * 이셔(실사>허사로?)

. 다 닐오ᄃᆡ 趙州 古佛ㅅ 눈光明이 四天下ᄅᆞᆯ 바취ᄂᆞ다 ᄒᆞᄂᆞ니 無ㄱ字ᄅᆞᆯ 닐온고ᄃᆞᆯ 보건댄 性命이 本色衲子의 소내 디여잇다.(몽산 53-54)

. ᄒᆞᆫ 무렛 사ᄅᆞ미 ᄯᅩ 뎌 無ㄱ字ᄅᆞᆯ 向ᄒᆞ야 滋味ᄅᆞᆯ 춧ᄂᆞ니 엇뎨 平生ᄋᆞᆯ 鈍히 ᄇᆞ리디 아니ᄒᆞ료.(몽산 54)

. 趙州ㅅ ᄂᆞᆯ난 갈히 ᄎᆞᆫ 서릿비치 이륵이륵ᄒᆞ니 혜아려 엇더ᄒᆞ뇨 ᄒᆞ야 무르린댄 모미 分ᄒᆞ야 두그티 ᄃᆞ외러라.(몽산 55)

. 喝ᄒᆞ고 니ᄅᆞ샤ᄃᆡ 愚癡ᄒᆞᆫ 사ᄅᆞᄆᆡ 알ᄑᆡ 쑴 니르디 마롤디니라.(몽산 55)

. ᄯᅩ 우리 님금 庫內예ᄂᆞᆫ 이런 갈히 업스니라. ᄆᆞᄎᆞ매 趙州ᄂᆞᆫ 이 엇던 面目고.(몽산 55)

. 妙喜 닐오ᄃᆡ 이 잇다 업다 혼 無도 아니며 이 眞實로 업다혼 無도 아니라 ᄒᆞ니 ᄯᅩ 妙喜ᄅᆞᆯ 아ᄂᆞᆫ다 모ᄅᆞᄂᆞᆫ다.(몽산 56)

. ᄒᆞ다가 눈곳 ᄀᆞᆺ디 몯ᄒᆞ면 ᄯᅩ 東ᄋᆞ로 혜며 西로 혜아려 더욱 意識을 더으리니 모ᄃᆡ 마롤디니라. 靈利ᄒᆞᆫ 사ᄅᆞᄆᆞᆫ ᄯᅩ 니ᄅᆞ라. 趙州ㅅ ᄠᅳ든 엇더ᄒᆞ뇨.(몽산 56)

. 이제ᄂᆞᆫ 해 닐오ᄃᆡ 無ㄱ字ㅣ 이 쇠뷔라 ᄒᆞᄂᆞ니 趙州ㅅ ᄠᅳ든 果然 그러ᄒᆞ도소니야 아니ᄒᆞ도소니야. 다른 後ㅅ 마ᄅᆞᆯ 쳐마ᄀᆡ오리잇ᄂᆞ니 그르안 먼 사ᄅᆞ미로다. =近來多道호ᄃᆡ 無字是鐵掃箒ㅣ라 ᄒᆞᄂᆞ니 趙州意ᄂᆞᆫ 果如是아 不아 有引他後語ᄒᆞ야 爲證者錯了也瞎漢이로다.(몽산 56-57)

. 쇽졀업슨 ᄇᆡ화 아로ᄆᆞᆯ 디녀셔 祖師心ᄋᆞᆯ 무더ᄇᆞ리디 마롤디어다.喝 =莫將閑學解ᄒᆞ야셔 埋沒祖師心이어다. 喝. (몽산 57)

. 사ᄅᆞ미 닐오ᄃᆡ 無ㄱ字ᄂᆞᆫ 이 나귀 ᄆᆡ욘 말히라 ᄒᆞᄂᆞ니 네 어듸 이셔 ᄭᅮ메나 趙州ᄅᆞᆯ 본다. 無閒業ᄋᆞᆯ 쳐 나소디 아니코져 ᄒᆞ린댄 如來ㅅ 正法輪ᄋᆞᆯ 誹謗티 마롤디니라.(몽산 57-58)

. 하나한 외다ᄒᆞᄂᆞᆫ 病을 다 거더 ᄇᆞ려니 ᄆᆞᄎᆞ매 이 無ㄱ字ᄂᆞᆫ 어느 고대 잇ᄂᆞ뇨.(몽산 58)

. 이 無ㄱ字ᄂᆞᆫ 有心과 無心괘 다 ᄉᆞᄆᆞᆺ디 몯ᄒᆞᄂᆞ니라.「有心無心은 有心人 無心人이라 ᄒᆞᄂᆞᆫ 마리라.」(몽산 58)

. 목수믈 ᄇᆞ리고 擧티 아니ᄒᆞᆫ 前ᄋᆞ로 向ᄒᆞ야 누늘 ᄠᅥ 믄득 다시 ᄭᅵ야나ᄆᆞᆫ 곧 업시 ᄉᆞᄆᆞᆺ 일면 一千七百則 公案ᄋᆞᆯ 뉘네 面前ᄋᆞᆯ 向ᄒᆞ야 자바내리오.「則은 法則이라」(몽산 59)

. 모ᄃᆞᆫ 부텨와 祖師왓 大機「体라」 大用이언 神通과 三昧와 三玄과「体」 三要와 種種 差別智와 一切無碍慧 다 이ᄅᆞᆯ 從ᄒᆞ야 나ᄂᆞ니라.「三玄은 体中玄 句中玄 中玄 三要ᄂᆞᆫ 三句ㅣ라. 다

ᄆᆞᅀᆞ매 세 가지론 고ᄃᆞᆯ 니르니라」(몽산 59-60)

. 비록 그러나 어늬 너의 自己오.「自己ᄂᆞᆫ ᄆᆞᅀᆞ미라」(몽산 60)

. ᄒᆞᆫ 大藏敎ㅣ 이 사ᄅᆞᆫ 거시어시니 아래 이 無ㄱ字도 사기도소니야.(몽산 60) *-야(의문씨끝)

. 靈利ᄒᆞᆫ 사ᄅᆞ미 바ᄅᆞ 드위텨 自己ᄅᆞᆯ 훤히 ᄇᆞᆯ겨 趙州ᄅᆞᆯ 자ᄇᆞ며 부텨와 祖師왜 사ᄅᆞᄆᆡ게 ᄆᆡ이샨 고ᄃᆞᆯ 긋 알면 네 大藏敎ㅣ 瘡腫 스저ᄇᆞ룐 ᄌᆞᆨ히라 닐오ᄆᆞᆯ 올타 호리라.(몽산 61)

. 비록 그러ᄒᆞ나 이 無ㄱ字ᄂᆞᆫ 어느 고ᄃᆞᆯ 從ᄒᆞ야나뇨.(몽산 61)

. 이ᄀᆞ티 無ㄱ字ᄅᆞᆯ 도도아 보건댄 므슴 奇特이 잇ᄂᆞ뇨.(몽산 61)

. 宗門中에 하나ᄒᆞᆫ 公案이 도ᄅᆞ혀 조ᅀᆞᄅᆞᄇᆡ요미 이 無ㄱ字애셔 너므니 잇ᄂᆞ니야 업스니야.(몽산 62) *-야(의문)/ -애셔(토씨)

. ᄒᆞ다가 잇ᄂᆞ닌댄 엇뎨 이 양ᄋᆞ로 뎌ᄅᆞᆯ 差等ᄒᆞ야 論量ᄒᆞ며 ᄒᆞ다가 업스닌댄 趙州 아니이신 저긔 엇뎨 佛祖ㅣ 업스리오.(몽산 62)

. 눈 ᄀᆞᄌᆞᆫ 衲僧ᄋᆞᆫ ᄒᆞᆫ 點도 소교미 어려ᄇᆞ니 ᄉᆞᆯ리 니ᄅᆞ라.(몽산 62-63)

. 坐禪이라호ᄆᆞᆫ 모로매 至極 올ᄒᆞᆫ 고ᄃᆞᆯ 通達ᄒᆞ야 반ᄃᆞ기 ᄉᆞᆷᄉᆞᆯ비ᄒᆞᆯ 씨니 思想ᄋᆞᆯ 그처 ᄇᆞ리고 昏沉에 디디 아니ᄒᆞᆯ씨 坐ㅣ오 欲애 이쇼ᄃᆡ 欲 업스며 塵에 이쇼ᄃᆡ 塵ᄋᆞᆯ 여흴ᄊᆞᆯ 禪이오, 밧고로도 노하 드리디 아니ᄒᆞ며 안ᄒᆞ로도 노하내디 아니ᄒᆞᆯ씨 坐ㅣ오, 住着 업스며 브튼ᄃᆡ 업서 샹녜 光明이 알ᄑᆡ 나ᄃᆞᆯ씨 禪이오, 밧고로셔 이어도 뮈디 아니ᄒᆞ며 가온ᄃᆡ 괴외ᄒᆞ야 이어디 아니ᄒᆞᆯ씨 坐ㅣ오 光ᄋᆞᆯ 두르혀 도라 비취여 法의 根源ᄋᆞᆯ 알ᄊᆞᆯ 禪이오, 이 惱亂ᄋᆞᆯ 닙디 아니ᄒᆞ며 聲과 色과의 옮교ᄆᆞᆯ 닙디 아니호ᄆᆞᆯ 坐ㅣ오, 어드ᄇᆞᆫᄃᆡ 비취면 ᄇᆞᆯ고미 日月에셔 더으고 物을 敎化홇디면 히미 乾坤에 느르로ᄆᆞᆯ 禪이오, 差別 잇ᄂᆞᆫ 境에셔 差別 업슨 定에 들씨 坐ㅣ오, 差別 업슨 法에셔 差別 잇ᄂᆞᆫ 智ᄅᆞᆯ 뵐씨 禪이라.(몽산 63-65)

. 뫼화 니르건댄 熾然히 ᄒᆞ저즈로ᄃᆡ 正体如如ᄒᆞ야 縱커나 橫커나 호매 妙ᄅᆞᆯ 得ᄒᆞ야 일이레 ᄀᆞ료미 업슬ᄊᆞᆯ 禪이라 ᄒᆞᄂᆞ니라.「熾然은 ᄀᆞ장 盛ᄒᆞᆯ씨라. 縱橫은 고ᄃᆞ며 빗글씨라」(몽산 66)

. 잢간 닐오ᄆᆞᆫ 이러커니와 字細히 닐옳딘댄 ᄌᆞᆨ히와 먹과로 能히 다 니르디 몯ᄒᆞ리라.(몽산 66)

. 那伽大定ᄋᆞᆫ 寂靜도 업스며 어즈러ᄇᆞᆷ도 업스며 眞如妙体ᄂᆞᆫ 滅도 업스며 生도 업서「那伽ᄂᆞᆫ 龍이라」보ᄃᆡ 보디 몯ᄒᆞ며 드로ᄃᆡ 듣디 몯ᄒᆞ며 空호ᄃᆡ 空이 아니며 有ㅣ로ᄃᆡ 有ㅣ 아니라.(몽산 67)

. 크ᄆᆞ론 밧 업시 ᄲᅳ리고져 ᄆᆞ론 안 업시드니 神通과 智慧와 光明과 壽量과 大機와 大用괘 다 오미 업스니 ᄠᅳᆮ뒷ᄂᆞᆫ 사ᄅᆞᄆᆞᆫ 이대 參究ᄒᆞ야 ᄉᆞᆯ리 ᄀᆞᆺᄀᆞ지ᄒᆞ야 키 아로ᄆᆞ로 門에 드로ᄆᆞᆯ 사ᄆᆞᆷᄃᆡ니라.(몽산 67-68)

. 화ᄒᆞᄂᆞᆫ ᄒᆞᆫ 소릿 後에 하나ᄒᆞᆫ 靈妙ㅣ 다 自然히 具足ᄒᆞ리라.(몽산 68)

. 엇뎨 邪魔外道의 서르 傳受호ᄆᆞ로 스승 弟子 사ᄆᆞ며 이로ᄆᆞ로 究竟을 삼ᄂᆞᆫ 사ᄅᆞᄆᆞ로 ᄀᆞᆮᄒᆞ리오.(몽산 68-69)

. 念이 닐며 念이 滅호ᄆᆞᆯ 生死ㅣ라 니ᄅᆞᄂᆞ니 生死ㅅ 고ᄃᆞᆯ 當ᄒᆞ야 모로매 히믈 ᄀᆞ장ᄒᆞ야 話頭ᄅᆞᆯ 擧호리니 話頭ㅣ ᄒᆞᆫᄀᆞᆯᄋᆞᆫᄒᆞ면 起ᄒᆞ며 滅호미 업스리라.(몽산 69)

. 起ᄒᆞ며 滅호미 곧 그츤 고ᄃᆞᆯ 닐오ᄃᆡ 寂이라 ᄒᆞᄂᆞ니 괴외ᄒᆞᆫ 中에 話頭옷 업스면 無記라 니ᄅᆞᄂᆞ니라.「無記ᄂᆞᆫ 아ᄌᆞᆯᄒᆞᆯ씨라」(몽산 70)

. 괴외ᄒᆞᆫ 中에 話頭ᄅᆞᆯ 어즐티 아니ᄒᆞ면 닐오ᄃᆡ 靈이라 ᄒᆞᄂᆞ니 이 空寂과 靈知왜 허도 아니ᄒᆞ며 어즈럽도 아니ᄒᆞ야 이 양ᄋᆞ로 工夫ᄅᆞᆯ ᄡᅳ면 날 몯ᄒᆞ야셔 일리라.(몽산 70)

---蒙山和尙法語略錄終 ----

자료 제공: 한말연구학회
자료 입력: 허재영 회원
자료 내용: 금강경언해(건)

金剛經諺解 건

◉ 金剛經은 相 업수므로 宗 사ᄆᆞ시고 住 업수므로 體 사ᄆᆞ시고 微妙ᄒᆞᆫ 有로 用 사ᄆᆞ시니 達磨ㅣ 西로 오샴브터 이 經ㅅ ᄠᅳ들 爲ᄒᆞ야 傳ᄒᆞ샤 사ᄅᆞᄆᆞ로 理ᄅᆞᆯ 알며 性을 보게 ᄒᆞ야시ᄂᆞᆯ 오직 世人이 제 性 보디 몯호ᄆᆞᆯ 爲ᄒᆞ샤 이런ᄃᆞ로 見性ㅅ 法을 셰시니 世人이 ᄒᆞ다가 眞如 本體ᄅᆞᆯ ᄉᆞᄂᆡᆺ 보면 곧 法 셰요ᄆᆞᆯ 븐디 아니ᄒᆞ시리라.(금강 건 서: 5)

◉ 이 經을 讀誦ᄒᆞ리 數 업스며 稱讚ᄒᆞ리 ᄀᆞᆺ 업스며 蹂 지스며 注ᄒᆞ야 사기리 믈읫 八百餘家ㅣ로ᄃᆡ 닐온 道理 各各 보ᄆᆞᆯ 조ᄎᆞ니 보미 비록 ᄀᆞᆮ디 아니ᄒᆞ나 法은 곧 둘 업스니라.(금강 건 서: 5-6)

◉ 아ᄃᆡ 시믄 上根은 ᄒᆞᆫ 번 듣고 곧 알어니와 ᄒᆞ다가 아ᄅᆡᆺ 慧 업스면 讀誦호미 비록 하나 부텻 ᄠᅳᆮ 아디 몯ᄒᆞᄉᆞ오릴씨 이럴씨 聖人ㅅ ᄠᅳ들 사겨 學者ᄋᆡ 疑心을 그처 ᄇᆞ리노니 ᄒᆞ다가 이 經에 ᄠᅳ들 得ᄒᆞ야 疑心 업스면 사겨 닐오ᄆᆞᆯ 븐디 아니ᄒᆞ리라.(금강 건 서: 6)

◉ 우브터 如來ㅅ 니ᄅᆞ샨 善法은 凡夫의 不善ᄒᆞᆫ ᄆᆞᅀᆞᆷ 더루믈 爲ᄒᆞ시니 經은 이 聖人ㅅ 마리시니 사ᄅᆞᄆᆞᆯ 듣게 ᄒᆞ샤 凡을 브터 聖을 아라 迷ᄒᆞᆫ ᄆᆞᄉᆞᄆᆞᆯ 永히 긋게 ᄒᆞ시니 이 一卷 經은 衆生 性中에 本來 잇건마ᄅᆞᆫ 제 보디 몯ᄒᆞ닌 오직 文字ᄲᅮᆫ 讀誦ᄒᆞᄂᆞ니 ᄒᆞ다가 本心을 알면 비로서 이 經이 文字애 잇디 아니ᄒᆞᆫᄃᆞᆯ 알리니 ᄒᆞ다가 能히 自性을 ᄇᆞᆯ기 알면 비르서 一切 諸佛이 이 經브터 나샨 ᄃᆞᆯ 알리니..(금강 건 서: 6)

◉ 이제 世人이 몸 밧긔 부텨 어드며 밧ᄀᆞᆯ 向ᄒᆞ야 經을 求ᄒᆞ고 안 ᄆᆞᄉᆞᄆᆞᆯ 發티 아니ᄒᆞ며 앉 經을 디니디 아니ᄒᆞᆯ까 저허 이럴씨 이 訣을 지ᅀᅥ 모ᄃᆞᆫ 學者ㅣ 안 ᄆᆞᅀᆞᆷ 經을 디녀 ᄇᆞᆯ기 제 보아 淸淨 佛心이 數量애 너머 不可思議케 ᄒᆞ노니 後엣 學者ㅣ 經을 닐거 疑心 잇ᄂᆞ니 이 사긴 ᄠᅳ들 보면 疑心이 노가 ᄂᆞ외 訣을 ᄠᅳ디 아니ᄒᆞ리니 ᄇᆞᄅᆞᄆᆞᆫ 學者ㅣ 다 鑛中엣 金性을 보아 「鑛은 쇠 불이ᄂᆞᆫ 돌히라」 智慧 火로 노겨 鑛이 업고 金이 잇게 호미니라.(금강 건 서 : 6)

◉ 우리 釋迦 本師ㅣ 金剛經 니ᄅᆞ실ᄊᆡ 舍衛國에 겨샤 須菩提의 묻ᄌᆞ옴 니ᄅᆞ와도ᄆᆞᆯ 因ᄒᆞ샤 부톄 大悲로 爲ᄒᆞ야 닐어시ᄂᆞᆯ 須菩提ㅣ 法 듣ᄌᆞᆸ고 아로ᄆᆞᆯ 得ᄒᆞ야 부톄 法을 주샤 일훔 지흐샤ᄆᆞᆯ 請ᄒᆞᄉᆞ와 後人으로브터 受持케 ᄒᆞ니 이럴씨 經에 니ᄅᆞ샤ᄃᆡ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 經 일후미 金剛般若波羅密이니 이 일후ᄆᆞ로 네 반ᄃᆞ기 奉持ᄒᆞ라 ᄒᆞ시니 (금강 건 서: 7)

◉ 如來 니ᄅᆞ샨 金剛 般若 波羅密이 法을 주샤 일훔 ᄒᆞ샨 그 ᄠᅳ든 엇뎨오.(금강 건 서: 7)

◉ 金剛은 世界ㅅ 보ᄇᆡ라 그 性이 勇猛코 ᄂᆞᆯ나 能히 한 物을 허ᄂᆞ니 金이 비록 至極 구드나 羚羊角이 能히 허ᄂᆞ니 金剛은 佛性을 가ᄌᆞᆯ비시고 羚羊角은 煩惱ᄅᆞᆯ 가ᄌᆞᆯ비시니 金이 비록 구드나 羚羊角이 能히 ᄇᆞᄉᆞ며 佛性이 비록 구드나 煩惱ㅣ 能히 어즈러며 煩惱ㅣ 비록 구드나 般若智 能히 헐며 羚羊角이 비록 구드나 賓鐵이 能히 허ᄂᆞ니 이 理 알리ᅀᅡ ᄇᆞᆯᄀᆡ 性을 보리니 涅槃經에 닐오ᄃᆡ 佛性 보닌 衆生이라 일훔 아니ᄒᆞ고 佛性 보디 몯ᄒᆞ닐ᅀᅡ 이 일후미 衆生이라 ᄒᆞ니라.(금강 건 서:

7)

◉ 如來 니ᄅᆞ샨 金剛 가ᄌᆞᆯ뵤ᄆᆞᆫ 오직 世人이 性이 堅固ㅣ 업서 이베 비록 經을 외오나 光明이 나디 몯고 밧ᄀᆞ로 외오고 안ᄒᆞ로 行ᄒᆞ야ᅀᅡ 光明이 ᄀᆞᄌᆞ기 等ᄒᆞ며 안해 堅固ㅣ 업스면 定慧 곧 업고 이베 외오고 ᄆᆞᅀᆞ매 行ᄒᆞ야ᅀᅡ 定慧 골오 等ᄒᆞᄂᆞ니 이 일후미 究竟이라. (금강 건 서: 7)

◉ 金이 山中에 이쇼매 山이 이 보빈ᄃᆞᆯ 아디 몯ᄒᆞ며 보ᄇᆡ도 ᄯᅩ 이 山인ᄃᆞᆯ 아디 몯ᄒᆞᄂᆞ니 엇뎨어뇨. 性 업수믈 爲ᄒᆞᆫ 젼ᄎᆡ라.(금강 건 서: 7)

◉ 사ᄅᆞᄆᆞᆫ 性 이셔 보ᄇᆡ를 取ᄒᆞ야 ᄲᅮᄃᆡ 金師를 맛나 山을 파 허러 鑛을 取ᄒᆞ야 노겨 精金을 일워 ᄡᅳ들 조차 ᄡᅥ 艱難ᄒᆞᆫ 受苦 여희요ᄆᆞᆯ 得ᄒᆞᄂᆞ니 四大身中에 佛性도 ᄯᅩ 그러ᄒᆞ니 身은 世界를 가ᄌᆞᆯ비시고 人我ᄂᆞᆫ 山을 가ᄌᆞᆯ비시고 煩惱ᄂᆞᆫ 鑛을 가ᄌᆞᆯ비시고 佛性은 金을 가ᄌᆞᆯ비시고 智慧ᄂᆞᆫ 工匠을 가ᄌᆞᆯ비시고 精進 勇猛은 포ᄆᆞᆯ 가ᄌᆞᆯ비시니 身世界中에 人我山이 잇고 人我山中에 煩惱鑛이 잇고 煩惱鑛中에 佛性寶ㅣ 잇고 佛性寶中에 智慧工匠 잇ᄂᆞ니 智慧工匠을 ᄡᅥ 人我山을 파 허러 煩惱鑛을 보아 覺悟火로 노겨내 金剛佛性이 了然히 ᄇᆞᆯᄀᆞ며 조ᄒᆞᆫ달 볼씨 이런ᄃᆞ로 金剛ᄋᆞ로 가ᄌᆞᆯ비시고 因ᄒᆞ야 일훔ᄒᆞ시니 ᄒᆞᆫ갓 알오 行티 아니ᄒᆞ면 일훔 이쇼ᄃᆡ 體 업고 義를 알오 行을 닷ᄀᆞ면 일훔과 體왜 다 ᄀᆞᄌᆞ리니 닷디 아니ᄒᆞ면 곧 凡夫ㅣ오 닷ᄀᆞ면 곧 聖智 ᄀᆞᆮᄒᆞ릴씨 일후믈 金剛이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서: 8)

◉ 엇뎨 일후미 般若이오.(금강 건 서: 8)

◉ 이ᄂᆞᆫ 梵語ㅣ니 唐 마랜 智慧라. 智ᄂᆞᆫ 어린 ᄆᆞᅀᆞᆷ 니ᄅᆞ왇디 아니ᄒᆞ미오 慧ᄂᆞᆫ 方便 이쇼미니 慧ᄂᆞᆫ 이 智의 體오 智ᄂᆞᆫ 이 慧의 用이니 體 ᄒᆞ다가 慧 업스면 어료ᄆᆞᆯ ᄡᅩ고 智 업ᄉᆞ니 오직 어리여 아디 몯ᄒᆞ닐 爲ᄒᆞ샤 이럴씨 智慧를 닷ᄀᆞ샤 더르시니라.(금강 건 서: 8)

◉ 엇뎨 일후미 波羅密이오.(금강 건 서: 8)

◉ 唐 마랜 뎌 ᄀᆞᅀᅢ 가ᄆᆞᆫ 生滅 여흰 ᄠᅳ디니 오직 世人이 性이 堅固 업수믈 브터 一切法上애 生滅相이 이셔 諸趣에 흘러 眞如地예 가디 몯ᄒᆞᄂᆞ니 다 이 이ᄀᆞᄉᆡ니 모로매 큰 智慧 ᄀᆞ자 一切法에 圓滿ᄒᆞ야 生滅相을 여희욜띠니 곧 이 뎌 ᄀᆞᅀᅢ 가미라.(금강 건 서: 8-9)

◉ ᄯᅩ 닐오ᄃᆡ ᄆᆞᅀᆞ미 迷ᄒᆞ면 이 ᄀᆞᄉᆡ오 ᄆᆞᅀᆞ미 알면 뎌 ᄀᆞᄉᆡ며 ᄆᆞᅀᆞ미 邪ᄒᆞ면 이 ᄀᆞᄉᆡ오 ᄆᆞᅀᆞ미 正ᄒᆞ면 뎌 ᄀᆞᄉᆡ라 이베 니ᄅᆞ고 ᄆᆞᅀᆞ매 行ᄒᆞ면 곧 내 法身이 波羅密 이쇼미오 이베 니ᄅᆞ고 行티 아니ᄒᆞ면 곧 波羅密 업수미니라.(금강 건 서: 9)

◉ 엇뎨 일후미 經고.(금강 건 서: 9)

◉ 經은 길히니 이 부텨 ᄃᆞ외욜 길히니 믈읫 사ᄅᆞ미 이 길헤 다ᄃᆞ로려 홀띤댄 반ᄃᆞ기 안해 般若行을 닷가 究竟에 니르롤띠니 ᄒᆞ다가 오직 能히 외와 니를 ᄲᅮᆫᄒᆞ고 ᄆᆞᅀᆞ매 브터 行티 아니ᄒᆞ면 제 ᄆᆞᅀᆞ미 經이 업고 實히 보아 實히 行ᄒᆞ면 제 ᄆᆞᅀᆞ미 經이 이시릴씨 이 經을 如來ㅣ 일후믈 金剛般若 波羅密이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서 :9)

<金剛般若波羅密經>

◉ 이 ᄀᆞᆮ호ᄆᆞᆯ 내 듣ᄌᆞ오니 = 如是ᄅᆞᆯ 我聞ᄒᆞᅀᆞ오니 (금강 건 1)

☞ 如ᄂᆞᆫ ᄀᆞᄅᆞ치ᄂᆞᆫ ᄠᅳ디오 是ᄂᆞᆫ 一定혼 마리니 阿難이 ᄌᆞ계 닐오ᄃᆡ 이 ᄀᆞᆮ흔 法을 내 부텨를 좃ᄌᆞ와 드로라 ᄒᆞ니 내 말 아닌ᄃᆞᆯ ᄇᆞᆯ기니 이럴ᄊᆡ 닐오ᄃᆡ 如是 我聞이라. ᄯᅩ 나ᄂᆞᆫ 性이니 性이 곧 내니 안팟 動作이 다 性을 브터 一切ᄅᆞᆯ 다 드ᄅᆞᆯᄊᆡ 我聞이라 니ᄅᆞ니라.(금강 건 1)

◉ 一時예 부톄 舍衛國 祇樹給 孤獨園에 겨샤 = 一時이 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ᄒᆞ샤 (금강 건 1)

☞ 一時라 닐오ᄆᆞᆫ 스숭과 弟子왜 모다 맛나 ᄀᆞᄌᆞ기 모ᄃᆞᆫ ᄢᅴ라. 佛은 이 說法ᄒᆞ시ᄂᆞᆫ 主ㅣ시고 겨시다 호ᄆᆞᆫ 處所ᄅᆞᆯ ᄇᆞᆯ기고져 ᄒᆞ니라. 舍衛國은 波斯匿王ᄋᆡ 사ᄂᆞᆫ 나라히라. 祇陀 太子ㅅ 施혼 거실ᄊᆡ 祇樹ㅣ라 니ᄅᆞ니라. 給孤獨은 須達의게 屬ᄒᆞᆯᄊᆡ 給孤獨園이라 니ᄅᆞ니라. 佛은 梵音이니 唐 마랜 覺 ᄠᅳ디 둘히 잇ᄂᆞ니 ᄒᆞ나ᄒᆞᆫ 밧 覺이니 諸法의 空ᄋᆞᆯ 觀ᄒᆞᆯᄊᆡ오 둘흔 안覺이니 ᄆᆞᅀᆞᄆᆡ 空ᄋᆞᆯ 寂을 아라 六塵의 더러요ᄆᆞᆯ 닙디 아니ᄒᆞ야 밧그로 사ᄅᆞᄆᆡ 허므를 보디 아니ᄒᆞ며 안ᄒᆞ로 邪迷의 惑호ᄆᆞᆯ 닙디 아니ᄒᆞᆯᄊᆡ 일후믈 ᄉᆞᆯ오ᄃᆡ 覺이니 覺이 곧 이 佛이시니라.(금강 건 2-3)

◉ 큰 比丘衆 千二百 五十人과 ᄒᆞᆫᄃᆡ 겨시더니 = 與大比丘衆 千二百五十人과 俱ㅣ러시니 (금강 건 3)

☞ 與ㅣ라 ᄉᆞᆯᄫᅩᄆᆞᆫ 부톄 比丘와 金剛 般若 無相 道場애 ᄒᆞᆫᄃᆡ 겨실ᄊᆡ ᄉᆞᆯ오ᄃᆡ 與ㅣ라. 大比丘는 이 大阿羅漢인 젼ᄎᆡ라. 比丘는 이 梵語ㅣ니 唐마랜 能히 六賊 破호미니 그럴ᄊᆡ 일후미 比丘ㅣ라. 衆은 할씨라. 千二百 五十人은 그 數ㅣ라. 俱는 平等 法會예 ᄒᆞᆫᄃᆡ 겨실씨라.(금강 건 3)

◉ 그 ᄢᅴ 世尊이 食時예 옷 니브시고 바리 가지샤 舍衛大城에 드르샤 그 城中에 밥 비르샤 = 爾時 世尊이 食時예 若衣持鉢ᄒᆞ샤 入舍衛大城ᄒᆞ샤 乞食於其城中ᄒᆞ샤 (금강 건 3)

☞ 爾時ᄂᆞᆫ 예 當ᄒᆞᆫ 時節이니 이 이젯 辰時니 齋時ㅣ ᄒᆞ마 니를쩌기라. 옷 니브시고 바리 가지샤ᄆᆞᆫ 敎 나토샤ᄆᆞᆯ 爲ᄒᆞ샤 자최ᄅᆞᆯ 뵈샤ᄂᆞᆫ 젼ᄎᆡ라. 드르샤ᄆᆞᆫ 城 밧ᄀᆞᆯ 브터 드르실씨라. 舍衛大城은 일후미 舍衛國 豊德城이니 곧 波斯匿王의 사ᄂᆞᆫ 城일ᄊᆡ 닐오ᄃᆡ 舍衛大城이라. 밥 비르시다 ᄉᆞᆯ오ᄆᆞᆫ 如來ㅣ 能히 一切 衆生의게 ᄆᆞᅀᆞᆷ ᄂᆞᄌᆞ기 ᄒᆞ샤ᄆᆞᆯ 表ᄒᆞᅀᆞ오니라.(금강 건 4)

◉ 次第로 비르샤ᄆᆞᆯ ᄆᆞ자ㅏ시고 本處에 도로 가샤 반좌샤ᄆᆞᆯ ᄆᆞᄎᆞ시고 옷과 바리ᄅᆞᆯ ᄀᆞ초시고 발 시스시고 座ᄅᆞᆯ 펴샤 안거시늘 = 次第乞已ᄒᆞ시고 還至本處ᄒᆞ샤 飯食乞ᄒᆞ시고 救衣鉢ᄒᆞ시고 洗足已ᄒᆞ시고 敷座而坐ㅣ어시ᄂᆞᆯ (금강 건 4)

☞ 次第ᄂᆞᆫ 艱難ᄒᆞ니 가ᅀᆞ며니 ᄀᆞᆯ히디 아니ᄒᆞ샤 平等으로 化ᄒᆞ샤미라. 비롬 ᄆᆞᄎᆞ샤ᄆᆞᆫ 해 비로ᄆᆞᆯ

닐굽 지븨 너무 아니ᄒᆞ샴 ᄀᆞᆮᄒᆞ니 七家ㅅ 數ㅣ ᄎᆞ거든 ᄂᆞ외 나ᄆᆞᆫ 지븨 가디 아니ᄒᆞ실씨라. 本處에 도로 가샤ᄆᆞᆫ 부텻 ᄠᅳ데 모ᄃᆞᆫ 比丘를 禁止ᄒᆞ샤 請ᄒᆞ야 브르리 덜오 그 外예 믄득 白衣ㅅ 지븨 가디 몯게 ᄒᆞ실씨 그리 ᄉᆞᆯ오니라. 발 시스샤ᄆᆞᆫ 如來ㅣ 凡夫ᄅᆞᆯ 順ᄒᆞ야 ᄀᆞ티 ᄒᆞ샤ᄆᆞᆯ 뵈실씨 ᄉᆞᆯ오ᄃᆡ 洗足이라. ᄯᅩ 大乘法은 ᄒᆞᆫ갓 손발 시수ᄆᆞ로 조호말 삼논디 아니라. 닐오ᄃᆡ 손발 시수미 ᄆᆞᅀᆞᆷ 시솜 ᄀᆞᆮ디 몯ᄒᆞ니 一念에 ᄆᆞᅀᆞ미 조ᄒᆞ면 罪와 ᄢᅴ왜 다 덜리라. 如來ㅣ 說法호려 ᄒᆞ실ᄊᆡ 샹녯 法이 檀座ᄅᆞᆯ 펴실씨 ᄉᆞᆯ오ᄃᆡ 座ᄅᆞᆯ 펴샤 안ᄌᆞ샤미라.「檀은 尼師檀이니 예셔 닐오매 앉ᄂᆞᆫ 거시라」(금강 건 5)

◉ 時예 長老 須菩提ㅣ = 時예 長老須菩提ㅣ(금강 건 6)

☞ 엇뎨 일후미 長老오. 德이 尊코 나히 노ᄑᆞᆯ씨 일후미 長老ㅣ라. 須菩提ᄂᆞᆫ 이 梵語ㅣ니 唐마랜 空 아로미라.(금강 건 6)

◉ 大衆中에 이셔 즉재 座로셔니러 올ᄒᆞᆫ 엇게 메왓고 무ᄅᆞᆸ 짜해 다혀 合掌 恭敬ᄒᆞᄉᆞ와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 在大衆中ᄒᆞ야 卽從座起ᄒᆞ야 偏祖右肩ᄒᆞ고 右膝著地ᄒᆞ야 合掌 恭敬ᄒᆞᄉᆞ와 而白佛言ᄒᆞᄉᆞ오ᄃᆡ (금강 건 60

☞ 衆의 안ᄌᆞᆯ딜 조ᄎᆞᆯ씨 닐오ᄃᆡ 즉재 座로셔 니루미라. 弟子ㅣ 더우믈 請ᄒᆞᆯᄊᆡ 몬져 다ᄉᆞᆺ가짓 威儀ᄅᆞᆯ 行ᄒᆞᄂᆞ니 ᄒᆞ나ᄒᆞᆫ 坐로셔 니루미오 둘흔 衣服ᄋᆞᆯ 端正히 고툐미오 세흔 올ᄒᆞᆫ 엇게 메왓고 올ᄒᆞᆫ 무ᄅᆞᆸ 짜해 다효미오 네흔 合掌ᄒᆞ야 尊顔ᄋᆞᆯ 울워러 보ᄉᆞ와 누늘 깜간도 ᄇᆞ리디 아니호미오 다ᄉᆞᆺ 一心 恭敬ᄒᆞᄉᆞ와 묻ᄂᆞᆫ 마ᄅᆞᆯ 펼씨라.(금강 건 7)

◉ 希有ᄒᆞ신 世尊하.「希ᄂᆞᆫ ᄃᆞ믈씨라」=希有世尊하.(금강 건 7)

☞ 希有는 略히 니ᄅᆞ건댄 세 ᄠᅳ디니 第一 希有는 能히 金輪王位 ᄇᆞ리샤미시고 第二 希有는 身長이 丈六 이시며 紫磨金ㅅ 양ᄌᆞ애 三十二相과 八十種好ㅣ 三戒예 가ᄌᆞᆯ비리 업스샤미시고 第三 希有는 性이 能히 八萬四千 法을 머구며 비와 ᄐᆞ시며 三身이 두려이 ᄀᆞᄌᆞ샤미시니 웃 세 ᄠᅳ디 ᄀᆞᄌᆞ실씨 希有ㅣ라 ᄉᆞᆯ오니라. 世尊은 智慧 三界ᄅᆞᆯ ᄲᅮ여 디니샤 能히 믿ᄌᆞ오리 업스시며 德이 노ᄑᆞ샤 외야 우업스샤 一切 다 恭敬ᄒᆞᄉᆞ올씨 ᄉᆞᆯ오ᄃᆡ 世尊이시니라.(금강 건 7-8)

◉ 如來ㅣ 諸菩薩ᄋᆞᆯ 이대 護持ᄒᆞ야 念ᄒᆞ시며 諸菩薩ᄋᆞᆯ 이대 付囑ᄒᆞ시ᄂᆞ니 =如來ㅣ 善護念諸菩薩ᄒᆞ시며 善付囑諸菩薩ᄒᆞ시ᄂᆞ니 (금강 건 8)

☞ 護持ᄒᆞ샤 念ᄒᆞ샤ᄆᆞᆫ 如來ㅣ 般若波羅密法으로 諸菩薩ᄋᆞᆯ 護持ᄒᆞ야 念ᄒᆞ실씨라. 付囑은 如來ㅣ 般若波羅密法으로 須菩提와 諸大菩薩ᄋᆞᆯ 付囑ᄒᆞ실씨라. 이대 護念ᄒᆞ시다 ᄉᆞᆯ오ᄆᆞᆫ 모ᄃᆞᆫ ᄇᆡ홀싸ᄅᆞᄆᆞ로 般若智로 제 身心을 護念ᄒᆞ야 ᄆᆡ며 ᄃᆞᆶ오ᄆᆞᆯ 간대로 니ᄅᆞ와다 밧ᄀᆡ 六塵에 더러여 生死苦海예 ᄠᅥ러디디 아니케 ᄒᆞ야 내 心中에 念念이 샹녜 正ᄒᆞ야 邪ㅣ 니디 아니케 ᄒᆞ샤 自性 如來ㅣ ᄌᆞ걔 이대 護念ᄒᆞᆯ씨라. 이대 付囑ᄒᆞ시다 ᄉᆞᆯ오ᄆᆞᆫ 前念이 淸淨ᄒᆞ야 後念을 付囑ᄒᆞ고 後念이 淸淨ᄒᆞ야 그 춤 업서 究竟히 解脫호미니 如來ㅣ 委曲히 衆生과 會예 잇ᄂᆞᆫ 衆ᄋᆞᆯ ᄀᆞᄅᆞ쳐 뵈샤 반ᄃᆞ기 샹녜 이ᄅᆞᆯ 行케 ᄒᆞ실씨 이대 付囑ᄒᆞ시다 ᄉᆞᆯ오니라. 菩薩은 梵語ㅣ니 唐 마랜 道心 衆生이며 ᄯᅩ 닐오맨 覺有情이니「智로 우희 菩提 求ᄒᆞᆯ씨 ᄉᆞᆯ오ᄃᆡ 覺이오 悲로 아래 衆生 化ᄒᆞᆯ씨 ᄉᆞᆯ오ᄃᆡ 有情이라.」道心은 샹녜 恭敬을 行ᄒᆞ야 구믈어리ᄂᆞᆫ 含靈에 니르리 너비 恭敬ᄒᆞ며 어엿비 너겨 므던히 너길 ᄆᆞᅀᆞᆷ 업슬씨 일후미 菩薩이라.(금강 건 9)

◉ 世尊하 善男子善女人이 =世尊하 善男子善女人이 (금강 건 10)

☞ 善男子ᄂᆞᆫ 平ᄒᆞᆫ ᄆᆞᅀᆞ미며 ᄯᅩ 正定 ᄆᆞᅀᆞ미니 能히 一切 功德을 일워 간고대 ᄀᆞ료미 업ᄂᆞ니라. 善女人은 이 正慧ㅅ ᄆᆞᅀᆞ미니 正慧ㅅ ᄆᆞᅀᆞᄆᆞᆯ브터 能히 一切ㅅ 有爲 無爲 功德을 내ᄂᆞ니라.(금강 건 10)

◉ 阿耨多羅三藐 三菩提ㅅ ᄆᆞᅀᆞᆷ 發ᄒᆞ니 엇뎨 반ᄃᆞ기 住ᄒᆞ며 엇뎨 그 ᄆᆞᅀᆞᄆᆞᆯ 降伏히라잇고. = 發阿耨多羅三藐 三菩提心ᄒᆞ니 云何應住ᄒᆞ며 云何降伏其心ᄒᆞ리잇고.(금강 건 10)

☞ 須菩提ㅣ 묻ᄌᆞ오ᄃᆡ 一切ㅅ 菩提ㅅ ᄆᆞᅀᆞᆷ 發ᄒᆞᆫ 사ᄅᆞ미 반ᄃᆞ기 엇뎨 住ᄒᆞ며 엇뎨 그 ᄆᆞᅀᆞᄆᆞᆯ 降伏히리잇고 ᄒᆞ니 須菩提ㅣ 一切 衆生이 어즈러워 머므디 아니호미 ᄲᅳ멧 드틀 ᄀᆞᆮᄒᆞ며 搖動ᄒᆞᄂᆞᆫ ᄆᆞᅀᆞ미 니루미 飄風갇ᄒᆞ야「飄風은 회로리 ᄇᆞᄅᆞ미라」念念이 서르 니ᅀᅥ 그처 歇ᄒᆞᆯ 쩍 업수믈 볼씨 묻ᄌᆞ오ᄃᆡ 修行호려 ᄒᆞᆯ뗸 엇뎨 降伏히리잇고 ᄒᆞ니라.(금강 건 11) *회로리 ᄇᆞᄅᆞᆷ(회오리바람)

◉ 부톄 니ᄅᆞ샤ᄃᆡ 됴타됴타 須菩提여. 네 닐옴 ᄀᆞᆮᄒᆞ야 如來ㅣ 諸菩薩ᄋᆞᆯ 이대 護念ᄒᆞ며 諸 菩薩ᄋᆞᆯ 이대 付囑ᄒᆞᄂᆞ니 =佛言ᄒᆞ샤ᄃᆡ 善哉善哉라. 須菩提야. 如汝所說ᄒᆞ야 如來ㅣ 善護念諸菩薩ᄒᆞ며 善付囑諸菩薩ᄒᆞᄂᆞ니(금강 건 11)

☞ 이ᄂᆞᆫ 부톄 須菩提ᄅᆞᆯ 讚歎ᄒᆞ샤ᄃᆡ 내 ᄆᆞᅀᆞᄆᆞᆯ 이대 得ᄒᆞ며 내 ᄠᅳ들 이대 得ᄒᆞ니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11)

◉ 네 이제 仔細히 드르라. 반ᄃᆞ기 너 爲ᄒᆞ야 닐오리라. = 汝 今諦聽ᄒᆞ라. 當爲汝說호리라.(금강 건 11)

☞ 부톄 說法호려 ᄒᆞ실쩨 샹녜 몬져 警戒ᄒᆞ샤 모ᄃᆞᆫ 듣ᄌᆞ오리로 一心으로 괴외ᄒᆞ라. 내 반ᄃᆞ기 爲ᄒᆞ야 닐오리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12)

◉ 善男子善女人이 阿耨多羅三藐 三菩提ㅅ 心을 發ᄒᆞ니 반ᄃᆞ기 ᄀᆞ티 住ᄒᆞ며 이ᄀᆞ디 그 ᄆᆞᅀᆞᄆᆞᆯ 降伏히욜띠니라. = 善男子善女人이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ᄒᆞ니 應如是住ᄒᆞ며 如是降伏其心이니라.(금강 건 12)

☞ 阿ㅣ라 혼 마ᄅᆞᆫ 無ㅣ오 耨多羅ㅣ라 혼 마ᄅᆞᆫ 上이오 三이라 혼 마ᄅᆞᆫ 正이오 藐이라 혼 마ᄅᆞᆫ 徧이오 菩提라 혼 마ᄅᆞᆫ 知ㅣ니 無는 한 ᄠᅴ 더러움 업수미오 上은 三界예 能히 가줄비리 업수미오 正은 正ᄒᆞᆫ 보미오 徧은 一切智오 知는 一切 有情이 다 佛性을 두실씨 오직 能히 修行ᄒᆞ면 다 成佛ᄒᆞᆯᄯᆞᆯ(ᄃᆞᆯ) 아로미니 佛은 곧 이 우 업슨 淸淨 般若 波羅密이니 이런ᄃᆞ로 一切 善男子善女人이 ᄒᆞ다가 修行호려 홀띤댄 반ᄃᆞ기 우 업슨 菩提道ᄅᆞᆯ 아롤띠며 반ᄃᆞ기 우 업슨 淸淨 般若波羅密多法을 아롤띠니 일로 그 ᄆᆞᅀᆞᄆᆞᆯ 降伏홀띠니라.(금강 건 13)

◉ 唯然 世尊하. 듣ᄌᆞᆸ고져 願樂ᄒᆞᅀᆞᆸ노이다. =唯然世尊하. 願樂欲聞ᄒᆞᅀᆞᆸ노이다.(금강 건 13)

☞ 唯然은 對答ᄒᆞᅀᆞᆸᄂᆞᆫ 마리오 願樂ᄂᆞᆫ 부톄 너비 니ᄅᆞ샤 中下 根機로다 여러 알에 ᄒᆞ시과뎌 願호미오 樂ᄂᆞᆫ 기픈 法 듣ᄌᆞ오ᄆᆞᆯ 즐길씨라. 듣ᄌᆞᆸ고져 호ᄆᆞᆫ 慈悲ㅅ ᄀᆞᄅᆞ치샤ᄆᆞᆯ 渴望ᄒᆞ야 ᄇᆞᄅᆞᅀᆞ올씨

라.(금강 건 13)

◉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諸菩薩摩訶薩이 반ᄃᆞ기 이ᄀᆞ티 그 ᄆᆞᅀᆞᆯ 降伏히욜띠니 =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諸菩薩摩訶薩이 應如是降伏其心이니 (금강 건 14)

☞ 前念이 淸淨ᄒᆞ며 後念이 淸淨ᄒᆞᆯ씨 일후미 菩薩이오 念念에 므르디 아니ᄒᆞ야 비록 塵勞애 이시나 ᄆᆞᅀᆞ미 샹녜 淸淨ᄒᆞᆯ씨 일후미 摩訶薩이라. ᄯᅩ 慈悲 喜捨와 種種 方便으로 衆生ᄋᆞᆯ 化ᄒᆞ야 引導ᄒᆞᆯ씨 일후미 菩薩이오 能히 化와 所化애 ᄆᆞᅀᆞ미 取著 업슬씨 이 일후미 摩訶薩이라. 一切 衆生ᄋᆞᆯ 恭敬호미 곧 이제 ᄆᆞᅀᆞᆷ 降伏히논 고디라. 眞ᄋᆞᆫ 變티 아니ᄒᆞ고 如는 다ᄅᆞ디 아니ᄒᆞ니 한 境界ᄅᆞᆯ 맛나 ᄆᆞᅀᆞ미 變ᄒᆞ야 달옴 업수미 일후믈 닐오ᄃᆡ 眞如ㅣ라. ᄯᅩ 닐오ᄃᆡ 밧기 거츠디 아니호ᄆᆞᆯ 닐오ᄃᆡ 眞이오 안히 亂티 아니호ᄆᆞᆯ 닐오ᄃᆡ 如ㅣ니 念念이 어긔욤 업수미 곧 이 그 ᄆᆞᅀᆞᆷ 降伏히요미라.(금강 건 15)

◉ 잇ᄂᆞᆫ 一切 衆生類ㅣ 卵生과 胎生과 濕生과 化生과 有色과 無色과 有想과 無想과 非有想과 非無想ᄋᆞᆯ 내 다 無餘涅槃애 들에 ᄒᆞ야 = 所有一切衆生之類ㅣ 若卵生若胎生若濕生若化生若有色若無色若有想若無想若非有想若非無想을 我皆令入無餘涅槃ᄒᆞ야.(금강 건 15)

☞ 卵生ᄋᆞᆫ 迷ᄒᆞᆫ 性이오 胎生ᄋᆞᆫ 習ᄒᆞᆫ 性이오 濕生ᄋᆞᆫ 邪ᄅᆞᆯ 좃ᄂᆞᆫ 性이오 化生ᄋᆞᆫ 보아 가ᄂᆞᆫ 性이니 迷ᄒᆞᆫ 젼ᄎᆞ로 한 業을 짓고 習ᄒᆞᆫ 젼ᄎᆞ로 샹녜 흘러 그울오 邪ᄅᆞᆯ 조차 ᄆᆞᅀᆞ미 一定티 몯ᄒᆞ고 보아가 ᄲᅢ듀미 하ᄂᆞ니 ᄆᆞᅀᆞᆯ 니ᄅᆞ와다 ᄆᆞᅀᆞᆯ 닷가 올ᄒᆞ며 외요ᄆᆞᆯ 간대로 보아 안해 無相理예 맛디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有色이오 안 ᄆᆞᅀᆞ매 直을 가져 恭敬 供養을 行티 아니ᄒᆞ야 오직 直心이 이 佛이라 니ᄅᆞ고 福慧ᄅᆞᆯ 닷디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無色이오, 中道ᄅᆞᆯ 아디 몯ᄒᆞ고 누네 보며 귀예 드러 ᄆᆞᅀᆞ매 너기며 ᄉᆞ랑ᄒᆞ야 法相을 ᄃᆞ사 着ᄒᆞ야 부텻 行을 이베 닐오ᄃᆡ ᄆᆞᅀᆞ매브터 行티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有想이오, 迷ᄒᆞᆫ 사ᄅᆞ미 坐禪호ᄃᆡ ᄒᆞᆫ갓 妄을 덜오 慈悲 喜捨와 智慧 方便을 ᄇᆡ호디 아니ᄒᆞ야 木石의 作用 업 ᄃᆞᆺᄒᆞᆯ씨 일후미 若非有想이라. 煩惱ㅣ 萬으로 다ᄅᆞ나다 이 더러운 ᄆᆞᅀᆞ미며 몸 얼구리 數 업스나 다 일후미 衆生이니 如來ㅣ 大悲로 너비 化ᄒᆞ샤 다 無餘涅槃애 들에 ᄒᆞ실씨 닐오ᄃᆡ ᄲᅢ듀미 하미라.(금강 건 16-17)

◉ 滅度ᄒᆞ노니 = 而滅度之ᄒᆞ노니 (금강 건 17)

☞ 如來ㅣ 三界九地 衆生이 各各 涅槃 妙心 이쇼ᄆᆞᆯ ᄀᆞᄅᆞ쳐 뵈샤 제 無餘에 아라 들에 ᄒᆞ시니 無餘ᄂᆞᆫ 習氣 煩惱 업슬씨라. 涅槃ᄋᆞᆫ 圓滿 淸淨ᄒᆞᆫ ᄠᅳ디니 一切 習氣ᄅᆞᆯ 滅ᄒᆞ야 다아 永히 나디 아니케 ᄒᆞ야ᅀᅡ 비르서 이에 마ᄌᆞ리라. 度ᄂᆞᆫ 生死大海예 건널씨니 부텻 ᄆᆞᅀᆞ미 平等ᄒᆞ샤 너비 願ᄒᆞ샤ᄃᆡ 一切 衆生과 圓滿 淸淨ᄒᆞᆫ 無餘 涅槃애 ᄀᆞ티 들며 生死 大海예 ᄀᆞ티 건너며 諸佛證ᄒᆞ샨 고대 ᄀᆞᆫ과뎌 ᄒᆞ시ᄂᆞ니라. 사ᄅᆞ미 비록 아라 비록 닷ᄀᆞ나 得혼 곧 잇ᄂᆞᆫ ᄆᆞᅀᆞᆷ 짓ᄂᆞ닌 도로 我相이 날씨 일후미 法我ᄅᆞᆯ 다 더러ᅀᅡ 미르서 일후미 滅度ㅣ니라.(금강 건 18)

◉ 이ᄀᆞ티 無量無數無邊 衆生ᄋᆞᆯ 滅度호ᄃᆡ 實로 衆生이 滅度 得ᄒᆞ니 업스니 =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호ᄃᆡ 實無衆生이 得滅度者ᄒᆞ니 (금강 건 18)

☞ 이 ᄀᆞᆫ호ᄆᆞᆫ 알ᄑᆡ 法을 ᄀᆞᄅᆞ치시고 滅度ᄂᆞᆫ 큰 解脫이니 큰 解脫ᄋᆞᆫ 煩惱와 習氣ㅅ 一切 한 業障이 滅ᄒᆞ야 다 아ᄂᆞ 외야 나ᄆᆞᆫ 것 업슬씨 이 일후미 큰 解脫이라. 無量無數無邊 衆生이 本來 各各 제 一切 煩惱 貪嗔惡業을 뒷ᄂᆞ니 ᄒᆞ다가 그처 더디 아니ᄒᆞ면 ᄆᆞᄎᆞᆷ내 解脫ᄋᆞᆯ 得디 몯ᄒᆞ릴씨 니ᄅᆞ

샤ᄃᆡ 이ᄀᆞ티 無量無數無邊衆生ᄋᆞᆯ 滅度ㅣ라 ᄒᆞ시니라. 一切 迷人이 自性을 아라ᅀᅡ 미르서 부톄 ᄌᆞ갯 相ᄋᆞᆯ 보디 아니ᄒᆞ시며 ᄀᆞ갯 智ᄅᆞᆯ 두디 아니커시니 엇뎨 일쯕 衆生ᄋᆞᆯ 濟度ᄒᆞ시리오. 오직 凡夫ㅣ 제 本心을 보디 몯ᄒᆞ며 부텻 ᄠᅳ들 아디 몯ᄒᆞᄉᆞ와 諸相애 執着ᄒᆞ야 無爲ㅅ理ᄅᆞᆯ 아디 몯ᄒᆞ야 我人을 더디 몯ᄒᆞᆯᄊᆡ 이 일후미 衆生이니 ᄒᆞ다가 이 病을 여희면 實로 衆生이 滅度 得ᄒᆞ니 업슨ᄃᆞᆯ 알리니 이럴ᄊᆡ 닐오ᄃᆡ 妄心 업슨 고디 곧 菩提오 生死와 涅槃이 本來 平等타 ᄒᆞ니 엇뎨 滅度ㅣ 이시리오.(금강 건 19-20)

◉ 엇뎨어뇨. 須菩提여. ᄒᆞ다가 菩薩이 我相과 人相과 衆生相과 壽者相이 이시면 곧 菩薩아니라. = 何以故오. 須菩提야. 若菩薩이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면 卽非菩薩이라.(금강 건 20)

☞ 衆生과 부텨왓 性이 本來 달오미 업건마ᄅᆞᆫ 四相 이슈믈 브터 無餘 涅槃애 드니 몯ᄒᆞᄂᆞ니 四相 이시면 이 부톄니 迷ᄒᆞ면 부톄 이 衆生이오 알면 衆生이 이 부톄라. 迷ᄒᆞᆫ 사ᄅᆞᄆᆞᆫ 財寶와 學問과 族姓 두믈 미더 一切人을 므던히 너기ᄂᆞ니 일후미 我相이오 비록 仁義禮智信을 行ᄒᆞ나 ᄠᅳ디 노파 제 미더 너비 恭敬을 行티 아니ᄒᆞ야 닐오ᄃᆡ 내 仁義禮智信을 아라 行ᄒᆞ가니 너를 恭敬호미 맛당티 아니ᄒᆞ니라. ᄒᆞᄂᆞ니 일후미 人相이오 됴ᄒᆞᆫ 일란 내게 보내오 구즌 일란 ᄂᆞᄆᆡ게 주ᄂᆞ니 일후미 衆生相 境을 對ᄒᆞ야 取ᄒᆞ며 捨ᄒᆞ야 分別ᄒᆞᄂᆞ니 일후미 壽者相이니 이ᄅᆞᆯ 닐온 凡夫 四相이 잇ᄂᆞ니 ᄆᆞᅀᆞ미 能所ㅣ 이셔 衆生ᄋᆞᆯ 므던히 너길ᄊᆡ 일후미 我相이오 제 持戒ᄅᆞᆯ 미더 破戒ᄒᆞ닐 므던히 너길ᄊᆡ 일후미 人相이오 三塗ㅅ 受苦ᄅᆞᆯ 슬ᄒᆞ야 諸天에 나고져 願ᄒᆞᆯᄊᆡ 이 衆生相이오 ᄆᆞᅀᆞ매 長壽를 ᄃᆞᅀᅡ 福業을 브즈러니 닷가 한 執을 닛디 몯ᄒᆞᆯᄊᆡ 이 壽者相이니 四相 이시면 곧 이 衆生이오 四相 업스면 곧 이 부톄라.(금강 건 21-22) * ᄒᆞ-가니/ ᄒᆞᄂᆞ니/ -의게(게)

◉ ᄯᅩ 버거 須菩提여. 菩薩이 法에 반ᄃᆞ기 住혼 곧 업시ᄒᆞ야 布施ᄅᆞᆯ 行홀ᄄᆡ니 닐온 色애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와 聲香味觸法애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니 = 復次須菩提야. 菩薩이 於法에 應無所住ᄒᆞ야 行於布施니 所謂不住色布施와 不住聲香味觸法布施니 (금강 건 22)

☞ 凡夫의 布施ᄂᆞᆫ 身相이 端正ᄒᆞ며 싁싁홈과 五欲 快樂ᄋᆞᆯ 求ᄒᆞᄂᆞᆫ 젼ᄎᆞ로 報ㅣ 다ᄋᆞ면 도로 三塗애 ᄠᅥ러딜ᄊᆡ 世尊이 大慈로 無相 布施行호ᄆᆞᆯ ᄀᆞᄅᆞ치샤ᄆᆞᆫ 身相 端正ᄒᆞ며 싁싁홈과 五欲 快樂ᄋᆞᆯ 求티 아니ᄒᆞ고 오직 안ᄒᆞ로 慳貪ᄒᆞᆫ ᄆᆞᅀᆞᄆᆞᆯ 헐오 밧ᄀᆞ로 一切 衆生ᄋᆞᆯ 利益게 ᄒᆞ시니 이ᄀᆞ티 相應호미 일후미 色에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라. (금강 건 22-23)

◉ 須菩提여. 菩薩이 반ᄃᆞ기 이ᄀᆞ티 布施ᄒᆞ고 相애 住티 아니홀ᄄᆡ니 = 須菩提야. 菩薩이 應如是布施ᄒᆞ고 不住於相이니 (금강 건 23)

☞ 반ᄃᆞ기 相 업슨 ᄆᆞᅀᆞᄆᆞ로 布施홈 ᄀᆞᆮ호ᄆᆞᆫ 能히 施ᄒᆞᄂᆞᆫ ᄆᆞᅀᆞᆷ 업스며 施ᄒᆞᄂᆞᆫ 物 이쇼ᄆᆞᆯ 보디 몯ᄒᆞ며 施ᄅᆞᆯ 受ᄒᆞᄂᆞᆫ 사ᄅᆞᆷ 分別 아니호미 이 일후미 相애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라.(금강 건 23)

◉ 엇뎨어뇨 ᄒᆞ다가 菩薩이 相애 住티 아니ᄒᆞ야 布施ᄒᆞ면 그 福德이 思量 몯ᄒᆞ리라.= 何以故오. 若菩薩이 不住相布施ᄒᆞ면 其福德이 不可思量이니라.(금강 건 23)

☞ 菩薩ㅅ 布施 行호ᄆᆞᆫ ᄆᆞᅀᆞ미 ᄇᆞ라옴 업슬ᄊᆡ 그 어둔 福德이 十方 虛空 ᄀᆞᆮᄒᆞ야 마초아 혜아리디 몯ᄒᆞ리라. ᄯᅩ 버게라 니ᄅᆞ샤ᄆᆞᆫ 알ᄑᆞᆯ 니ᅀᅥ 뒤흘 니ᄅᆞ와ᄃᆞ시ᄂᆞᆫ 마리라. ᄒᆞᆫ 마래 布ᄂᆞᆫ 너블씨오 施ᄂᆞᆫ ᄒᆞ틀씨니 能히 너비 心中엣 安念을 흐터 업게 ᄒᆞ야 習氣와 煩惱와 四相이 그처 업서 싸홈 업수미 이 眞實ㅅ 布施라. ᄯᅩ 닐오ᄃᆡ 布施ᄂᆞᆫ 六塵 境界예 住티 아니ᄒᆞ며 ᄯᅩ 漏 잇ᄂᆞᆫ 分別 아니코

반ᄃᆞ기 本來 淸淨에 도라가 萬法이 空寂ᄒᆞᆫᄃᆞᆯ 아롤띠니 ᄒᆞ다가 이 ᄠᅳ들 아디 몯ᄒᆞ면 한 業을 더으릴씨 모로매 안ᄒᆞ로 貪愛ᄅᆞᆯ 덜오 밧ᄀᆞ로 布施ᄅᆞᆯ 行ᄒᆞ야 안팟기 相應ᄒᆞ야ᅀᅡ 福 어두미 無量ᄒᆞ리라. 사ᄅᆞᄆᆡ 모딘 일 ᄒᆞ욤 보고 그 허므를 보디 아니ᄒᆞ며 제 性에 分別 내디 아니호미 이 일후미 相 여희요미며 敎ᄅᆞᆯ 브터 修行ᄒᆞ야 ᄆᆞᅀᆞ미 能所 업수미 곧 이 善法이오 修行人이 ᄆᆞᅀᆞ미 能所 이시면 善法이라 일훔 몯ᄒᆞ리니 能所心이 업디 아니ᄒᆞ면 ᄆᆞᄎᆞᆷ내 解脫ᄋᆞᆯ 得디 몯ᄒᆞ리니 念念에 샹녜 般若智ᄅᆞᆯ 行ᄒᆞ면 그 福이 無量 無邊ᄒᆞ리니 이 ᄀᆞᆮ호ᄆᆞᆯ 브터 修行ᄒᆞ면 一切 人天의 恭敬 供養호ᄆᆞᆯ 感ᄒᆞ야 得ᄒᆞ리니 이 일후미 福德이라. 샹녜 相에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ᄅᆞᆯ 行ᄒᆞ야 一切 含生ᄋᆞᆯ 너비 恭敬ᄒᆞ면 그 功德이 ᄀᆞᄉᆡ 업서 ᄃᆞᆯ며 혜디 몯ᄒᆞ리라.(금강 건 24-25)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東方 虛空ᄋᆞᆯ 어루 思量ᄒᆞ려 몯ᄒᆞ려. 아니이다. 世尊하. = 須菩提야. 於意예 云何오. 東方虛空을 可思量가. 不아. 不也ㅣ이다. (금강 건 25) *의문씨끝 -가

☞ 住相 아니ᄒᆞᆫ 布施의 得혼 功德이 稱量 몯호ᄆᆞᆯ 브트샤 부톄 東方 虛空ᄋᆞ로 譬喩ᄒᆞ실씨 須菩提ᄃᆞ려 무르샤ᄃᆡ 東方 虛空ᄋᆞᆯ 어루 思量ᄒᆞ려. 몯ᄒᆞ려 ᄒᆞ시니라. 不也 世尊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東方 虛空ᄋᆞᆯ 思量 몯ᄒᆞ리이다 ᄒᆞ니라.(금강 건 26)

◉ 須菩提여. 南西北方과 四維上下ㅅ 虛空ᄋᆞᆯ 어루 思量ᄒᆞ려 몯ᄒᆞ려. 아니이다. 세존河. 須菩提여. 菩薩의 住相 업슨 布施ㅅ 福德도 ᄯᅩ 이 ᄀᆞᆮᄒᆞ야 思量 몯ᄒᆞ리니. =須菩提야. 南西北方四維上下虛空을 可思量가. 不아. 不也世尊하. 須菩提야. 菩薩無住相布施福德도 亦復如是ᄒᆞ야 不可思量이니 (금강 건 26)

☞ 부톄 니ᄅᆞ샤ᄃᆡ 虛空이 ᄀᆞᆺ업서 혜아리디 몯ᄒᆞ리니 菩薩ㅅ 住相 업슨 布施의 得혼 功德도 ᄯᅩ 虛空ᄋᆡ 혜아리디 몯ᄒᆞ야 ᄀᆞᆺ 업숨 ᄀᆞᆮᄒᆞ니라. 世界中에 큰 거시 虛空애 너므니 업스니 엇뎨어뇨. 믈읫 形相 잇ᄂᆞᆫ 거슨 크다 일훔 몯ᄒᆞ려니와 虛空은 形相 업슬씨 크다 일훔 ᄒᆞ여 一切ㅅ 한 性은 다 限量 이실씨 크다 일훔 몯ᄒᆞ려니와 佛性은 限量업슬씨 크다 일훔ᄒᆞᄂᆞ니라. 이 虛空中에 本來 東西南北 업스니 ᄒᆞ다가 東西南北을 보면 ᄯᅩ 이 住相이라. 解脫ᄋᆞᆯ 得디 몯ᄒᆞ리며 佛性도 本來我와 人衆生과 壽者왜 업스니 ᄒᆞ다가 이 四相 어루보미 이시면 곧 이 衆生性이라. 佛性이라 일훔 몯ᄒᆞ리니 ᄯᅩ 닐온 住相布施라. 비록 妄心中에 東西南北이 잇다 니ᄅᆞ나 理예 이션 엇뎨 이시리오. 닐온 東西ㅣ 眞實 아니오 南北이 엇뎨 다ᄅᆞ리오. 自性이 本來 空寂ᄒᆞ야 모다 노가 分別홀 ᄭᅳᆫ(곧) 업스니 이럴씨 如來ㅣ 分別 내디 아니호ᄆᆞᆯ 기피 기리시니라.(금강 건 27-28)

◉ 須菩提여. 菩薩은 오직 ᄀᆞᄅᆞᄎᆞᆷᄀᆞ티 住홀띠니라. =須菩提야. 菩薩은 但應如所敎住ㅣ니라.(금강 건 28)

☞ 應은 오직홀씨니 오직 우희 니ᄅᆞ샨 ᄀᆞᄅᆞ치샴ᄀᆞ티 ᄒᆞ야 無相布施예 住ᄒᆞ면 곧 이 菩薩이라.(금강 건 28)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어루 身相ᄋᆞ로 如來ᄅᆞᆯ 보려. 몯ᄒᆞ려. 아니이다. 世尊하. 身相ᄋᆞ로 如來ᄅᆞᆯ 시러 보ᄉᆞᆸ디 몯ᄒᆞ리니.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可以身相으로 見如來아. 不아. 不也世尊하. 不可以身相으로 得見如來니 (금강 건 29)

☞ 色身은 곧 相이 잇고 法身은 곧 相이 업스니 色身은 四大和合ᄒᆞ야 父母ㅅ 나혼 거시라 肉眼ᄋᆡ 보ᄂᆞᆫ 고디오, 法身은 얼굴 업스며 靑黃赤白 잇디 아니ᄒᆞ며 一切相貌ㅣ 업서 肉眼의 能히 볼껏 아

니라 慧眼이사 能히 보ᄂᆞ니 凡夫는 오직 色身 如來를 보숩고 法身 如來를 보숩디 몯ᄒᆞᄂᆞ니 法身은 量이 虛空과 ᄀᆞᆮᄒᆞ실씨 이럴씨 부톄 須菩提ᄃᆞ려 무르샤ᄃᆡ 어루 身相ᄋᆞ로 如來를 보려 몯ᄒᆞ려ᄒᆞ야시ᄂᆞᆯ 須菩提ㅣ 凡夫의 오직 色身 如來를 보숩고 法身 如來를 보숩디 몯ᄒᆞᆫᄃᆞᆯ 알씨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身相ᄋᆞ로 如來를 시러 보숩디 몯ᄒᆞᄉᆞ오리이다 ᄒᆞ니라.(금강 건 29-30)

◉ 엇뎨어뇨. 如來 니ᄅᆞ샨 身相이 곧 身相이 아니니이다. =何以故ㅣ어뇨. 如來所說身相이 卽非身相이니이다.(금강 건 30)

☞ 色身은 이 相이오 法身은 이 性이니 一切 善惡이 다 法身ᄋᆞᆯ 븓고 色身 븓디 아니ᄒᆞᄂᆞ니 法身이 ᄒᆞ다가 惡ᄋᆞᆯ 지스면 色身이 善處에 나디 몯고 法身이 善을 지스면 色身이 惡處에 ᄠᅥ러디디 아니ᄒᆞᄂᆞ니 凡夫는 오직 色身ᄋᆞᆯ 보고 法身을 몯볼씨 能히 住相 업슨 布施를 行티 몯ᄒᆞ며 能히 一切 處에 平等行ᄋᆞᆯ 行티 몯ᄒᆞ며 能히 一切 衆生ᄋᆞᆯ 너비 恭敬 몯거니와 法身 보닌 곧 能히 無住相 布施를 行ᄒᆞ며 곧 能히 一切 衆生ᄋᆞᆯ 너비 恭敬ᄒᆞ며 곧 能히 般若 波羅密行ᄋᆞᆯ 닷가 비르서 一切 衆生이 ᄒᆞᆫ가지로 ᄒᆞᆫ 眞性이라 本來 淸淨ᄒᆞ야 더러움 업서 恒河 微妙ᄒᆞᆫ 用이 ᄀᆞᄌᆞᆫᄃᆞᆯ 信ᄒᆞᄂᆞ니라.(금강 건 31)

◉ 부텨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믈읫 잇ᄂᆞᆫ 相이 다 이 虛妄이니 ᄒᆞ다가 諸相의 相 아닌ᄃᆞᆯ 보면 곧 如來를 보리라 =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凡所有相이 皆是虛妄이니 若見諸相의 非相ᄒᆞ면 卽見如來리라.(금강 건 31)

☞ 如來ㅣ 法身ᄋᆞᆯ 나토고져 ᄒᆞ신 젼ᄎᆞ로 一切 諸相이 다 이 虛妄이라 니ᄅᆞ시니 ᄒᆞ다가 一切 諸相의 虛妄ᄒᆞ야 實티 아니ᄒᆞᆫᄃᆞᆯ 보면 곧 如來ㅅ 相 업슨 理를 보리라.(금강 건 31-32)

◉ 須菩提ㅣ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世尊하 ᄌᆞ모 衆生이 이ᄀᆞᆮᄒᆞᆫ 말ᄊᆞᆷ 章句 듣ᄌᆞᆸ고 實ᄒᆞᆫ 信ᄋᆞᆯ 내리 이시리잇가 몯ᄒᆞ리잇가. = 須菩提ㅣ 白佛言ᄒᆞᄉᆞ오ᄃᆡ 世尊하 頗有衆生이 得聞如是言說章句ᄒᆞᄉᆞᆸ고 生實信不ㅣ잇가.(금강 건 32)

☞ 須菩提ㅣ 묻ᄌᆞ오ᄃᆡ 이 法이 甚히 기펴 信홈 어려우며 아롬 어려우니 末世 凡夫ㅣ 智慧 微劣커시니 엇뎨 信ᄒᆞ야 들리잇고. 부텻 對答이 버근 아래 겨시니라.(금강 건 32)

◉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 말ᄒᆞ디 말라. 如來滅ᄒᆞᆫ 後ㅅ 後五百歲예 持戒ᄒᆞ며 福 닷ᄀᆞ리 이시면 이 章句에 能히 信心 내리니 일로 實 사ᄆᆞ라. 이 사ᄅᆞᄆᆞᆫ 一佛 二佛 三四五佛ᄭᅴ 善根ᄋᆞᆯ 심군디 아니라. ᄒᆞ마 無量千萬佛쎄 한 善根ᄋᆞᆯ 심거 이 章句를 듣고 ᄒᆞᆫ 念애 니르리나 조ᄒᆞᆫ 信ᄋᆞᆯ 내ᄂᆞᆫᄃᆞᆯ 반ᄃᆞ기 아롤띠니라. (금강 건 33) *-쎄(께)

☞ 나 滅ᄒᆞᆫ 後ㅅ 後五百勢예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能히 大乘無相戒를 디녀 간대로 諸相ᄋᆞᆯ 取티 아니ᄒᆞ야 生死ㅅ 業을 짓디 아니코 一切 時中에 ᄆᆞᄉᆞ미 샹녜 空寂ᄒᆞ야 諸相ᄋᆡ ᄆᆡ욤 닙디 아니호미 곧 이 住혼ᄃᆡ 업슨 ᄆᆞᄉᆞ미니 如來ㅅ 기ᄑᆞᆫ 法에 ᄆᆞᄉᆞ미 能히 信ᄒᆞ야 들리니 이 사ᄅᆞᄆᆡ 뒷논 마리 眞實ᄒᆞ야 믿브리라. 엇뎨어뇨 이 사ᄅᆞ미 一劫 二劫 三四五劫에 善根을 심군디 아니라. ᄒᆞ마 無量千萬億劫에 한 善根을 시므니 이런ᄃᆞ로 如來ㅣ 니ᄅᆞ샤ᄃᆡ 나 滅度ᄒᆞᆫ 後ㅅ 後五百歲예 能히 相ᄋᆞᆯ 여희여 修行ᄒᆞ리 이시면 이 사ᄅᆞᄆᆞᆫ 一二三四五佛ᄭᅴ 한 善根을 심군디 아닌ᄃᆞᆯ 반ᄃᆞ기 알리라 ᄒᆞ시니라. 엇뎨 일후미 한 善根 심굼고. 버거 아래 ᄆᆞᆼ히 니ᄅᆞ노니 닐온 諸佛ᄭᅴ 一心으로 供養ᄒᆞᄉᆞ와 敎法을 조차 順ᄒᆞᄉᆞ오며 諸菩薩와 善知識과 師僧과 父母와 나 늘근 德 오란 尊長ㅅ 處에 샹녜 恭敬

供養올 行ᄒᆞ야 ᄀᆞᄅᆞ치ᄂᆞᆫ 命을 바다 順ᄒᆞ야 그 ᄠᅳ들 거스디 아니ᄒᆞᆯ씨 이 일후미 한 善根 심구미며 一切 艱難ᄒᆞᆫ 受苦ㅅ 衆生의게 慈悲ㅅ ᄆᆞᅀᆞᄆᆞᆯ 니ᄅᆞ완고 므던히 너기며 아쳐로ᄆᆞᆯ 내디 아니ᄒᆞ며 求호미 잇거든 히믈 조차 주어 施ᄒᆞᆯ씨 이 일후미 한 善根 심구미며 一切 모딘 類예 내 부드러이 忍辱올 行ᄒᆞ야 歡喜心을 發ᄒᆞ고 구든 거슬 ᄇᆞᆫ ᄆᆞᅀᆞᄆᆞᆯ 그치게 ᄒᆞᆯ씨 이 일후미 한 善根 심구미며 六道 衆生에 殺害ᄅᆞᆯ 더으디 아니ᄒᆞ며 소기디 아니ᄒᆞ며 辱ᄒᆞ디 아니ᄒᆞ며 ᄐᆞ디 아니ᄒᆞ며 티디 아니ᄒᆞ며 그 고기 먹디 아니ᄒᆞ고 饒益을 샹녜 行ᄒᆞᆯ씨 이 일후미 한 善根 심구미라. 信心은 般若 波羅密이 能히 一切 煩惱 더로ᄆᆞᆯ 信ᄒᆞ며 般若 波羅密이 能히 一切 出世 功德 일우믈 信ᄒᆞ며 般若 波羅密이 能히 一切 諸佛 내요ᄆᆞᆯ 信ᄒᆞ며 自身中엣 佛性이 本來 淸淨ᄒᆞ야 더러움 업서 諸佛性과 平等ᄒᆞ야 둘 업수믈 信ᄒᆞ며 六道 衆生이 本來 相 업수믈 信ᄒᆞ며 一切 衆生이 다 能히 成佛호ᄆᆞᆯ 信ᄒᆞᆯ씨 이 일후미 조ᄒᆞᆫ 信心이라. (금강 건 35-36)

◉ 須菩提여 如來ㅣ 다 알며 다 보ᄂᆞ니 이 한 衆生이 이ᄀᆞᆮᄒᆞᆫ 無量 福德을 得ᄒᆞ리니 엇뎨어뇨. 이 한 衆生이 ᄂᆞ외 我相과 人相과 衆生相과 壽者相이 업스며 法相 업스며 ᄯᅩ 非法相 업스리라. = 須菩提야. 如來ㅣ 悉知悉見ᄒᆞᄂᆞ니 是諸衆生이 得如是無量福德ᄒᆞ리니 何以故오. 是諸衆生이 無復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며 無法相ᄒᆞ며 亦無非法相ᄒᆞ리라.(금강 건 36)

☞ ᄒᆞ다가 사ᄅᆞ미 如來 滅ᄒᆞᆫ 後에 般若 波羅密心을 發ᄒᆞ며 般若 波羅密 行ᄋᆞᆯ 行ᄒᆞ야 닷가 니겨 아라 부텨 기픈 ᄠᅳ들 得ᄒᆞ닌 諸佛이 모ᄅᆞ시리 업스시니 ᄒᆞ다가 사ᄅᆞ미 上乘法을 듣고 一心으로 受持ᄒᆞ면 곧 能히 般若 波羅密 無相 無著行ᄋᆞᆯ 行ᄒᆞ야 我와 人과 衆生과 壽者ㅅ 四相 업수믈 알리니 我 업수ᄆᆞᆫ 色과 受와 想과 行과 識괘 업슬씨오 人 업수믄 四大實티 아니ᄒᆞ야 ᄆᆞᄎᆞ매 地와 水와 火와 風에 갈ᄯᆞᆯ 알씨오 衆生 업수ᄆᆞᆫ 生滅心 업슬씨오 壽者 업수믄 내 모미 本來 업거니 엇뎨 壽者 ㅣ 이시리오 ᄒᆞᆯ씨니 四相이 ᄒᆞ마 업스면 곧 法眼이 ᄇᆞᆯ가 ᄉᆞᄆᆞ차 有無에 着디 아니ᄒᆞ야 二邊에 머리 여희여 自心 如來ㅣ 내 ᄭᅴ며 내 아라 塵勞 妄念을 永히 여희여 自然히 福 得호미 ᄀᆞᆺ 업스리라. 法相 업수믄 일훔 여희며 相 그처 文字에 거디 아니ᄒᆞᆯ씨오 ᄯᅩ 非法相 업수믄 般若 波羅密法 업다 닐오미 몯ᄒᆞ리니 ᄒᆞ다가 般若 波羅密法이 업다 니ᄅᆞ면 곧 이 法을 誹謗호미라. (금강 건 37-38)

◉ 엇뎨어뇨 이 한 衆生이 ᄒᆞ다가 ᄆᆞᅀᆞ매 相ᄋᆞᆯ 取ᄒᆞ면 곧 我人衆生壽者애 着ᄒᆞ리며 ᄒᆞ다가 法相ᄋᆞᆯ 取ᄒᆞ면 곧 我人衆生壽者애 着ᄒᆞ리니 엇뎨어뇨 ᄒᆞ다가 非法相ᄋᆞᆯ 取ᄒᆞ면 곧 我人衆生壽者애 着ᄒᆞ리니 =何以故오. 是諸衆生이 若心取相ᄒᆞ면 卽爲着我人衆生壽者ㅣ며 若取法相ᄒᆞ면 卽着我人衆生壽者ㅣ니 何以故오. 若取非法相ᄒᆞ면 卽着我人衆生壽者ㅣ리니 (금강 건 38)

☞ 이 세 相ᄋᆞᆯ 取ᄒᆞ면 다 邪見에 著ᄒᆞ리니 다 이 迷ᄒᆞᆫ 사ᄅᆞᄆᆡ 經 ᄠᅳᆫ 아디 몯ᄒᆞᆯᄊᆡ니 이럴ᄊᆡ 修行人이 如來ㅅ 三十二相애 ᄃᆞ사 著호미 몯ᄒᆞ리며 내 般若 波羅密法을 아노라 닐오미 몯ᄒᆞ리며 ᄯᅩ 般若 波羅密行ᄋᆞᆯ 行티 아니ᄒᆞ야 成佛ᄋᆞᆯ 得호려 닐오미 몯ᄒᆞ리라.(금강 건 39)

◉ 이럴ᄊᆡ 法을 取호미 맛당티 몯ᄒᆞ며 非法을 取호미 맛당티 몯ᄒᆞ니 이 ᄠᅳ딘 젼ᄎᆞ로 如來ㅣ 샹녜 닐오ᄃᆡ 너희ᄃᆞᆯ 比丘ㅣ 내 說法이 筏로 가ᄌᆞᆯᄇᆞᆷ ᄀᆞᆮ호ᄆᆞᆯ 알면「筏은 ᄇᆡ라」法도 오히려 반ᄃᆞ기 ᄇᆞ료ᄆᆡ어니 ᄒᆞᄆᆞᆯ며 非法이ᄯᅥ녀. = 是故로 不應取法이며 不應取非法이니 以是義故로 如來ㅣ 常說호ᄃᆡ 汝等比丘ㅣ 知我說法이 如筏喩者ㅣ면 法尙應捨ㅣ어니 何況非法이여.(금강 건 39)

☞ 法은 이 般若波羅密法이오 非法은 生天ᄃᆞᆯ햇 法이니 般若 波羅密法은 能히 一切 衆生ᄋᆞ로 生死大海ᄅᆞᆯ 디나게 ᄒᆞᄂᆞ니 ᄒᆞ마 디나ᄆᆞᆯ 得ᄒᆞ얀 오히려 住호미 맛당티 아니ᄒᆞ곤 ᄒᆞᄆᆞᆯ며 生天ᄃᆞᆯ햇 法을

즐겨 著ᄒᆞ리여.(금강 건 40)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如來ㅣ 阿耨多羅三藐 三菩提ᄅᆞᆯ 得ᄒᆞ니여. 如來ㅣ 說法호미 잇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내 부텻 니ᄅᆞ샨 ᄠᅳᆮ 아로ᄆᆞᆫ 一定ᄒᆞᆫ 法이 일후미 阿耨多羅三藐 三菩提ㅣ 업스며 ᄯᅩ 一定ᄒᆞᆫ 法이 如來 니ᄅᆞ샤미 업스시니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耨多羅三藐 三菩提耶아. 如來有所說法耶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如我解佛所說義ᄂᆞᆫ 無有定法이 名阿耨多羅三藐 三菩提며 亦無有定法이 如來可說이니 (금강 건 40)

☞ 阿耨多羅ᄂᆞᆫ 밧글 브터 得홀ᄯᅴ 아니라 오직 ᄆᆞᅀᆞ매 我所 업수미 곧 이니 오직 病을 對ᄒᆞ야 藥 ᄆᆡᆼᄀᆞᄅᆞ샤ᄆᆞᆯ 브트샤 맛당호ᄆᆞᆯ 조ᄎᆞ샤 니ᄅᆞ실 ᄲᅮ니어신뎡 엇뎨 一定ᄒᆞᆫ 法이 겨시리오. 如來ㅣ 無上正法을 니ᄅᆞ샤ᄃᆡ ᄆᆞᅀᆞ매 本來 得 업스시며 ᄯᅩ 得 아니ᄒᆞ샤ᄆᆞᆯ 니르디 아니커신마ᄅᆞᆫ 오직 衆生의 보미 ᄀᆞᆮ디 아니호ᄆᆞᆯ 爲ᄒᆞ샤 如來ㅣ 뎌 根性을 應ᄒᆞ샤 種種 方便으로 여러 달애샤 化ᄒᆞ샤 引導ᄒᆞ샤 한 執着ᄋᆞᆯ 여희에 ᄒᆞ시며 一切 衆生의 妄心 生滅이 머므디 아니ᄒᆞ야 境界조차 뮈여 前念이 믄득 닐어든 後念이 반ᄃᆞ기 이ᄂᆞ니 아로미 ᄒᆞ마 머므디 아니ᄒᆞ면 보미 ᄯᅩ 잇디 아니호ᄆᆞᆯ ᄀᆞᄅᆞ쳐 뵈시니 이 ᄀᆞᆮᄒᆞ면 엇뎨 一定ᄒᆞᆫ 法이 如來 니ᄅᆞ샤미 겨시리오. 阿ᄂᆞᆫ ᄆᆞᅀᆞ미 妄念 업수미오 耨多羅ᄂᆞᆫ ᄆᆞᅀᆞ미 驕慢 업수미오 三은 ᄆᆞᅀᆞ미 샹녜 正定에 이슈미오 藐은 ᄆᆞᅀᆞ미 샹녜 正慧예 이수미오 三菩提ᄂᆞᆫ ᄆᆞᅀᆞ미 샹녜 空寂호미니 一念에 凡夫ㅅ ᄆᆞᅀᆞ미 다 업스면 곧 佛性ᄋᆞᆯ 보리라.(금강 건 41-42)

◉ 엇뎨어뇨. 如來 니ᄅᆞ샨 法이 다 取티 몯ᄒᆞ며 니ᄅᆞ디 몯ᄒᆞ며 法 아니며 非法 아니니. =何以故ㅣ어뇨. 如來所說法이 皆不可取며 不可說이며 非法이며 非非法이니 (금강 건 42)

☞ 사ᄅᆞ미 如來ㅅ 니ᄅᆞ샨 文字 章句에 執着ᄒᆞ고 無相ㅅ 理ᄅᆞᆯ 아디 몯ᄒᆞ야 간대로 아로ᄆᆞᆯ 낼까 저ᄒᆞᆫ 젼ᄎᆞ로 ᄉᆞᆯ오ᄃᆡ 取티 몯ᄒᆞ리라. 如來ㅣ 種種 衆生化호ᄆᆞᆯ 爲ᄒᆞ샤 機ᄅᆞᆯ 應ᄒᆞ시며 量ᄋᆞᆯ 조ᄎᆞ샤 두샨 말ᄊᆞ미 ᄯᅩ 엇뎨 一定ᄒᆞ샴 겨시리오. ᄇᆡ홀 싸ᄅᆞ미 如來ㅅ 기픈 ᄠᅳᆮ 아디 몯ᄒᆞᅀᆞ와 오직 如來ㅅ 니ᄅᆞ샨 敎法을 외오ᄉᆞᆸ고 本心을 아디 몯ᄒᆞ야 ᄆᆞᄎᆞᆷ내 成佛 몯ᄒᆞ린 젼ᄎᆞ로 니르디 몯ᄒᆞ리라 ᄉᆞᆯ오니라. 이베 외오고 ᄆᆞᅀᆞ매 行티 아니호미 곧 法 아니오 이베 외오고 ᄆᆞᅀᆞ매 行ᄒᆞ야 得혼 곧 업숨 아로미 곧 非法 아니라.(금강 건 43)

◉ 엇뎨어뇨. 一切賢聖이 다 ᄒᆞ욤 업슨 法으로 差別이 겨시니이다 = 所以者何ㅣ어뇨. 一切賢聖이 皆以無爲法으로 而有差別이시니이다.(금강 건 43)

☞ 三乘 根性의 아로미 ᄀᆞᆮ디 아니ᄒᆞ며 보미 기프며 녀투미 이실ᄊᆡ 差別이라 니ᄅᆞ니라. 부텨 니ᄅᆞ샨 ᄒᆞ욤업슨 法은 곧 이 住 업수미니 住 업수미 곧 이 相 업수미오 相 업수미 곧 니르와돔 업수미오 니르와돔 업수미 곧 滅 업수미니 훤히 空寂ᄒᆞ야 비취여 ᄲᅮ믈 ᄒᆞᆫ ᄢᅴ 펴며 비취여 아로미 ᄀᆞ욤 업서 眞實ㅅ 이 解脫 佛性이니 佛이 곧 이 覺이오 覺이 곧 이 觀照ㅣ오 觀照ㅣ 곧 智慧오 智慧 곧 이 般若波羅密多ㅣ라. 또 本애 닐오ᄃᆡ 聖賢說法이 一切智 萬法이 ᄀᆞᄌᆞ시니 性에 겨샤 무루믈 조ᄎᆞ샤 差別ᄒᆞ샤 사ᄅᆞᄆᆞ로 ᄆᆞᅀᆞ미 여러 各各 제 見性케 ᄒᆞ시ᄂᆞ니라.(금강 건 44)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ᄒᆞ다가 사ᄅᆞ미 三千大千 世界예 七寶ᄅᆞᆯ ᄀᆞᄃᆞ기 ᄒᆞ야 ᄇᆡ 布施ᄒᆞ면 이 사ᄅᆞᄆᆡ 得혼 福德이 하려 몯하려.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하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이 福德이 곧 福德性 아닐ᄊᆡ 이럴ᄊᆡ 如來ㅣ 福德 하다 니ᄅᆞ시ᄂᆞ니이다.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若人이 滿三千大千世界 七寶ᄒᆞ야 以用布施ᄒᆞ면 是人所得福德이 寧爲多아 不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甚多ᄒᆞ

이다. 世尊하 何以故ㅣ어뇨. 是福德이 卽非福德性일ᄉᆡ 是故로 如來ㅣ 說福德多ㅣ시니이다.(금강 건 44-45)

☞ 三千大千 世界ㅅ 七寶로 가져 布施ᄒᆞ닌 福 得호미 비록 하나 性上앤 ᄒᆞᆫ 利益도 업거니와 摩訶般若波羅密을 브터 修行ᄒᆞ야 自性으로 諸有에 ᄠᅥ러디디 아니케ᄒᆞ면 이 일후미 福德性이니 ᄆᆞᅀᆞ미 能所ㅣ 이시면 곧 福德性 아니오 能所ㅅ ᄆᆞᅀᆞ미 부텻 敎를 브터 行이 부텻 行이 곧ᄒᆞ면 이 일후미 福德性이오 부텻 敎를 븓디 아니ᄒᆞ야 能히 부텻 行을 붋디 몯ᄒᆞ면 곧 福德性 아니라.(금강 건 45)

◉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이 經에 四句偈ᄃᆞᆯ해 니르리 受持ᄒᆞ야 다른 사ᄅᆞᆷ 爲ᄒᆞ야 니ᄅᆞ면 그 福이 뎌에 더으리니.= 若復有人이 於此經中에 受持乃至四句偈等ᄒᆞ야 爲他人說ᄒᆞ면 其福이 勝彼하리니.(금강 건 46)

☞ 十二部 敎ㅅ 큰 ᄠᅳ디 四句ㅅ 中에 다 잇ᄂᆞ니 엇뎨 그러호ᄆᆞᆯ 알료. 諸經中에 讚歎ᄒᆞ샨 四句偈 곧 이 摩訶 般若波羅密多ㅣ니 摩訶 般若ㅣ 諸佛ㅅ 毋ᆯ씨니 三世 諸佛이 다 이 經을 브트샤 修行ᄒᆞ샤ᅀᅡ 비르서 成佛을 得ᄒᆞ시ᄂᆞ니라. 般若心經에 닐오ᄃᆡ 三世 諸佛이 般若 波羅密多ᄅᆞᆯ 브트신 젼ᄎᆞ로 阿耨多羅三藐 三菩提ᄅᆞᆯ 得ᄒᆞ시다 ᄒᆞ니라. 스스을 조차 ᄇᆡ호ᄆᆞᆯ 닐오ᄃᆡ 受ㅣ오 ᄠᅳ들 아라 修行호ᄆᆞᆯ 닐오ᄃᆡ 持오 제 아라 제 行호미 이제 利오 사ᄅᆞᆷ 爲ᄒᆞ야 펴 닐오미 이 ᄂᆞᄆᆞᆯ 利호미니 功德이 넙고 커 ᄀᆞᆺ 업스니라.(금강 건 46-47)

◉ 엇뎨어뇨. 須菩提여 一切 諸佛와 佛ㅅ 阿耨多羅三藐 三菩提法이 다 이 經 브터 나ᄂᆞ니라 = 何以故오. 須菩提야. 一切諸佛와 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이 皆從此經出ᄒᆞᄂᆞ니라.(금강 건 47)

☞ 이 經은 이 一卷ㅅ 그를 ᄀᆞᄅᆞ치샨디 아니라. 當ᄒᆞᆫ 사ᄅᆞᄆᆡ 佛性이 體를 브터 用을 니ᄅᆞ와다 微妙ᄒᆞᆫ 利ㅣ 無窮호ᄆᆞᆯ 나토려 ᄒᆞ시니라. 般若ᄂᆞᆫ 곧 智慧니 智ᄂᆞᆫ 方便으로 功 삼고 慧ᄂᆞᆫ 決斷호ᄆᆞ로 用삼ᄂᆞ니 곧 一切 時中에 아라 비취ᄂᆞᆫ ᄆᆞᅀᆞ미 이니 一切 諸佛와 阿耨多羅三藐 三菩提法이 다 아라 비취욤브터 날씨 니ᄅᆞ샤ᄃᆡ 이 經브터 나다 ᄒᆞ시니라.(금강 건 47-48) *ᄆᆞᅀᆞ미 이니 =是니

◉ 須菩提여. 닐온 佛法이 곧 佛法 아니라 = 須菩提야. 所謂佛法者ㅣ 卽非佛法이라.(금강 건 48)

☞ 니ᄅᆞ샨 一切 文字 章句ᄂᆞᆫ 標 곧ᄒᆞ며 ᄉᆞᆺ가락 곧ᄒᆞ니 「標ᄂᆞᆫ 보라미라」 標와 ᄉᆞᆺ가라ᄀᆞᆫ 그리메와 뫼ᅀᅡ리왓 ᄠᅳ디니 標標ᄅᆞᆯ 브터 物을 取ᄒᆞ고 ᄉᆞᆺ가라ᄀᆞᆯ브터 ᄃᆞᄅᆞᆯ 볼 ᄲᅮ니언뎡 ᄃᆞ리 이 ᄉᆞᆺ가락 아니며 標ㅣ 이 法 아니니 오직 經을 브터 法을 取ᄒᆞᆯ ᄲᅮ니언뎡 經이 이 法 아니니라. 經文은 肉眼이 어루 보려니와 法은 慧眼이ᅀᅡ 能히 보리니 ᄒᆞ다가 慧眼 업스닌 오직 그 文을 보고 그 法을 보디 몯ᄒᆞ리니 ᄒᆞ다가 法을 보디 몯ᄒᆞ면 곧 부텻 ᄠᅳ들 아디 몯ᄒᆞᅀᆞ오리니 부텻 ᄠᅳ들 아디 몯ᄒᆞᅀᆞ오면 經을 외와도 佛道ᄅᆞᆯ 일우디 몯ᄒᆞ리라.(금강 건 48-49) * 뫼ᅀᅡ리(메아리) =響/-왓 (사이시옷: 토씨 다음에도 사잇소리가 옴)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須陁洹이 能히 이 念을 호ᄃᆡ 내 須陁洹果ᄅᆞᆯ 得호라 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須陁洹이 能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須陁洹果아 不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不也 世尊하.(금강 건 49)

☞ 須陁洹은 梵語ㅣ니 唐마랜 流에 거스류미니 生死流에 거스려 六塵에 더럽디 아니ᄒᆞ야 ᄒᆞᆫ갓 無

漏業을 닷가 鹿(총)ᄒᆞ며 므거운 煩惱ㅣ 나디 아니호ᄆᆞᆯ 得ᄒᆞ야 決定히 地獄 畜生 修羅 다ᄅᆞᆫ 類ㅅ 모ᄆᆞᆯ 受티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須陁洹果ㅣ라. ᄒᆞ다가 無相法을 알면 곧 果得혼 ᄆᆞᅀᆞᆷ 업스리니 져기 果得혼 ᄆᆞᅀᆞᆷ 두면 곧 須陁洹이라 일훔 몯ᄒᆞ릴씨 不也ㅣ라 ᄉᆞᆯ오니라.(금강 건 49-50)

◉ 엇뎨어뇨. 須陁洹을 일후미 流에 드로미로ᄃᆡ 드론 곧 업스니 色과 聲과 味와 觸과 法에 드디 아니호미 이 일후미 須陁洹이이다.= 何以故ㅣ어뇨. 須陁洹을 名爲入流ㅣ로ᄃᆡ 而無所入ᄒᆞ니 不入色聲香味觸法이 是名須陁洹이이다.(금강 건 50)

☞ 流는 聖人ㅅ 무리니 須陁洹ㅅ 사ᄅᆞ미 ᄒᆞ마 총(한자입력 안됨)ᄒᆞ며 므거운 煩惱ᄅᆞᆯ 여흴씨 聖人ㅅ 무레 드로ᄃᆡ 드론 곧 업수믄 果得혼 ᄆᆞᅀᆞᆷ 업슬씨라. 須陁洹은 修行ᄒᆞᆯ 싸ᄅᆞᄆᆡ 첫 果ㅣ라.(금강 건 50)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斯陁含이 能히 이 念을 호ᄃᆡ 내 斯陁含果ᄅᆞᆯ 得호라 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斯陁含ᄋᆞᆯ 일후미 ᄒᆞᆫ번 가며 오미로ᄃᆡ 實로 가며 오미 업슬씨 이 일후미 斯陁含이니이다.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斯陁含이 能作是念호ᄃᆡ 我ㅣ 得斯陁含果不아. 須菩提言不也世尊하. 何以故ㅣ어뇨. 斯陁含을 名一往來로ᄃᆡ 而實無往來ᄒᆞᆯᄉᆡ 是名斯陁含이이다.(금강 건 50-51)

☞ 斯陁含은 梵語ㅣ니 唐 마랜 ᄒᆞᆫ 번 가며 오미니 三界ㅅ ᄆᆡ요ᄆᆞᆯ ᄇᆞ려 三界ㅅ ᄆᆡ요미 다ᄋᆞᆯ씨 일후미 斯陁含이라. 斯陁含ᄋᆞᆯ ᄒᆞᆫ 번 가며 오다 일훔호ᄆᆞᆫ 가 天上ᄋᆞᆯ 조차 도로 人間애 와 나고 人間ᄋᆞᆯ 브터 주거 도로 天上애 나 ᄆᆞ차 生死애 나 三界業이 다ᄋᆞᆯ씨 일후미 斯陁含果ㅣ라. 大乘 斯陁含은 누네 諸境을 보고 ᄆᆞᄉᆞ매 一生 滅이 이셔 第二生滅이 업슬씨 일후미 ᄒᆞᆫ 번 가며 오미니 前念이 妄ᄋᆞᆯ 니ᄅᆞ와다ᄃᆞᆫ 後念이 곧 그치며 前念이 着 잇거든 後念이 곧 여흴씨 實로 가며 오미 업스니라.(금강 건 51-52)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阿那含이 能히 이 念을 호ᄃᆡ 내 阿那含果ᄅᆞᆯ 得호라 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阿那含ᄋᆞᆯ 일후미 오디 아니호미로ᄃᆡ 實로 오디 아니홈 업슬씨 이럴씨 일후미 阿那含이니이다.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那含이 能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阿那含果不아. 須菩提言不也世尊하. 何以故ㅣ어뇨. 阿那含을 名爲不來로ᄃᆡ 而實無不來ᄒᆞᆯᄉᆡ 是故로 名阿那含이이다.(금강 건 52)

☞ 阿那含은 梵語ㅣ니 唐마랜 도라오디이니호미며 ᄯᅩ 일후미 欲애 나미니 欲애 나ᄆᆞᆫ 밧ᄀᆞ로 欲ᄒᆞ얌직ᄒᆞᆫ 境 보디 몯ᄒᆞ고 안ᄒᆞ로 欲心이 得홀껏 업시 一定히 欲界ᄅᆞᆯ 向ᄒᆞ야 受生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오디아니호미로ᄃᆡ 實로 옴 업스니라. ᄯᅩ 일후미 도라오디 아니호미니 欲習이 永히 업서 決定히 와 受生 아니ᄒᆞᆯ씨 이럴씨 일후미 阿那含이라. (금강 건 52-53) *'-이다'의 문법화-- 도라오디+이니+호미며(도라오디 일다?+홈?)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阿羅漢이 能히 이 念을 호ᄃᆡ 내 阿羅漢道ᄅᆞᆯ 得호라 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羅漢이 能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阿羅漢道不아. 須菩提言不也世尊하. (금강 건 53)

☞ 諸佛이 ᄒᆞ마 다아 ᄂᆞ외야 煩惱 업수미 일후미 阿羅漢이니 阿羅漢은 煩惱ㅣ 永히 업서 物와 ᄃᆞ톰 업스니 ᄒᆞ다가 果得혼 ᄆᆞᄉᆞᆯ 지ᄉᆞ면 곧 이 ᄃᆞ톰 이슈미라.(금강 건 53)

◉ 엇뎨어뇨. 實로 法 이슴 업수미 일후미 阿羅漢이니 世尊하. ᄒᆞ다가 阿羅漢이 이 念을 호ᄃᆡ 내 阿羅漢道를 得호라 ᄒᆞ면 곧 我人 衆生 壽者애 着호미니이다. = 何以故ㅣ어뇨. 實無有法이 名阿羅漢이니 世尊하. 若阿羅漢이 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阿羅漢道ㅣ라면 卽爲着我人衆生壽者ㅣ니이다.(금강 건 53)

☞ 阿羅漢은 梵語ㅣ니 唐마랜 無諍이니 煩惱ㅣ 그출껏 업스며 貪嗔이 여희욜껏 업서 性이 어긔며 順호미 업서 心과 境괘 다 空ᄒᆞ야 안팟기 샹녜 괴외ᄒᆞ니 ᄒᆞ다가 果得혼 ᄆᆞᅀᆞᆷ 이시면 곧 凡夫와 ᄀᆞᆮ홀씨 不也ㅣ라 ᄉᆞᆯ오니라.(금강 건 54)

◉ 世尊하 부톄 나를 無諍 三昧를 得ᄒᆞ야 人中에 ᄆᆞᆺ 第一이라 ᄒᆞ시나니 이 第一欲 여흰 阿羅漢이니 世尊하 내 이 念을호ᄃᆡ 내 이 欲 여흰 阿羅漢이로라 아니ᄒᆞ노이다. =世尊하 佛說我를 得無諍三昧ᄒᆞ야 人中에 最爲第一이라ᄒᆞ시ᄂᆞ니 是第一離欲阿羅漢이니 世尊하 我ㅣ 不作是念호ᄃᆡ 我ㅣ 是離欲阿羅漢이로라 ᄒᆞ노이다.(금강 건 54)

☞ 엇뎨 일후미 無諍 三昧오 닐오ᄃᆡ 阿羅漢이 ᄆᆞᅀᆞ미 生滅 去來업고 오직 本覺이 샹녜 비췰씨 일후미 無諍 三昧라. 三昧ᄂᆞᆫ 梵語ㅣ니 예셔 닐오맨 正ᄒᆞᆫ 受ㅣ며 ᄯᅩ 닐오맨 正ᄒᆞᆫ 見이니 九十五 種 邪見 머리 여희요미 이 일후미 正見이라. 그러나 空中에 ᄯᅩ 블ᄀᆞ며 어드운 諍이 이시며 性中에 邪ᄒᆞ며 正ᄒᆞᆫ 諍이 잇ᄂᆞ니 念念이 샹녜 正ᄒᆞ야 ᄒᆞᆫ 念ㅅ 邪ᄒᆞᆫ ᄆᆞᅀᆞᆷ 업수미 곧 이 無諍 三昧니 이 三昧를 닷ᄀᆞ면 人中에 ᄆᆞᆺ 第一이니 ᄒᆞ다가 ᄒᆞᆫ 念이나 果得혼 ᄆᆞᅀᆞᆷ 두면 곧 無諍 三昧라 일훔 몯 ᄒᆞ리라.(금강 건 55)

◉ 世尊하 내 ᄒᆞ다가 이 念을 호ᄃᆡ 내 阿羅漢 道를 得호라 ᄒᆞ면 世尊이 곧 須菩提ㅣ 이 阿蘭那行을 즐기ᄂᆞ니라 니ᄅᆞ디 아니ᄒᆞ시려ᄂᆞᆯ 須菩提ㅣ 實로 行혼 곧 업슬씨 須菩提를 일훔ᄒᆞ샤ᄃᆡ 이 阿蘭那行을 즐기ᄂᆞ니라 ᄒᆞ시ᄂᆞ이다. =世尊하 我ㅣ 若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阿羅漢道호라 ᄒᆞ면 世尊이 卽不說須菩提ㅣ 是樂阿蘭那行者ㅣ라 ᄒᆞ시려ᄂᆞᆯ 以須菩提ㅣ 實無所行ᄒᆞᆯ식 而名須菩提ᄒᆞ샤ᄃᆡ 是樂阿蘭那行이라 ᄒᆞ시ᄂᆞ이다.(금강 건 55-56)

☞ 阿蘭那ᄂᆞᆫ 梵語ㅣ니 唐 마랜 無諍行이니 無諍이 곧 이 淸淨行이라. 淸淨行은 得홈 윗ᄂᆞᆫ ᄆᆞᅀᆞᆷ 더러ᄇᆞ릴씨니 ᄒᆞ다가 得홈 잇ᄂᆞᆫ ᄆᆞᅀᆞᆷ 두면 곧 이 有諍이니 有諍이 곧 淸淨道 아니니 샹녜 得홈 업슨 ᄆᆞᅀᆞᄆᆞᆯ 行ᄒᆞ면 곧 이 無諍이라.(금강 건 56)

◉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ᄠᅳ데 엇더뇨. 如來ㅣ 녜 燃燈佛所애 이셔 法애 得혼 고디 잇ᄂᆞ녀 아니녀. 아니이다. 世尊하. 如來ㅣ 燃燈佛所애 겨샤 法에 實로 得ᄒᆞ샨 곧 업스시니이다. =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於意云何오. 如來ㅣ 昔在燃燈佛所ᄒᆞ야 於法에 有所得가 不아. 不也世尊하. 如來ㅣ 在燃燈佛所ᄒᆞ샤 於法에 實無所得ᄒᆞ시니이다.(금강 건 56-57)

☞ 부톄 須菩提ㅣ 法得혼 ᄆᆞᅀᆞᆷ 둘까 저흐샤 이 疑心 아ᄉᆞᄆᆞᆯ 爲ᄒᆞ시ᄂᆞᆫ 젼ᄎᆞ로 무러시ᄂᆞᆯ 須菩提ㅣ 法의 得혼 곧 업수믈 아라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ᄒᆞ니라. 燃燈佛은 이 釋迦佛ㅅ 授記ᄒᆞ신 스스이시니 이럴씨 須菩提ᄃᆞ려 무르샤ᄃᆡ 내 스승ᄭᅴ 法을 드러 法이 어루 得호미 잇ᄂᆞ녀 아니녀 ᄒᆞ야시날 須菩提ㅣ 즉자히 ᄉᆞᆯ오ᄃᆡ 法은 스스의 여러 뵈요ᄆᆞᆯ 因ᄒᆞ나 實로 得혼 곧 업스니 오직 自性이 本來 淸淨ᄒᆞ며 塵勞 업서 괴외히 샹녜 비취ᄂᆞᆫᄃᆞᆯ 알면 곧 제 成佛ᄒᆞ리니 반ᄃᆞ기 아ᄉᆞ오리로다. 世尊이 燃燈佛所애 겨샤 法에 實로 得ᄒᆞ샨 곧 업스샷다. 如來ㅅ 法은 가ᄌᆞᆯ비건댄 힛 光明 ᄇᆞᆯ기 비

취요미 ᄀᆞᆺ 업ᄃᆞᆯᄒᆞ야 取티 몯ᄒᆞ리라.(금강 건 57-58) *아소다=遣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菩薩이 佛土ᄅᆞᆯ 莊嚴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아니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佛土ᄅᆞᆯ 莊嚴호미 곧 莊嚴이 아니라 이 일후미 莊嚴이니이다.=須菩提야. 於意云何오. 菩薩이 莊嚴佛土아 不아. 不也世尊하. 何以故오. 莊嚴佛土者ㅣ 卽非莊嚴이라. 是名莊嚴이니이다.(금강 건 58)

☞ 淸淨ᄒᆞᆫ 佛土ᄂᆞᆫ 相 어스며 形 업거니 어느 物이 能히 莊嚴ᄒᆞ리오. 오직 定慧 財寶로 莊嚴이라 비러 일훔ᄒᆞᄂᆞ니 第一은 世間佛土 莊嚴호미니 뎔 지스며 經 ᄊᆞ며 布施ᄒᆞ며 供養호미오. 第二ᄂᆞᆫ 身佛土 莊嚴호미니 一切人을 보아 너비 恭敬을 行호미 이오 第三은 心佛土 莊嚴호미니 ᄆᆞᅀᆞ미 조ᄒᆞ면 佛土ㅣ 좃ᄂᆞ니 念에 샹녜 부텻 ᄆᆞᅀᆞᆷ 行호미라.(금강 건 59)

◉ 이럴ᄊᆡ 須菩提여. 諸菩薩 摩訶薩이 반ᄃᆞ기 이 ᄀᆞ티 淸淨心을 내욜띠니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미 몯ᄒᆞ리며 聲과 香과 味와 觸과 法에 住혼 곧 업시ᄒᆞ야 그 ᄆᆞᅀᆞᆷ 내욜띠니라. =是故로 須菩提야. 諸菩薩摩訶薩이 應如是生淸淨心이니 不應住色生心ᄒᆞ며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이니 應無所住ᄒᆞ야 而生其心이니라.(금강 건 59)

☞ 이ᄂᆞᆫ 修行ᄒᆞᆯ 싸ᄅᆞ미 ᄂᆞᄆᆡ 是非 보고 제 닐오ᄃᆡ 내 能ᄒᆞ며 내 아노라 ᄒᆞ야 ᄆᆞᅀᆞ매 末學ᄋᆞᆯ 므던히 너교미 맛당티 아니ᄒᆞ니 이 淸淨心이 아니오, 自性에 샹녜 智慧ᄅᆞᆯ 내야 平等慈ᄅᆞᆯ 行ᄒᆞ야 ᄆᆞᅀᆞᄆᆞᆯ ᄂᆞᄌᆞ기 ᄒᆞ야 一切 衆生ᄋᆞᆯ 恭敬호미 이 修行ᄒᆞᆯ 싸ᄅᆞᄆᆡ 淸淨心이라. ᄒᆞ다가 제 그 ᄆᆞᅀᆞᄆᆞᆯ 조히 아니코 淸淨ᄒᆞᆫ 고ᄃᆞᆯ ᄃᆞ사 着ᄒᆞ야 ᄆᆞᅀᆞ미 住혼 곧 이시면 곧 이 法相애 著호미니 色ᄋᆞᆯ 보고 色애 著ᄒᆞ야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면 곧 이 迷ᄒᆞᆫ 사ᄅᆞ미오 色ᄋᆞᆯ 보고 色ᄋᆞᆯ 여희여 色애 住티 아니ᄒᆞ야 ᄆᆞᅀᆞᆷ내면 곧 이 안 사ᄅᆞ미니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ᄆᆞᆫ 구루미 하ᄂᆞᆯ ᄀᆞ리옴 ᄀᆞᆮ고 色애 住티 아니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만 虛空애 구룸 업서 日月이 댱샹 비취 ᄃᆞᆺᄒᆞ니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ᄆᆞᆫ 곧 이 妄念이오 色이 住티 아니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ᄆᆞᆫ 곧 이 眞實ㅅ 智 비취면 곧 ᄇᆞᆯ고미니 ᄇᆞᆯᄀᆞ면 곧 煩惱ㅣ 나디 아니코 어드우면 둗그레 난 겻니ᄂᆞ니라. *ᄃᆞᆺ다(愛)/ *난겻니ᄂᆞ니라 =競起

◉ 須菩提여. 가ᄌᆞᆯ비건댄 사ᄅᆞ미 모미 須彌山王 ᄀᆞᆮᄒᆞ면 ᄠᅳ데 엇더뇨. 이 모미 크녀 아니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크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부텨 니ᄅᆞ샤미 몸 아니라 이 일후미 큰 모미니이다. =須菩提야. 譬如有人이 身如須彌山王ᄒᆞ면 於意云何오. 是身이 爲大아 不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甚大ᄒᆞ이다. 世尊하. 何以故ㅣ어뇨. 佛說이 非身이라. 是名大身이니이다.(금강 건 61)

☞ 色身이 비록 크나 안 ᄆᆞᅀᆞ미 量이 져그면 큰 모미라 일훔 몯ᄒᆞ리오. 안 ᄆᆞᅀᆞ미 量이 커ᅀᅡ 비르서 일후미 큰 모미리라.(금강 건 61)

◉ 須菩提여. 恒河中에 잇ᄂᆞᆫ 몰앳 數 ᄀᆞᆮᄒᆞ야 이 몰애 ᄀᆞᆮᄒᆞᆫ 恒河ᄅᆞᆯ ᄠᅳ데 엇더뇨. 이 한 恒河ㅅ 몰애 하려 몯하려.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하이다. 世尊하. 오직 한 恒河ᄲᅮᆫ도 오히려 하 數 업곤 ᄒᆞ ᄆᆞᆯ며 그 몰애ᄯᅳ녀. 須菩提여. 내 이제 實ᄒᆞᆫ 마ᄅᆞᆯ 너ᄃᆞ려 니ᄅᆞ노니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七寶로 이런 恒河ㅅ 몰애 數ㅅ 三千大千 世界예 ᄎᆡ와 ᄡᅥ 布施ᄒᆞ면 福 得호미 하려 몯하려.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하이다. 世尊하.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이 經中에 四句偈ᄃᆞᆯ 호ᄆᆞᆯ 受持ᄒᆞ야 다ᄅᆞᆫ 사ᄅᆞᆷ 爲ᄒᆞ야 닐우매 니를면 이 福德이 알ᄲᅴ 福德에 더으니라. = 須菩提야. 如恒河中所有沙數ᄒᆞ야 如是沙等恒河ᄅᆞᆯ 於意云何오. 是諸恒河沙ㅣ 寧爲多아 不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甚多ᄒᆞ이다. 世尊하. 但諸恒河도 尙多無數ㅣ혼 何況其沙ㅣ잇가. 須菩提야. 我今實言告汝ᄒᆞ노니 若有善男子善女人이 以七寶로 滿爾所恒河沙數三千大千世界ᄒᆞ야 以用布施ᄒᆞ면 福得이 多아 不아.

須菩提言甚多世尊하.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若善男子善女人이 於此經中에 乃至受持四句偈等ᄒᆞ야 爲他人說ᄒᆞ면 而此福德이 勝前福德ᄒᆞ니라.(금강 건 62)

☞ 七寶를 布施ᄒᆞ면 三界中엣 富貴報를 得ᄒᆞ고 大乘經典을 講說ᄒᆞ면 한 드르니로 큰 智慧를 내야 우 업슨 道를 일우게 ᄒᆞ리니 受持혼 福德이 알ᄑᆡ 七寶ㅅ 福德에 더은들 반ᄃᆞ기 알리로다.(금강 건 63)

◉ 또 버거 須菩提여. 조차 이 經을 닐어 四句偈ᄃᆞᆯ해 니르리 반ᄃᆞ기 알라. 이 고ᄃᆞᆫ 一切 世間ㅅ 天人 阿修羅ㅣ 다 반ᄃᆞ기 供養호ᄃᆡ 부텻 塔廟ᄀᆞ티 ᄒᆞ리니 = 復次須菩提야. 隨說是經ᄒᆞ야 乃至四句偈等히 當知此處ᄂᆞᆫ 一切世間天人阿修羅ㅣ 皆應供養호ᄃᆡ 如佛塔廟ㅣ니 (금강 건 63)

☞ 잇논 고대 ᄒᆞ다가 사ᄅᆞ미 잇거든 곧 이 經을 닐오ᄃᆡ 念念에 念 업슨 ᄆᆞᅀᆞᆷ과 得혼 곧 업슨 ᄆᆞᅀᆞᆷ과 能所 짓디 아니ᄒᆞᆫ ᄆᆞᅀᆞᆷ을 샹녜 行ᄒᆞ야 닐올띠니 ᄒᆞ다가 能히 여러 ᄆᆞᅀᆞᆷ을 머리 여희오 샹녜 得혼 곧 업슨 ᄆᆞᅀᆞᆷ을 브트면 곧 이 身中에 如來ㅅ 全身舍利 겨신 젼ᄎᆞ로 니ᄅᆞ샤ᄃᆡ 부텻 塔廟 ᄀᆞᆮ다 ᄒᆞ시니라. 得혼 곧 업슨 ᄆᆞᅀᆞᆷ로 이 經 니ᄅᆞᄂᆞ닌 天龍八部ㅣ 다 와 드러 受호ᄆᆞᆯ 感得ᄒᆞ려니 聲과 利益 爲ᄒᆞ야 이 經 니ᄅᆞᄂᆞ닌 주거 三塗애 ᄠᅥ러디려니 므슴 利益 이시리오. ᄆᆞᅀᆞ미 ᄒᆞ다가 淸淨ᄒᆞ야 爲ᄒᆞ야 이 經을 닐어 한 드르니로 迷妄ᄒᆞᆫ ᄆᆞᅀᆞᆷ을 덜오, 本來ㅅ 佛性ᄋᆞᆯ 아라 샹녜 眞實을 行케 ᄒᆞ면 天人 阿修羅等이 다 와 持經ᄒᆞᆯ 싸ᄅᆞᆷ 供養호ᄆᆞᆯ 感得ᄒᆞ리라.(금강 건 64)

◉ ᄒᆞᆯ며 사ᄅᆞ미 다 能히 受持讀誦호미ᄯᅳ녀. 須菩提여. 이 사ᄅᆞ미 ᄆᆞᆺ 노ᄑᆞᆫ 第一 希有ᄒᆞᆫ 法을 일울ᄯᆞᆯ 반ᄃᆞ기 아ᄅᆞᆯ띠니 ᄒᆞ다가 이 經典 잇ᄂᆞᆫ 고ᄃᆞᆫ 부텨와 尊重ᄒᆞᆫ 弟子 이슈미니라. = 何況有人이 盡能受持讀誦호미여. 須菩提야. 當知是人이 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이니 若是經典所在之處ᄂᆞᆫ 則爲有佛若尊重弟子ㅣ니라.(금강 건 65)

☞ 제 ᄆᆞᅀᆞ매 이 經을 외오며 제 ᄆᆞᅀᆞ매 經ㅅ ᄠᅳ들 알며 제 ᄆᆞᅀᆞ매 無著 無相ㅅ 理ᄅᆞᆯ 體得ᄒᆞ야 잇논 고대 샹녜 부텻 行ᄋᆞᆯ 닷가 念念에 ᄆᆞᅀᆞ미 그쳐 歇홈 업스면 제 ᄆᆞᅀᆞ미 이 부톄론 젼ᄎᆞ로 니ᄅᆞ샤ᄃᆡ 잇논 고디 부텨 이슈미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65)

◉ 그 ᄢᅴ 須菩提ㅣ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世尊하 반ᄃᆞ기 이 經을 엇뎨 일훔ᄒᆞ며 우리ᄃᆞᆯ히 엇뎨 奉持ᄒᆞ리잇고.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 經이 일후미 金剛般若波羅密이니 이 名字로 네 반ᄃᆞ기 奉持ᄒᆞᆯ띠니라. 엇뎨어뇨. 須菩提여. 부텨 니ᄅᆞᄂᆞᆫ 般若波羅密이 곧 般若波羅密이 아니라. 이 일후미 般若波羅密이니라. = 爾時須菩提ㅣ 白佛言ᄒᆞᄉᆞ오ᄃᆡ 世尊하 當何名此經ᄒᆞ며 我等이 云何奉持잇고.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是經이 名爲金剛般若波羅密이니 以是名字로 汝當奉持니라. 所以者何오. 須菩提야. 佛說般若波羅密이 卽非般若波羅密이라. 是名般若波羅密이니라.(금강 건 66)

☞ 부텨 니ᄅᆞ샨 般若波羅密은 한 ᄇᆡ홀 싸ᄅᆞᄆᆞ로 智慧를 ᄇᆞ 어린 ᄆᆞᅀᆞᆷ 生滅을 덜에 ᄒᆞ시니 生滅이 더러 업수미 곧 뎌 ᄀᆞᅀᅢ 가미니 ᄒᆞ다가 ᄆᆞᅀᆞ미 得혼 곧 이시면 곧 뎌 ᄀᆞᅀᅢ 감 아니오, ᄆᆞᅀᆞ미 ᄒᆞᆫ 法도 得홈 업스면 곧 이 뎌 ᄀᆞᅀᅢ니 이베 니ᄅᆞ고 ᄆᆞᅀᆞ매 行ᄒᆞ야ᅀᅡ 이 뎌 ᄀᆞᅀᅢ 가미라.(금강 건 66)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如來ㅣ 法 날옴 잇ᄂᆞ녀 아니녀. 須菩提ㅣ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世尊하 如來ㅣ 니ᄅᆞ샴 업스시니이다.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如來ㅣ 有所說法가. 不아. 須菩提ㅣ 白佛言ᄒᆞ

ᄉᆞ오ᄃᆡ 世尊하 如來 無所說ᄒᆞ시니이다.(금강 건 67)

☞ 부톄 須菩提ᄃᆞ려 무르샤ᄃᆡ 如來 說法이 ᄆᆞᄉᆞ매 得홈 잇ᄂᆞ녀 아니녀. 須菩提ㅣ 如來ㅅ 說法이 ᄆᆞᄉᆞ매 得ᄒᆞ샴 업스신ᄃᆞᆯ 아ᄉᆞ올씨 니ᄅᆞ샴 업스시다 ᄉᆞᆯ오니라. 如來ㅅ ᄠᅳ든 世앳 사ᄅᆞᄆᆞ로 得홈 잇ᄂᆞᆫ ᄆᆞᅀᆞᆷ 여희에 코져 ᄒᆞ실씨 般若 波羅密法을 니ᄅᆞ샤 一切ㅅ 사ᄅᆞᄆᆞ로 듣ᄌᆞᆸ고 다 보리心을 發ᄒᆞ야 無生理ᄅᆞᆯ 아라 우 업슨 道ᄅᆞᆯ 일우게 ᄒᆞ시니라.(금강 건 67)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三千大天 世界예 잇ᄂᆞᆫ 微塵이 이 하녀 아니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하이다. 世尊하. 須菩提여 諸微塵을 如來ㅣ 니ᄅᆞᄂᆞ니 微塵 아니라 이 일후미 微塵이며 如來 니ᄅᆞᄂᆞᆫ 世界 世界 아니라 이 일후미 世界니라.=須菩提야. 於意云何오. 三千大千世界옛 所有微塵이 是爲多아 不아. 須菩提 言ᄒᆞᄉᆞ오ᄃᆡ 甚多ᄒᆞ이다. 世尊하. 須菩提야. 諸微塵을 如來說이 非未盡이라. 是名微塵이며, 如來說世界ㅣ 非世界라. 是名世界니라.(금강 건 68)

☞ 如來ㅣ 니ᄅᆞ샤ᄃᆡ 衆生性中에 妄念이 三千大千世界中엣 잇ᄂᆞᆫ 微塵 ᄀᆞᆮᄒᆞ니 一切 衆生이 妄念微塵의 니룸과 滅호미 긋디 아니호ᄆᆞᆯ 니버 佛性을 ᄀᆞ리와 解脫ᄒᆞᆯ 得디 몯ᄒᆞᄂᆞ니 ᄒᆞ다가 能히 念念이 眞實ᄒᆞ며 正ᄒᆞ야 般若波羅密ㅅ 無著無相ㅅ 行ᄒᆞᆯ 닷가 妄念塵勞ㅣ 곧 淸淨法性인ᄃᆞᆯ 아라 妄念이 ᄒᆞ마 업스면 곧 微塵이 아니니라. 이 일후미 微塵은 眞이 곧 妄인ᄃᆞᆯ 알며 妄이 곧 眞인ᄃᆞᆯ 아라 眞妄이 다 업서 各別ᄒᆞᆫ 法이 업슬씨 니ᄅᆞ샤ᄃᆡ 이 일후미 微塵이라. 性中에 塵勞 업스면 곧 이 佛世界心中에 塵勞 이시면 곧 이 衆生 世界니 한 妄念의 空寂을 알씨 니ᄅᆞ샤ᄃᆡ 世界 아니오 如來ㅅ 法身이 塵刹애 너비 現ᄒᆞ샤 應ᄒᆞ샤 ᄡᅳ샤미 덛덛홈 업스샤ᄆᆞᆯ 證후미 世界라.(금강 건 69)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어루 三十二相으로 如來ᄅᆞᆯ 보려 몯ᄒᆞ려. 아니이다. 世尊하. 三十二相으로 如來ᄅᆞᆯ 시러 보ᄉᆞᆸ디 몯ᄒᆞᄉᆞ오리니 엇뎨어뇨. 如來 니ᄅᆞ시ᄂᆞᆫ 三十二相이 곧 이 相 아니라 이 일후미 三十二相이시니이다.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可以三十二相으로 見如來아 不아. 不也世尊하. 不可以三十二相으로 得見如來ᄒᆞᄉᆞ오리니 何以故ㅣ어뇨. 如來說三十二相이 卽是非相이라. 是名三十二相이시니이다. (금강 건 69)

☞ 三十二相은 이 三十二 淸淨行이시니 三十二 淸淨行은 五根中에 六波羅蜜ᄋᆞᆯ 닷ᄀᆞ시며 意根中에 無相爲ᄅᆞᆯ 닷ᄀᆞ시니 이 일후미 三十二 淸淨行이시니 샹녜 이 三十二 淸淨行ᄋᆞᆯ 닷고미 곧 이 成佛이시고 ᄒᆞ다가 三十二相 淸淨行ᄋᆞᆯ 닷디 아니ᄒᆞ면 ᄆᆞᄎᆞᆷ내 成佛 몯ᄒᆞ리니 오직 如來ㅅ 三十二相ᄋᆞᆯ ᄃᆞ사 著ᄒᆞᅀᆞᆸ고 제 三十二行ᄋᆞᆯ 닷디 아니ᄒᆞ면 ᄆᆞᄎᆞᆷ내 如來ᄅᆞᆯ 시러 보ᄉᆞᆸ디 몯ᄒᆞᄉᆞ오리라.(금강 건 70)

◉ 須菩提여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恒河沙ᄃᆞᆱ 身命으로 布施ᄒᆞ야도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이 經中에 四句偈ᄃᆞᆯᄒᆞᆯ 受持ᄒᆞ야 다ᄅᆞᆫ 사ᄅᆞᆷ 爲ᄒᆞ야 닐우매 니를면 그 福이 甚히 하니라. =須菩提야 若有善男子善女人이 以恒河沙等身命으로 布施ᄒᆞ야도 若復有人이 於此經中에 乃至受持四句偈等ᄒᆞ야 爲他人說ᄒᆞ면 其福이 甚多ᄒᆞ니라.(능엄 건 71)

☞ 世間애 重ᄒᆞ니 身命에 너므니 업스니 菩薩이 法을 爲ᄒᆞ야 無量怯中에 身命을 ᄇᆞ려 施ᄒᆞ야 一切 衆生ᄋᆞᆯ 주ᄂᆞ니 그 福이 비록 하나 ᄯᅩ 이 經ㅅ 四句 受持혼 福ᄀᆞᆮ디 몯ᄒᆞ니 한 怯에 모ᄆᆞᆯ ᄇᆞ려도 空ㅅ ᄠᅳᆯ 아디 몯ᄒᆞ야 妄心을 더니 몯ᄒᆞ면 ᄉᆞᆫ지 이 衆生이어니와 ᄒᆞᆫ 念에 經을 디녀 我人이 다 업서 妄想ᄋᆞᆯ ᄒᆞ마 덜면 말ᄊᆞ매 成佛ᄒᆞ릴씨 한 怯에 몸 ᄇᆞ료미 經四句 디늉 福 ᄀᆞᆮ디 몯호ᄆᆞᆯ 알리로다.(금강 건 71-72)

◉ 그 ᄠᅴ 須菩提ㅣ 이 經 니ᄅᆞ시ᄆᆞᆯ 듣ᄌᆞᆸ고 ᄠᅳ들 기피 아라 눈믈 흘려 슬피 우러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希有ᄒᆞ신 世尊하. 부톄 이 ᄀᆞᆮᄒᆞᆫ 甚히 기픈 經典 니ᄅᆞ샤ᄆᆞᆯ 내 녜브터 오매 得혼 慧眼으로 일쯕 이 ᄀᆞᆮᄒᆞᆫ 經을 시러 듣ᄌᆞᆸ디 몯ᄒᆞᄉᆞ왯다니 世尊하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이 經을 시러 듣ᄌᆞᆸ고 信心이 淸淨ᄒᆞ면 곧 實相이 나리니 이 사ᄅᆞᄆᆞᆫ 第一 希有ᄒᆞᆫ 功德 일울ᄯᆞᆯ 반ᄃᆞ기 알리로소이다. =爾時須菩提ㅣ 聞說是經ᄒᆞᄉᆞᆸ고 深解義趣ᄒᆞ야 涕漏慈泣ᄒᆞ야 而白佛言ᄒᆞᄉᆞ오ᄃᆡ 希有ᄒᆞ신 世尊하. 佛說如是甚深經典을 我從昔來예 所得慧眼으로 未曾得聞如是之經ᄒᆞᄉᆞ왯다니 世尊하 若復有人이 得聞是經ᄒᆞᄉᆞᆸ고 信心淸淨ᄒᆞ면 卽生實相ᄒᆞ리니 當知是人은 成就第一希有功德이로소이다.(금강 건 71)

☞ 自性 어리디 아니호미 일후미 慧眼이오 法 듣고 제 아로미 일후미 法眼이니 須菩提ᄂᆞᆫ 阿羅漢이라 五百 弟子中에 空 아로미 第一이라 ᄒᆞ마 한 부톄를 브즈러니 셤기ᄉᆞ오니 엇뎨 이 ᄀᆞᆮᄒᆞᆫ 기픈 法을 듣ᄌᆞᆸ디 몯ᄒᆞ관ᄃᆡ 엇뎨 釋迦牟尼 佛所애 비르서 듣ᄌᆞ오ᄆᆞᆯ ᄉᆞᆯ오뇨. 그러나 시혹 이 須菩提ㅣ 녜 得혼 거슨 聲聞의 慧眼이라 가 이제 니르러ᅀᅡ 부텻 ᄠᅳ들 아ᄉᆞ올씨 비르서 이 ᄀᆞᆮᄒᆞᆫ 기픈 經 듣ᄌᆞᆸ고 아ᄅᆡ 아디 몯호ᄆᆞᆯ 슬허 이럴씨 눈믈 흘려 슬피 우니라. 經 듣고 仔細히 念호미 닐오ᄃᆡ 淸淨이니 淸淨體中을 브터 般若波羅蜜多ㅅ 기픈 法이 흘러 나ᄂᆞ니 決定히 諸佛ㅅ 功德 일울ᄯᆞᆯ 반ᄃᆞ기 알리로다.(금강 건 73)

◉ 世尊하 이 實相이 곧 이 相 아닐씨 이럴씨 如來ㅣ 니ᄅᆞ샤ᄃᆡ 일후미 實相이라 ᄒᆞ시ᄂᆞ니이다.= 世尊하 是實相者ㅣ 卽是非相일ᄉᆡ 是故로 如來ㅣ 說名實相ᄒᆞ시ᄂᆞ니이다.(금강 건 73)

☞ 비록 淸淨行ᄋᆞᆯ 行ᄒᆞ나 ᄒᆞ다가 더러우며 조호ᄆᆞᆯ 보아 두 相이 ᄠᅳ데 當ᄒᆞ면 다 이 더러운 ᄆᆞᄉᆞ미라. 곧 淸淨心이 아니며 오직 ᄆᆞᄉᆞ매 得홈 이시면 곧 實相 아니라.(금강 건 74)

◉ 世尊하 내 이제 이ᄀᆞᆮᄒᆞᆫ 經典을 시러 듣ᄌᆞᆸ고 信ᄒᆞ야 아라 受持호미ᅀᅡ 足히 어렵디 아니커니와 ᄒᆞ다가 當來 世ㅅ 後 五百歲예 그 衆生이 이 經을 시러 듣고 信ᄒᆞ야 아라 受持ᄒᆞ면 이 사ᄅᆞ미 我相 업스며 人相 업스며 衆生相 업스며 壽者相 업스니 엇뎨어뇨. 我相이 곧 이 相 아니며 人相衆生相壽者相이 곧 이 相 아니니 엇뎨어뇨 一切 諸相 여희요미 곧 일후미 諸佛이니이다. = 世尊하 我今得聞如是經典ᄒᆞᄉᆞᆸ고 信解受持ᅀᅡ 不足爲難이어니와 若當來世後五百歲예 其有衆生이 得聞是經ᄒᆞ고 信解受持ᄒᆞ면 是人은 卽爲第一希有ㅣ니 何以故ㅣ어뇨. 此人이 無我相ᄒᆞ며 無人相ᄒᆞ며 無衆生相ᄒᆞ며 無壽者相이니 所以者何ㅣ어뇨. 我相이 卽是非相이며 人相衆生相壽者相이 卽是非相이니 何以故ㅣ어뇨. 離一切諸相이 卽名諸佛이니이다.(금강 건 74-75)

☞ 須菩提ㅣ 부텻 ᄠᅳ들 기피 아ᄉᆞ오니 ᄌᆞ졔 業이 다ᄋᆞ며 ᄢᅵ 업서 慧眼이 ᄇᆞᆯ가 ᄉᆞᄆᆞᄎᆞᆯ씨 信ᄒᆞ야 아라 受持호미 곧 어렵디 아니ᄒᆞᆫᄃᆞᆯ 보도다. 世尊이 世예 겨샤 說法ᄒᆞ실제도 ᄯᅩ 無量 衆生이 能히 信ᄒᆞ야 아라 受持 몯ᄒᆞ리 이시니 엇뎨 구틔여 ᄒᆞ오ᅀᅡ 後五百歲ᄅᆞᆯ 니ᄅᆞ뇨. 부텨 겨신 나랜 비록 中下根이 信티 아니ᄒᆞ며 ᄯᅩ 疑心 머그리 이셔도 즉재 가 부텻긔 묻ᄌᆞ와든 부톄 즉재 맛당호ᄆᆞᆯ 조차 爲ᄒᆞ야 닐어시든 마초아디 아니ᄒᆞ리 업서니와 부텨 滅度後ㅅ 後五百歲옌 漸漸末法에 니르러 聖人 버으로미 머러 오직 말ᄊᆞᆷ ᄀᆞᄅᆞ치샴 이시니 사ᄅᆞ미 ᄒᆞ다가 疑心 이셔도 무러 決홀ᄭᅳᆫ 업서 어리여 執을 가져 無生ᄋᆞᆯ 아디 몯ᄒᆞ야 相에 著ᄒᆞ야 ᄃᆞᆯ여 求ᄒᆞ야 諸有에 그우니ᄂᆞ니 이 時中엔 기픈 經을 듣고 ᄆᆞᅀᆞᆷ ᄆᆞᆯ겨 恭敬ᄒᆞ야 信ᄒᆞ야 無生理 알리 甚히 希有ᄒᆞᆯ씨 닐오ᄃᆡ 第一 希有ㅣ라 ᄒᆞ니라. 如來 滅度ㅅ 後 五百歲예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能히 般若波羅蜜 甚히 기픈 經典에 信ᄒᆞ야 아라 受持ᄒᆞ린 곧 이 사ᄅᆞ미 我人衆生壽者ㅅ 相 업슨ᄃᆞᆯ 아롤ᄊᆡ니 이 四相 업수미 이 일후미 實相이며 곧 이 佛心일씨 ᄉᆞᆯ오ᄃᆡ 一切 諸相 여희요미 곧 일후미 諸佛이라 ᄒᆞ니라.(금강 건 76)

◉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ᄀᆞᆮ다 이ᄀᆞᆮ다.=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如是如是타.(금강 건 77)

☞ 부톄 須菩提의 아로미 이대 내 ᄆᆞᅀᆞ매 마조ᄆᆞᆯ 印可ᄒᆞ실ᄊᆡ 다시 如是라 니ᄅᆞ시니라.(금강 건 77)

◉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이 經을 시러 듣고 놀라디 아니ᄒᆞ며 두리디 아니ᄒᆞ며 저티 아니ᄒᆞ면 이 사ᄅᆞᄆᆞᆫ 甚히 希有ᄒᆞᆫᄃᆞᆯ 반ᄃᆞ기 아롤띠니 =若復有人이 得聞是經ᄒᆞ고 不驚不怖不畏ᄒᆞ면 當知是人은 甚爲希有ㅣ니.(금강 건 77)

☞ 聲聞은 오래 法相애 著ᄒᆞ야 有를 자바 아롬 삼고 諸法의 本來 空ᄒᆞ야 一切 文字ㅣ 다 이 거즛 셴ᄃᆞᆯ 아디 몯ᄒᆞᆯᄊᆡ 기픈 經에 諸相이 나디 아니ᄒᆞ면 말ᄊᆞ매 곧 부톄라 ᄒᆞ샤ᄆᆞᆯ 믄득 듣ᄌᆞ올ᄊᆡ 놀라 두리거니와 오직 이 上根 菩薩은 이 理 시러 듣ᄌᆞᆸ고 歡喜ᄒᆞ야 受持ᄒᆞ야 ᄆᆞᅀᆞ미 저허 믈리 그우룸 업스니 이 ᄀᆞᆮᄒᆞᆫ 무리 甚히 希有ᄒᆞ니라.(금강 건 77-78)

◉ 엇뎨어뇨. 須菩提여. 如來 니ᄅᆞᄂᆞᆫ 第一 波羅蜜이 곧 第一波羅蜜 아니라 이 일후미 第一波羅蜜이라. =何以故오. 須菩提야. 如來說第一波羅蜜이 卽非第一波羅蜜이라 是名第一波羅蜜이라.(금강 건 78)

☞ 이베 니ᄅᆞ고 ᄆᆞᅀᆞ매 行티 아니호ᄆᆞᆫ 곧 아니오 이베 니ᄅᆞ고 ᄆᆞᅀᆞ매 行호ᄆᆞᆫ 곧 이며 ᄆᆞᅀᆞ매 能所 이쇼ᄆᆞᆫ 곧 아니오 ᄆᆞᅀᆞ매 能所 업수믄 이라.(금강 건 78)

◉ 須菩提여. 忍辱 波羅蜜이 如來 니ᄅᆞᄂᆞ니 忍辱 波羅蜜 아니라 이 일후미 忍辱 波羅蜜이라.= 須菩提야. 忍辱波羅蜜이 如來說이 非忍辱波羅蜜이라 是名忍辱波羅蜜이라.(금강 건 78)

☞ 辱 ᄃᆞ윈 境이 ᄠᅳ데 當ᄒᆞ니 이슈믈 보디 몯호미 곧 이며 身相의 뎌 害호ᄆᆞᆯ 當ᄒᆞ리 이쇼ᄆᆞᆯ 보미 곧 아니오 身相의 뎌 害호ᄆᆞᆯ 當ᄒᆞ리 이쇼ᄆᆞᆯ 보디 몯호미 곧 이라.(금강 건 79)

◉ 엇뎨어뇨 須菩提여 내 녜 歌利王의 身體ᄅᆞᆯ 버효미 ᄃᆞ외야 내 그 ᄢᅴ 我相업스며 人相업스며 衆生相 업스며 壽者相 업다니 엇뎨어뇨. 녜 ᄆᆞᄃᆡᄆᆞᄃᆡ 활기 ᄠᅳ즐쩨 ᄒᆞ다가 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잇던댄 반ᄃᆞ기 瞋心ᄒᆞ야 ᄆᆡ유믈 내리러니라. =何以故오. 須菩提야 如我ㅣ 昔爲歌利王의 割截身體ᄒᆞ야 我於爾時예 無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다니 何以故오 我於往昔節節支解時예 若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던댄 應生瞋心ᄒᆞ리러니라.(금강 건 79)

☞ 如來ㅣ 因中에 初地예 겨신제 忍辱 仙人이 ᄃᆞ외샤 歌利王ᄋᆡ 身體 버효ᄆᆞᆯ 니브샤ᄃᆡ ᄒᆞᆫ 念ㅅ 셜운 ᄆᆞᅀᆞ미 업스니니 ᄒᆞ다가 셜운 ᄆᆞᅀᆞ미 겨시면 곧 嗔心ᄒᆞ야 ᄆᆡ요ᄆᆞᆯ 내시리러니라. 歌利王은 梵語ㅣ니 예셔 닐오맨 無道ᄒᆞᆫ ᄀᆞ장 모딘 님그미라. ᄒᆞᆫ 마래 如來ㅣ 因中에 일ᄶᅳᆨ 國王이 ᄃᆞ외샤 샹녜 十善을 行ᄒᆞ샤 蒼生ᄋᆞᆯ 利益ᄒᆞ실ᄊᆡ 「蒼生은 퍼러히 살씨니 머리 보ᄂᆞᆫ ᄠᅳ디라」 나랏 사ᄅᆞ미 이 王ᄋᆞᆯ 놀애 블러 기리ᄉᆞᄋᆞᆯᄊᆡ ᄉᆞᆯ오ᄃᆡ 歌利王이라. 王이 無上菩提ᄅᆞᆯ 求ᄒᆞ샤 忍辱行ᄋᆞᆯ 닷더시니 그 ᄢᅴ 天帝釋이 化ᄒᆞ야 旃陁羅ㅣ ᄃᆞ외야 王의 身肉을 비ᄉᆞ온대 王이 곧 버혀 주샤 잢간도 嗔心ᄒᆞ야 셜워홈 업스시니라 ᄒᆞ니 이제 두 마ᄅᆞᆯ 두노니 理예 다 通ᄒᆞ니라.(금강 건 80)

◉ 須菩提여 ᄯᅩ 念호니 過去에 五百世예 忍辱 仙人이 ᄃᆞ외야 이런 世예 我相 업스며 人相 업스며

衆生相 업스며 壽者相 업다니 = 須菩提야. 又念過去於五百世예 作忍辱仙人於爾所世예 無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다니 (금강 건 80-81)

☞ 世ᄂᆞᆫ 生이라 如來ㅣ因中에 五百世예 忍辱波羅蜜을 修行ᄒᆞ샤 四相이 나디 아니ᄒᆞ샤ᄆᆞᆯ 得ᄒᆞ시니라. 如來ㅣ ᄌᆞ개 녯 因을 니ᄅᆞ샤ᄆᆞᆫ 一切ㅅ 修行ᄒᆞᆯ 싸ᄅᆞᄆᆞ로 忍辱波羅蜜을 일우게코져 ᄒᆞ시니 忍辱波羅蜜行ᄒᆞᆯ 싸ᄅᆞ미 ᄒᆞ마 忍辱行ᄋᆞᆯ 行ᄒᆞᄂᆞ닌 一切人의 過惡ᄋᆞᆯ 보디 아니ᄒᆞ야 怨讐와 親을 平等히 ᄒᆞ야 올홈 업스며 외욤 업서 ᄂᆞᄆᆡ 티며 구지저 殘害ᄅᆞᆯ 니버도 歡喜ᄒᆞ야 바다 恭敬을 倍히 더ᄒᆞ니 이 ᄀᆞᆮᄒᆞᆫ 行ᄋᆞᆯ 行ᄒᆞ리ᅀᅡ 곧 能히 忍辱波羅蜜을 일우리라.(금강 건 81)

◉ 이럴ᄊᆡ 須菩提여. 菩薩이 반ᄃᆞ기 一切相ᄋᆞᆯ 여희여 阿耨多羅三藐三菩提ㅅ ᄆᆞᅀᆞᆷ 發홀띠니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미 몯ᄒᆞ리며 聲과 香과 味와 觸과 法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미 몯ᄒᆞ리니 반ᄃᆞ기 住혼 곧 업슨 ᄆᆞᅀᆞᆷᄋᆞᆯ 내욜띠니라. = 是故로 須菩提야 菩薩이 應離一切相ᄒᆞ야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이니 不應住色生心ᄒᆞ며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이니 應生無所住心이니라.(금강 건 82)

☞ 반ᄃᆞ기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욤 몯ᄒᆞ리라 ᄒᆞ야ᄆᆞᆫ 이ᄂᆞᆫ 뫼화 標ᄒᆞ시고 聲香ᄃᆞᆯᄒᆞᆫ 各別히 그 일후믈 버리시니라. 이 六塵에 믜며 ᄃᆞᆶ온 ᄆᆞᅀᆞᆷ 니ᄅᆞ와다. 이 妄心을 브터 無量業 ᄆᆡ요ᄆᆞᆯ 뫼화 佛性을 두퍼 비록 種種ᄋᆞ로 勤苦히 修行ᄒᆞ야도 ᄆᆞᄉᆞ맷 ᄠᅴ를 더디 아니ᄒᆞᆯᄊᆡ ᄆᆞᄎᆞᆷ내 解脫홀 理 업스니 根本ᄋᆞᆯ 推尋컨댄 다 色上애 ᄆᆞᅀᆞᆷ 住호ᄆᆞᆯ 브트니라. ᄒᆞ다가 能히 念念에 般若 波羅蜜을 샹녜 行ᄒᆞ야 諸法의 空ᄋᆞᆯ 推尋ᄒᆞ야 혜아려 著호ᄆᆞᆯ 내디 아니ᄒᆞ야 念念에 샹녜 제 精進ᄒᆞ야 一心으로 간슈ᄒᆞ야 放蕩히 노호ᄆᆞᆯ 업게홀띠니 淨名經에 닐오ᄃᆡ 一切智ᄅᆞᆯ 求호ᄃᆡ 時節 아닌 求호미 업다ᄒᆞ며 大般若經에 닐오ᄃᆡ 菩薩摩訶薩이 밤나재 精勤ᄒᆞ야 샹녜 般若波羅蜜多애 住ᄒᆞ야 서르 맛게 ᄲᅳᆫ 지ᅀᅥ 잢간도 ᄇᆞ릴 ᄊᆡ 업스니라 ᄒᆞ니라.(금강 건 83)

◉ ᄒᆞ다가 ᄆᆞᄉᆞ미 住 이시면 곧 住ㅣ 아니니 = 若心이 有住ᄒᆞ면 卽爲非生ㅣ니 (금강 건 83)

☞ ᄒᆞ다가 ᄆᆞᄉᆞ미 涅槃애 住ᄒᆞ면 이 菩薩ㅅ 住홀ᄁᆞᆫ 아니니 涅槃애 住티 아니ᄒᆞ며 諸法에 住티 아니ᄒᆞ야 一切處에 住티 아니ᄒᆞ야ᅀᅡ 비르서 이 菩薩ㅅ 住홀 ᄭᅩ디니 웃그레 니ᄅᆞ샨 반ᄃᆞ기 住혼 곧 업시 ᄒᆞ야 그 ᄆᆞᅀᆞᆷ 내요미 이라.(금강 건 83-84)

◉ 이럴ᄊᆡ 부톄 菩薩ㅅᄆᆞᄉᆞᄆᆞᆫ 色애 住ᄒᆞ야 布施호미 몯ᄒᆞ리라 니ᄅᆞᄂᆞ니 須菩提여. 菩薩이 一切衆生利益호ᄆᆞᆯ 爲ᄒᆞᆫ 젼ᄎᆞ로 반ᄃᆞ기 이ᄀᆞ티 布施홀띠니라. =是故로 佛說菩薩心은 不應住色布施니 須菩提야. 菩薩이 爲利益一切衆生故로 應如是布施니라.(금강 건 84)

☞ 菩薩이 내 모맷 五欲 快諾 求望호ᄆᆞᆯ 爲ᄒᆞ야 布施行티 아니코 오직 안ᄒᆞ로 慳貪ㅅ ᄆᆞᅀᆞᆷ 헐며 밧ᄀᆞ로 一切 衆生 利益호ᄆᆞᆯ 爲ᄒᆞ야 布施行ᄒᆞᄂᆞ니라. 菩薩ㅅ 行은 法財ᄅᆞᆯ 平等히 施ᄒᆞ야 利益을 ᄀᆞᆺ 업시 ᄒᆞᄂᆞ니 ᄒᆞ다가 能히 利益ᄒᆞ논 ᄆᆞᄉᆞᄆᆞᆯ 지스면 곧 이 法 아니니 利益ᄒᆞ논 ᄆᆞᅀᆞᆷ 짓디 아니호미 이 일후미 住 업수미니 住 업수미 곧 이 부텻 ᄆᆞᄉᆞ미라.(금강 건 84-85)

◉ 如來 니ᄅᆞᄂᆞᆫ 一切 諸相이 곧 이 相 아니며 ᄯᅩ 니ᄅᆞᄂᆞᆫ 一切 衆生이 곧 衆生 아니라 = 如來說一切諸相이 卽是非相이며 又說一切衆生이 卽非衆生이라.(금강 건 85)

☞ 如ᄂᆞᆫ 生 아니호미오 來ᄂᆞᆫ 滅 아니호미니 生 아니호ᄆᆞᆫ 我人이 生티 아니호미오 滅 아니호ᄆᆞᆫ 覺照ㅣ 滅 아니호미라. 아랫 그레 니ᄅᆞ샤ᄃᆡ 如來ᄂᆞᆫ 브터 온ᄃᆡ 업스며 ᄯᅩ 간ᄃᆡ 업슬ᄊᆡ 如來라 ᄒᆞ시

니 如來 니ᄅᆞ시ᄂᆞᆫ 我人ᄃᆞᆱ 相이 ᄆᆞᄎᆞ매 어루 허롤띠라. 眞實ㅅ 體 아니며 一切 衆生이 다 이 거즛 일후미니 ᄒᆞ다가 妄心을 여희면 곧 衆生이 어루 得홀껏 업스릴씨 니ᄅᆞ샤ᄃᆡ 곧 衆生 아니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85)

◉ 須菩提여. 如來ᄂᆞᆫ 眞ᄒᆞᆫ 말ᄒᆞᄂᆞ니며 實ᄒᆞᆫ 말 ᄒᆞᄂᆞ니며 如ᄒᆞᆫ 말 ᄒᆞᄂᆞ니며 소기디 아닌ᄂᆞᆫ 말 ᄒᆞᄂᆞ니며 다ᄅᆞ디 아니ᄒᆞᆫ 말 ᄒᆞᄂᆞ니라 = 須菩提야. 如來ᄂᆞᆫ 是眞語者ㅣ며 實語者ㅣ며 如語者ㅣ며 佛誑語者ㅣ며 不異語者ㅣ니라.(금강 건 86)

☞ 眞ᄒᆞ신 마ᄅᆞᆫ 一切ㅅ 有情無情아 다 佛性 잇다 니ᄅᆞ실씨오 實ᄒᆞ신 마ᄅᆞᆫ 衆生이 惡業을 지므면 一定히 苦報ᄅᆞᆯ 受ᄒᆞᄂᆞ니라 니ᄅᆞ실씨오 如ᄒᆞ신 마ᄅᆞᆫ 衆生이 善法을 닷ᄀᆞ면 一定히 즐거운 報ㅣ 잇ᄂᆞ니라 니ᄅᆞ실씨오 소기디 아니ᄒᆞ시ᄂᆞᆫ 마ᄅᆞᆫ 般若波羅蜜法이 三世佛을 내야 決定히 虛티 아니타 니ᄅᆞ실시오 다ᄅᆞ디 아니ᄒᆞ신 마ᄅᆞᆫ 如來 니ᄅᆞ샨 初善中善後善이 ᄠᅳ디 微妙ᄒᆞ야 一切ㅅ 天魔와 外道왜 能히 건너 더으며 또 부텻 말ᄉᆞᆷ 허ᅀᆞ오리 업스니시니라.(금강 건 86-87) *없+으니+시+니라

◉ 須菩提여 如來 得혼 法이 法이 實홈 업스며 虛홈 업스니라. = 須菩提야 如來所得法이 此法이 無實無虛ᄒᆞ니라.(금강 건 87)

☞ 實홈 업수믄 法體空寂ᄒᆞ야 相이 어루 得홀껏 업슬씨니 그러나 中에 恒沙性德이 북디 다ᄋᆞ디 아니홈 이실씨 虛홈 업다 니ᄅᆞ시니라. 그 實을 닐오려 ᄒᆞ야도 相이 어루 得홀껏 업스며 그 虛를 닐오려 ᄒᆞ야도 북디 긋디 아니ᄒᆞ니 이럴씨 업다 닐오미 몯ᄒᆞ리며 잇다 닐오미 몯ᄒᆞ리니 이쇼ᄃᆡ 잇디 아니ᄒᆞ며 업수ᄃᆡ 업디 아니ᄒᆞ야 말ᄉᆞᆷ과 가ᄌᆞᆯ뵤ᄆᆞ로 밋디 몯ᄒᆞᆯ꺼시 그 眞實ㅅ 智ㄴ뎌. 하다가 相 여흰 修行 아니면 이에 니르롤쭐 업스니라.(금강 건 87) * 것/줄/-인뎌

◉ 須菩提여 ᄒᆞ다가 菩薩이 ᄆᆞᅀᆞᄆᆞᆯ 法에 住ᄒᆞ야 布施行ᄒᆞ면 사ᄅᆞ미 어두운ᄃᆡ 드러 곧 봄 업숨 ᄀᆞᆮ거니와 = 須菩提야 若菩薩이 心住於法ᄒᆞ야 而行布施ᄒᆞ면 如人이 入闇ᄒᆞ야 卽無所見이어니와 (금강 건 88)

☞ 一切法에 ᄆᆞᅀᆞ미 住著 이시면 三輪体空ᄒᆞᆫ ᄃᆞᆯ 아디 몯ᄒᆞ야 눈 머니 어드운ᄃᆡ 이셔 아롬 업숨 ᄀᆞᆮᄒᆞ니 華嚴經에 닐오ᄃᆡ 聲聞이 如來ㅅ 會中에 이셔 法 듣ᄌᆞ오ᄃᆡ 눈머니 ᄀᆞᆮᄒᆞ며 귀머그니 ᄀᆞᆮ다 ᄒᆞ니 諸法相애 住호ᄆᆞᆯ 爲ᄒᆞᆫ 젼ᄎᆡ라.(금강 건 88)

◉ ᄒᆞ다가 菩薩이 ᄆᆞᅀᆞᄆᆞᆯ 法에 住티 아니ᄒᆞ야 布施行ᄒᆞ면 사ᄅᆞ미 누니 잇거든 힛 光明이 ᄇᆞᆯ기 비취여 種種 비츨 보ᄃᆞᆺᄒᆞ니라. = 若菩薩이 心不住法ᄒᆞ야 而行布施ᄒᆞ면 如人이 有目거든 日光이 明照ᄒᆞ야 見種種色 ᄃᆞᆺᄒᆞ니라.(금강 건 88) *-기(어찌씨끝처럼 쓰임)

☞ ᄒᆞ다가 菩薩이 般若波羅蜜多ㅅ 無著無相行ᄋᆞᆯ 샹녜 行ᄒᆞ면 사ᄅᆞ미 눈 이셔 ᄇᆞᆯᄀᆞᆫ 힛 中에 處홈 ᄀᆞᆮ거니 어ᄃᆡᆯ 보디 몯ᄒᆞ료.(금강 건 89)

◉ 須菩提여 當來世예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能히 이 經에 受持讀誦ᄒᆞ면 곧 如來ㅣ 佛智慧로 이 사ᄅᆞᄆᆞᆯ 다 알며 이 사ᄅᆞᄆᆞᆯ 다 보ᄂᆞ니 다 無量無邊功德을 일우리라. =須菩提야 當來之世예 若有善男子善女人이 能於此經에 受持讀誦ᄒᆞ면 卽爲如來ㅣ 以佛智慧로 悉知是人ᄒᆞ며 悉見是人ᄒᆞᄂᆞ니 皆得成就無量無邊功德ᄒᆞ리라.(금강 건 89)

☞ 當來世ᄂᆞᆫ 如來 滅後ㅅ 後 五百歲 濁惡ᄒᆞᆫ 世예 邪ᄒᆞᆫ 法이 난겻니러 正法이 行호미 어려우리니 이 時節ㅅ 中에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이 經을 맛나 스스을 조차 바다 受ᄒᆞ야 讀誦ᄒᆞ야 ᄆᆞᅀᆞ매 두어 精進ᄒᆞ야 거츠리 아니ᄒᆞ야 ᄠᅳ들 브터 修行ᄒᆞ야 부텻 知見에 아라 들면 能히 阿耨 菩提ᄅᆞᆯ 일우리니 이럴ᄊᆡ 三世諸佛이 모ᄅᆞ시리 업스시니라.(금강 건 89-90) *없+으시+니라/없+으+ㄴ+이+시+니라

<金剛經諺解 乾 > 끝

<金剛經諺解 坤>

◉ 須菩提여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初日分에 恒河沙等 모ᄆᆞ로 布施ᄒᆞ고 中日分에 ᄯᅩ 恒河沙等 모ᄆᆞ로 布施ᄒᆞ고 後日分에 ᄯᅩ 恒河沙等 모ᄆᆞ로 布施ᄒᆞ야 이ᄀᆞ티 無量百千萬億劫에 모ᄆᆞ로 布施ᄒᆞ야도 거스디 아니ᄒᆞ면 그 福이 經典듣고 信心이 거스디 아니ᄒᆞ면 그 福이 뎌에 더으리니 ᄒᆞᄆᆞᆯ며 書寫ᄒᆞ며 受持ᄒᆞ며 讀誦ᄒᆞ야 사ᄅᆞᆷ 爲ᄒᆞ야 사겨 닐오미ᄯᅳ녀. (금강 곤 91)

☞

자료 제공: 한말연구학회
자료 입력: 허재영 회원
자료 내용: 몽산화상 법어 약록 언해(1472)

<몽산화상 법어 약록 언해> 1472

. 話頭에 疑心이 긋디 아니ᄒᆞ면 이 일후미 眞實ㅅ 疑心이니 ᄒᆞ다가 疑心ᄋᆞᆯ 홀번 져근덛 ᄒᆞ고 ᄯᅩ 疑心을 아니ᄒᆞ면 眞實ㅅ ᄆᆞᅀᆞ매 疑心ᄋᆞᆯ 發ᄒᆞ논디 아니라. 짓와 괴요매 屬ᄒᆞ니라.(몽산 1)

. 이럴ᄊᆡ ᄌᆞ오롬과 雜念괘 다 ᄆᆞᅀᆞ매 드러 읏드미 ᄃᆞ외리라.(몽산 2)

. 다시 모ᄃᆡ 안조ᄃᆡ 端正히 호리라.(몽산 2)

. 第一엔 ᄌᆞ오로미오나ᄃᆞᆫ 반ᄃᆞ기 이 엇던 境界오 ᄒᆞ야 아로리니 ᄀᆞᆺ 눈ᄒᆞ 두베 므거ᄇᆞᆫ ᄃᆞᆯ 아라ᄃᆞᆫ 믄득 ᄀᆞᆺᄀᆞ지 ᄒᆞ야 話頭ᄅᆞᆯ ᄒᆞᆫ 두 소리ᄅᆞᆯ 擧ᄒᆞ야 「擧ᄂᆞᆫ ᄆᆞᅀᆞ마연저 가져실씨라」 ᄌᆞ오로미 믈러니거든 샹녯 양ᄋᆞ로 안조미 맛당ᄒᆞ니라.(몽산 2-3)

. ᄒᆞ다가 믈러가디 아니커든 믄득 ᄯᅡ해 ᄂᆞ려두ᅀᅥ 열거를 믈거러 누니 ᄀᆞᆺᄀᆞᆺ거든 ᄯᅩ 안자 ᄀᆞ장 話頭ᄅᆞᆯ ᄉᆞᆯ펴보며 時常애 疑心을 더니르와다.(몽산 3)

. 오라면 工夫ㅣ 니거 반ᄃᆞ기 能히 힘 ᄲᅮ미 져그리라.(몽산 4)

. 工夫ᄅᆞᆯ ᄒᆞ약 ᄆᆞᅀᆞᄆᆞᆯ ᄇᆡ 話頭ᄅᆞᆯ 擧티 아니ᄒᆞ야도 自然히 나든 ᄲᅴ 니르러는 境界와 ᄯᅩ 몸과 ᄆᆞᅀᆞᆷ괘 다 녜 ᄀᆞᆫ디 아니ᄒᆞ며 ᄉᆞᄆᆡ도 ᄯᅩ 話頭ᄅᆞᆯ 연즈리니 이런 時節에 키 아로미 갓가ᄇᆞ리라.(몽산 4)

. ᄯᅩ ᅀᆞᄆᆞᆯ 가져 아로ᄆᆞᆯ 기들우디 마롤디니라.(몽산 5)

. 오직ᄒᆞ니거나 ᄀᆞ마니 잇거나 호매 모ᄃᆡ 工夫ᄅᆞᆯ 그춤 업게 호리니 自然히 더러ᄇᆞᆫ 境界ᄂᆞᆫ 드디 아니코 眞實ㅅ 境界ᄂᆞᆫ 날로 더어 漸漸無明 허롫히미 이시리라.(몽산 5)

. 히미 充實ᄒᆞ며 너브면 疑團이 헐며「團은 무저기라」 無明이 헐리니 無明이 헐면 곧 微妙ᄒᆞᆫ 道理ᄅᆞᆯ 보리라.(몽산 6)

. 參禪은 조ᅀᆞᄅᆞᄫᅵ요미 ᄉᆞᆷᄉᆞᆷ호매 잇ᄂᆞ니 靈利ᄒᆞᆫ 사ᄅᆞ미 몬져 公案애 ᄉᆞᆯ펴 正ᄒᆞᆫ 疑心이 잇거든「靈利ᄂᆞᆫ ᄂᆞᆯ날씨라. 公案은 그 윗글와리니 사ᄅᆞ미 다 從ᄒᆞᆯ씨 話頭ᄅᆞᆯ 公案이라 ᄒᆞ니라」 ᄯᅩ ᄲᅳᆫᄅᆞ도 아니ᄒᆞ며 늣도 아니ᄒᆞ야 話頭ᄅᆞᆯ 擧ᄒᆞ야 隱密히 光ᄋᆞᆯ 두르혀 제 보면 주ᄇᆡ키 아로ᄆᆞᆯ 得ᄒᆞ야 몸과 ᄆᆞᆷ괘 便安ᄒᆞ리라.「光은 비치니 ᄆᆞᅀᆞᄆᆞᆯ 니ᄅᆞ니라」(몽산 6-7)

. ᄒᆞ다가 ᄆᆞᅀᆞᆷ ᄲᅮ미 가ᄀᆞᆨᄒᆞ면 ᄆᆞᅀᆞᆶ 조기 뮈여 血氣 調和티 몯ᄒᆞᆫ 等엣 病이 나리니 正ᄒᆞᆫ 길히 아니라.(몽산 7) * 가ᄀᆞᆨᄒᆞ다 = 急ᄒᆞ다

. 오직 正ᄒᆞᆫ 信心ᄋᆞᆯ 發ᄒᆞ야 眞實 ᄆᆞᅀᆞ매 疑心이 이시면 自然히 話頭ㅣ 나ᄐᆞ리라.(몽산 8)

. ᄒᆞ다가 히믈 ᄇᆡ 話頭ᄅᆞᆯ 擧호매 干涉ᄒᆞᆫ ᄲᅴᆫ 工夫ㅣ 히믈 얻디 몯ᄒᆞ리라.(몽산 8)

. ᄒᆞ다가 ᄃᆞ니거나 ᄀᆞ마니 잇거나 호매 疑心ᄒᆞ논 公案이 흔디 아니하며 다완디 아니ᄒᆞ며 話頭ㅣ ᄲᅳᄅᆞ디 아니ᄒᆞ면 늣디 아니ᄒᆞ야 自然히 나ᄃᆞ면 이러ᄒᆞᆫ 時節에ᅀᅡ 工夫ㅣ 히믈 어드리라.(몽산 8-9)

. ᄯᅩ 모로매 이 念을 護持ᄒᆞ야 샹녜 닛게 ᄒᆞ야 안즌 中에 다시 定力으로 서르 도보미 조ᄉᆞᄅᆞᄫᅵ니라.(몽산 9)

. 믄득 맛ᄃᆞ로매 ᄆᆞᅀᆞ맷 길히 ᄒᆞᆫ 디위 그츠면 곧 키 아로미 이시리니 「築着磕着은 맛ᄃᆞᆫ다 ᄒᆞ논 마리니 工夫ㅣ 니거 ᄭᅵᄃᆞᄅᆞᆶ 時節이니 녜 香嚴和尙이 工夫ㅣ 至極ᄒᆞ야셔 忽然히 집터 닷다가 ᄌᆡ벽으로 대수ᄐᆞᆫ 소리예 알며 靈雲和尙도 工夫ㅣ 至極ᄒᆞ야셔 挑花ㅅ 곳 보고 아니다 이 築着磕着ᄋᆞᆯ 디내야ᅀᅡ 아ᄅᆞ시니라」 알모ᅀᅡ 다시 안 後ㅅ일 ᄃᆞᆯᄒᆞᆯ 무르라.(몽산 9-10)

. 參禪은 모로매 祖師ㅅ 關ᄋᆞᆯ ᄉᆞᄆᆞ차ᅀᅡᄒᆞ리며 「關은 마ᄀᆞᆯ 싸히라」 微妙히 아로ᄆᆞᆫ 모ᄃᆡ ᄆᆞᅀᆞ맷 길히 그추메 다ᄃᆞ라ᅀᅡ ᄒᆞ리니「祖師關은 수ᄇᆡ 몯ᄉᆞᄆᆞ차갊 싸히니 趙州無ㄱ 字ㅣ라.」 祖師關ᄋᆞᆯ ᄉᆞᄆᆞᆺ디 몯ᄒᆞ며 ᄆᆞᅀᆞ맷 길히 긋디 몯ᄒᆞ면 다 프를 브트며 남긔 브튼 精靈이리라.「精靈은 넉시라」(몽산 10-11)

. 즁이 趙州ᄭᅴ 무로ᄃᆡ 가히ᄂᆞᆫ 佛性이 잇ᄂᆞ니잇가 업스니잇가. 趙州ㅣ 닐오ᄃᆡ 업다ᄒᆞ니 오직 이 無ㄱ字ㅣ 宗門엣 ᄒᆞᆫ 關이니 有心으로도 ᄉᆞᄆᆞᆺ디 몯ᄒᆞ며 無心으로도 ᄉᆞᄆᆞᆺ디 몯ᄒᆞ리라.(몽산 11-12)

. ᄉᆞᆲᄉᆞᆲᄒᆞᆫ ᄂᆞᆯ난 사ᄅᆞᄆᆞᆫ 바ᄅᆞ드위텨 趙州의 올긔ᄅᆞᆯ 자바ᄃᆞᆫ 내 마ᄅᆞᆯ 도로 가져오라.(몽산 12)

. ᄒᆞ다가 ᄒᆞᆫ 터럭 긑매나 이시면 門外예 잇거다.(몽산 12)

. 覺圓上座ᄂᆞᆫ 아ᄂᆞᆫ다 모ᄅᆞᄂᆞᆫ다. 微妙ᄒᆞᆫ 아로미 圓滿히 ᄇᆞᆯᄀᆞ란ᄃᆡ 반ᄃᆞ기 趙州ㅣ 엇던 面目인ᄃᆞᆯ 아로리라. 無ㄱ字ᄅᆞᆯ 닐온 ᄠᅳ든 엇데어뇨.(몽산 13)

. 구믈구믈ᄒᆞᄂᆞᆫ 衆生이 다 佛性이 잇거시니 趙州ᄂᆞᆫ 어ᄃᆡᄅᆞᆯ 因ᄒᆞ야 업다 니ᄅᆞ뇨.(몽산 13)

. ᄆᆞᄎᆞ매 이 無ㄱ字ㅣ 어느 고대 잇ᄂᆞ뇨.(몽산 13)

. 本來ㅅ 아로미 ᄇᆞᆰ디 몯ᄒᆞ거든 다 疑心을 두리니 키 疑心ᄒᆞ면 곧키 아로미 이시리니 ᄯᅩ ᄆᆞ

ᄉᆞᆷ 가져 아롬 기드료미 몯ᄒᆞ리며 ᄯᅩ ᄲᅳ드로 아로ᄆᆞᆯ 求호미 몯ᄒᆞ리며 有ㅣ라 無ㅣ라 ᄒᆞ야 아로미 몯ᄒᆞ리며 虛ᄒᆞ야 업슨 거시라 ᄒᆞ야 아로미 몯ᄒᆞ리며 쇠뷔라 ᄒᆞ야 ᄲᅳ디 몯ᄒᆞ리며 나귀ᄆᆡ 말히라 ᄒᆞ야 ᄲᅳ디 몯ᄒᆞ리라.(몽산 13-14) *-키/ -가져

. 疑團이 날로 盛케 하야 二六時中 四威儀內예「二六ᄂᆞᆫ 열둘ᄊᆡ라 四威儀ᄂᆞᆫ 녀며 ᄀᆞ마니 이시며 안ᄌᆞ며 누ᄇᆞ며 호미라」 다ᄆᆞᆫ다ᄆᆞᆫ 無ㄱ字ᄅᆞᆯ 자바 隱密히 心光ᄋᆞᆯ 두르혀 제 보리라.(몽산 15)

. 옳제 보며 갊제 보며 옳제 疑心ᄒᆞ며 갊제 疑心ᄒᆞ야 滋味 ᄀᆞ장 업슨 ᄯᅴ 져기 滋味 이시리니 ᄯᅩ 煩惱 내요미 몯ᄒᆞ리라.(몽산 15-16)

. 疑心이 重ᄒᆞ면 話頭ᄅᆞᆯ 擧티 아니ᄒᆞ야도 自然히 알ᄑᆡ 나ᄃᆞ리니 ᄯᅩ 깃거호미 몯ᄒᆞ리라.(몽산 16)

. ᄒᆞ욱ᄒᆞ며 서의호ᄆᆞᆯ 제혼 조초ᄒᆞ야 바ᄅᆞ 늘근 쥐 골 너흐로 ᄆᆞᆯᄀᆞ티 ᄒᆞ야 오직 無ㄱ字ᄅᆞᆯ 擧ᄒᆞ야 보리라.(몽산 16)

. ᄒᆞ다가 안즌 中에 微妙ᄒᆞᆫ 定力 도ᄇᆞᆯ 어더든 正히 됴히 잡드롫디니 오직 힘써 아니호미 조ᄉᆞᄅᆞᄫᅵ니라.(몽산 16-17)

. ᄒᆞ다가 힘두어 잡들면 定力 境界 흐러디리라.(몽산 17)

. 能히 善히 ᄆᆞᄉᆞᆯ 써 忽然 定에 든 ᄯᅴ ᄯᅩ 定力ᄋᆞᆯ 貪코 話頭 니주미 몯ᄒᆞ리라.(몽산 17)

. ᄒᆞ다가 話頭옷 니즈면 空애 디여 微妙히 아로미 업스리라.(몽산 18)

. 定ᄋᆞᆯ 起ᄒᆞᆫ ᄯᅴ도 ᄯᅩ 모로매 定力을 便安히 護持호리니 뮈나 ᄀᆞ마니 잇거나 호매 ᄒᆞᆫ가지라 ᄌᆞ오롬과 雜念괘 다 그처도 ᄯᅩ 깃븐 ᄆᆞᄉᆞᆷ 내디 마롫디어다.(몽산 18)

. 믄득 화ᄒᆞᆫ논ᄒᆞᆫ 소리예 趙州關ᄋᆞᆯ ᄉᆞᄆᆞᆺ 디나「+地ᄂᆞᆫ 몯 어뎃던 거슬 어더셔 화ᄒᆞ논 소리라」 닐온 말마다 맛당ᄒᆞ야 살와살와ᄂᆞᆯ히 맛ᄃᆞᄅᆞ면「두사리 서르 맛ᄃᆞᆫ다 ᄒᆞ논 마ᄅᆞᆫ 스승과 弟子와 ᄒᆞ야 工夫ㅣ ᄒᆞᆫ가지로ᄆᆞᆯ 니르니라」 正히 모ᄃᆡ 안 後에 사ᄅᆞᆯ 이ᄅᆞᆯ 求호리라.(몽산 18-19) * -로+ㅁ(토씨+ 이름법씨끝이 붙은 경우임-이 경우는 '-ᄒᆞ-'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ᄒᆞ다가 그러티 몯ᄒᆞ면 엇뎨 法器 ᄃᆞ외리오.(몽산 20)

. 녯 聖人냇 보라ᄆᆞᆯ 보미 맛당컨뎡 모ᄃᆡ 杜撰ᄋᆞᆯ 마롫디니 아란다.「杜撰은 杜家ᄋᆡ 撰集이니 實티 아니ᄒᆞᆫ 글와리라」(몽산 20)

. 五祖演 和尙이 衆人을 뵈야 닐오ᄃᆡ 釋迦 彌勒이 오히려 ᄂᆞᄆᆡ 죵이라 ᄒᆞ니 ᄂᆞᄆᆞᆫ 누구.(‘오’가 빠진 듯함)(몽산 20)

. 바ᄅᆞ 아라 맛당히 니ᄅᆞ면 어루 分段 生死를 여희리니 다시 댓그테 어윈 거르믈 나소 드듸여ᅀᅡ 大丈夫의 이룸 ᄆᆞᄎᆞ리라.(몽산 21)

. 惟正 上座ᄂᆞᆫ 能히 아란다 몰란다.(몽산 21) 모ᄅᆞ+ㄴ다(‘ᄂᆞ’의 존재 여부)

. 몯 아라ᄃᆞᆫ 샐리 惺惺히 ᄒᆞ야 眞實 工夫를 ᄒᆞ야 法 다ᄇᆡ 參究ᄒᆞ야키 아로ᄆᆞ로 門에 드로ᄆᆞᆯ 사모리라.「參究ᄂᆞᆫ ᄎᆞᄌᆞᆯ씨라」 =否則急宜惺惺ᄒᆞ야 下眞實工夫ᄒᆞ야 如法參究ᄒᆞ야 以大悟로 爲入門호리라.(몽산 21-22) -키(크다)

. 닐온 參究호ᄆᆞᆫ 반ᄃᆞ기 釋迦 彌勒이 이 부톄시거니 엇던ᄃᆞᆯ 因ᄒᆞ야 오히려 ᄂᆞᄆᆡ 죵이어뇨. ᄆᆞᄎᆞ맨 ᄂᆞᄆᆞᆫ 뉘어뇨 ᄒᆞ야 疑心호리니 疑心이 盛커든 ᄯᅩ ᄂᆞᄆᆞᆫ 뉘어뇨 호ᄆᆞᆯ 擧ᄒᆞ야 光을 두르혀 제 보리라.(몽산 22)

. 모ᄃᆡ 힘ᄲᅮ물 키 時急히 아니홇디니 時急ᄒᆞ면 色心을 뮈워 病이 나리라.= 不要用心大緊이니 緊則動色心ᄒᆞ야 生病ᄒᆞ리라. (몽산 23) -키(크다)=크게

. 키 날회야 호미 외니 날회야 ᄒᆞ면 話頭를 니저 昏沉과 雜念괘 들리라.(몽산 23)

. 조ᄉᆞᆯᄫᅱ요미 그 ᄆᆞᅀᆞᆷ 善히 ᄲᅮ메 잇ᄂᆞ니 正ᄒᆞᆫ 信心을 ᄀᆞ장 發ᄒᆞ야 一切 世間앳 ᄆᆞᅀᆞᆯ ᄀᆞ장 ᄇᆞ리고 ᄉᆞᆲᄉᆞᆯ비 隱密히 話頭를 잡드러 ᄒᆞ면 안ᄌᆞᆫ 中에 ᄆᆞᆺ히믈 수ᄇᆡ 得ᄒᆞ리니 처ᅀᅥᆷ 안ᄌᆞᆶ 저긔 精神을 ᄠᅥ러펴 모ᄆᆞ로 端正히 홇디언뎡 등구표미 몯ᄒᆞ리라.(몽산 23-24)

. 머리를 구즈기 셰오 눉시우를 뮈우디 아니ᄒᆞ야 平常히 누늘 ᄲᅮ리니 눈 ᄌᆞ싀 뮈디 아니ᄒᆞ면 곧 몸과 ᄆᆞᅀᆞᆷ괘 다 寂靜ᄒᆞᆫ 後에ᅀᅡ 定이니라.(몽산 24-25)

. 定中에 ᄯᅩ 모로매 話頭를 알ᄑᆡ 나토오리니 定을 貪코 話頭니주미 몯ᄒᆞ리니 니즈면 空애 디여 도ᄅᆞ혀 定의 어리요ᄆᆞᆯ 니버 올ᄒᆞᆫ 고디 업스리라.(몽산 25)

. 定中에 힘 어두미 쉬브니 ᄯᅩ 모ᄃᆡ ᄉᆞᆲᄉᆞᆯ비ᄒᆞ야 아ᄌᆞᆯ티 아니호리라.(몽산 26)

. 믄득 一切 됴ᄒᆞ며 구즌 境界 現홇 저기 잇거든 다 모ᄃᆡ 뎌를 가졧디 마로리라. =忽有一切好惡境界現時어든 都不要管他ㅣ니라.(몽산 26)

. 話頭ㅣ 分明ᄒᆞ면 아니한더데 境界 自然히 ᄆᆞᆯᄀᆞ리라.(몽산 26)

. 定에 起ᄒᆞᆯ ᄊᆡ ᄌᆞᄂᆞᄌᆞᄂᆞ기 모ᄆᆞᆯ 뮈워 定力을 護持호리니 닐 뮈여ᄒᆞ니 논 中에 話頭를 便安히 디녀 疑心을 잡들면 힘쓰디 아니ᄒᆞ야도 니스며 隱密ᄒᆞ야 그 처딘 ᄡᅵ 업슨 ᄲᅴᆫ 工夫ㅣ 漸漸ᄒᆞᆫ 무저기 ᄃᆞ외야 ᄆᆞᆯ곤 ᄀᆞᆺᆶᄆᆡ햇 므리 ᄆᆞᆯᄀᆞ며 ᄆᆞᆯ고미 곧ᄒᆞ야 비록 ᄇᆞᄅᆞ미 뮈여도다. 이

ᄆᆞᆯᄀᆞᆫ ᄠᅳᆯ겨리리라.(몽산 27)

. 이러ᄒᆞᆫ ᄢᅴ 니르러ᄂᆞᆫ 키 아로미 갓가ᄫᆞ리니 ᄯᅩ ᄆᆞᅀᆞᄆᆞᆯ 가져 아로ᄆᆞᆯ 기들우미 몯ᄒᆞ리라.(몽산 28)

. 모딘 ᄂᆞᄆᆡ게 穿鑿히 求티 말며 모ᄃᆡ 혜아리며 저즈리디 말며 모ᄃᆡ 아로ᄆᆞᆯ 求티 말옥 오직 話頭ᄅᆞᆯ 擧ᄒᆞ야 보리라.「穿鑿은 ᄋᆞᆯ씨라」(몽산 28) * -말+옥(연결어미 '-고/곡/옥')

. ᄒᆞ다가 그 다ᄅᆞᆫ 公案애 疑心이 잇거나 ᄯᅩ 經典에 疑心이 잇거든 다 뫼화 뎌ᄂᆞᆫ 이 뉘어뇨 호매 가져다가 보리라.(몽산 29)

. 한 疑心이 다 와다 發ᄒᆞ야 맛ᄃᆞ라 화ᄒᆞ논 ᄒᆞᆫ 소리예 正ᄒᆞᆫ 누니 여러 ᄇᆞᆯᄀᆞ면 곧 能히 지븨 니르론 말와 機緣에 마ᄌᆞᆫ 말와 ᄉᆞᆲ그티 서르 맛ᄃᆞᆫᄃᆞᆺᄒᆞᆫ 마ᄅᆞᆯ 닐어 여러가짓 機緣ᄋᆞᆯ 아라 아히 잇던 一切 疑心과 마ᄀᆞᆫ 싸히어름 消ᄐᆞᆺᄒᆞ야 나ᄆᆞᆫ 거시 업스리라.(몽산 29-30)

. 法法ᄋᆞᆯ 圓滿히 通達ᄒᆞ야 升堂ᄒᆞ고도 모ᄃᆡ 져기 아로ᄆᆞᆯ 마롫디어다.(몽산 30)

. 다시 오라 너의 나소거러 室에 드롤 이ᄅᆞᆯ ᄀᆞᄅᆞ쳐 大事ᄅᆞᆯ ᄉᆞᄆᆞᆺ 알에호리라.「升堂 入室은 堂애 올아 室에 들씨나 道理 아ᄂᆞᆫ 次第라」(몽산 30)

. 黃檗이 百丈ᄋᆞᆯ 보아ᄂᆞᆯ 馬祖ᄭᅴ 다시 가 절혼 機緣ᄋᆞᆯ 擧ᄒᆞᆫ대 곧 혀ᄅᆞᆯ 비바ᄐᆞ니 이ᄂᆞᆫ 百丈ㅅ 히 ᄆᆞᆯ 得ᄒᆞ니야 馬祖ㅅ 히ᄆᆞᆯ 得ᄒᆞ니야.(몽산 31)

. 巖頭ㅣ 德山ᄋᆞᆯ 보아ᄂᆞᆯ ᄒᆞᆫ 번 喝ᄒᆞᆫ대「喝은 헥ᄒᆞᆯ씨니 ᄇᆡ홇 사ᄅᆞᄆᆡ 혜어료미 다 ᄠᅥ러디긔 우리틸씨라」곧 절ᄒᆞ니 이ᄂᆞᆫ 恩ᄋᆞᆯ 알아라 ᄒᆞ니야 恩ᄋᆞᆯ 갑가라 ᄒᆞ니야.(몽산 31) *-니+야(의문토씨? 씨끝)

. ᄯᅩ 洞山 마ᄅᆞᆯ 對答ᄒᆞ야 닐오ᄃᆡ 내 그 ᄢᅴ ᄒᆞᆫ 소ᄂᆞ로 받고 ᄒᆞᆫ 소ᄂᆞ로 눌로라 ᄒᆞ니 어늬 뎌의 바ᄃᆞ며 누르논곧고.「ᄯᅩ 洞山말 對答호ᄆᆞᆫ 巖頭의 德山 절혼이ᄅᆞᆯ 洞山이 닐오ᄃᆡ 巖頭옷 아니런든 德山ㅅ 喝ᄋᆞᆯ 몯 알리랏다 ᄒᆞ야ᄂᆞᆯ 巖頭ㅣ 그 말 對答ᄒᆞ욘 마리라.(몽산 32) -옷(토씨)/

. 두 늘그늬 骨髓ᄅᆞᆯ ᄉᆞᄆᆞᆺ 보닌댄 곧 됴히 ᄒᆞᆫ 디위 말ᄒᆞ야 여러 方앳 마ᄅᆞᆯ 긋누르리니 네 門의 드다호리라.(몽산 32-33) *--니+ㄴ댄

. ᄒᆞ다가 그러티 몯거든 ᄉᆞᆯ리 參究호미 맛당ᄒᆞ니 ᄒᆞ다가 參究에 干涉홇딘댄 곧 工夫ᄅᆞᆯ 닐옳디니라.(몽산 33)

. 바ᄅᆞ 모로매 本分ᄋᆞᆯ 브터 法 다ᄇᆡᄒᆞ야ᅀᅡ 비로소 올ᄒᆞ리라.(몽산 33)

. 반ᄃᆞ기 本來 參究ᄒᆞ논 公案애 疑心ᄋᆞᆯ 두리니 큰 疑心ㅅ 그텐 반ᄃᆞ기 키 아로미 이시리니

千疑萬疑를 다 ᄒᆞᆫ 疑心을 밍ᄀᆞ라 그 本來 參究에 일우ᄆᆞᆯ 取호리라.(몽산 33-34)

. ᄒᆞ다가 言句에 疑心 아니호미 이 큰 病이니라.(몽산 34)

. 모ᄃᆡ 諸緣을 다 ᄇᆞ리고 네 威儀 內와 두 여슷 ᄢᅴ 다ᄆᆞᆫ다ᄆᆞᆫ 話頭를 자바 光을 두르혀 제 보리라.(몽산 34-35)

. 坐中에 힘 어두미 ᄆᆞᆺ 하니 坐를 法으로 홇디언뎡 눈서블 바ᄅᆞ 보아 누늘 힘뼈 몸과 ᄆᆞᅀᆞᆷ과를 긋눌로ᄆᆞᆯ 모ᄃᆡ 마롫디니라.(몽산 35)

. ᄒᆞ다가 氣力을 힘뼈 ᄒᆞ면 곧 病苦를 어드리라.(몽산 35)

. 오직 모ᄆᆞᆯ 端正히 ᄒᆞ야 正히 안자 平常히 누늘 ᄠᅥ 身心과 境界와를 반다기 도라보디 마롫디니라.(몽산 36)

. ᄒᆞ다가 昏沉과 雜念괘 잇거든 져기 ᄀᆞᆺᄀᆞ지 ᄒᆞ야 ᄒᆞᆫ두 소릿 話頭를 擧ᄒᆞ면 自然 諸魔ㅣ 消滅ᄒᆞ리라.(몽산 36)

. 누니 一定ᄒᆞ면 ᄆᆞᅀᆞ미 一定ᄒᆞ고 ᄆᆞᅀᆞ미 一定ᄒᆞ면 모미 一定ᄒᆞ리니 ᄒᆞ다가 定을 어든 저긔 能ᄒᆞᆫ 일 사모미 몯ᄒᆞ리라.(몽산 36-37)

. ᄒᆞ다가 話頭를 니저 空애 ᄠᅥ디며 寂에 걸면 키 아디 몯ᄒᆞ야 두르혀 큰 病이 ᄃᆞ외리라.(몽산 37)

. ᄒᆞ다가 定中에 아닌 智慧 ᄯᅩ 能히 너브며 커 믈와 뭍과애 다 나ᅀᅡ가리라「믈와 뭍과ᄂᆞᆫ 事理 俱通ᄒᆞᆯ씨라」(몽산 38)

. 工夫ㅣ ᄒᆞ다가 흐워기 ᄒᆞᆫ 디위ᄒᆞ고 서의히 ᄒᆞᆫ 디위 ᄒᆞ야 滋味 업슨 ᄢᅴ 니르거든 正히 거르믈 나ᅀᅡ 드듸여 漸漸 程節에 드롫디니 모ᄃᆡ ᄇᆞ료미 몯ᄒᆞ리라.「程節은 길 녀 가ᄂᆞᆫ ᄆᆞᄃᆡ라」(몽산 38) * 길+녀+가다(?)

. 숣숣ᄒᆞ면 곧 寂靜에 들리니 寂靜ᄒᆞᆫ 後에ᅀᅡ 定이니 定이 各各 일후미 잇ᄂᆞ니 邪도 이시며 正도 잇ᄂᆞ니 아로미 宜커다.(몽산 39)

. 定을 起ᄒᆞᆫ 後에 身心이 輕淸ᄒᆞ야「輕淸은 몸 가비얍고 ᄆᆞᅀᆞᆷ ᄆᆞᆯᆯ씨라」一切處에 힘ᄲᅮ미 져거 뮈여ᄒᆞ니논 中에 ᄒᆞᆫ 무저기 ᄃᆞ회어든 ᄯᅩ 반ᄃᆞ기 字細히 ᄆᆞᅀᆞᄆᆞᆯ 뽏디니라.(몽산 39)

. 工夫를 조차ᄒᆞ야 始와 終과애 靜淨이 至極ᄒᆞ얀 곧 알오조 호미 至極엔 光明이 通達ᄒᆞᄂᆞ니라.(몽산 40)

. 氣韻이 肅靜ᄒᆞ며「肅靜은 괴외ᄒᆞᆯ씨라」家風이 ᄆᆞᆯ가「家風은 ᄆᆞᅀᆞᄆᆞᆯ 니ᄅᆞ니라」뮈며 괴외ᄒᆞᆫ

境界 ᄀᆞᆷᆞᆫ 하ᄂᆞ리 ᄀᆞᆮᄒᆞᆫ ᄇᆡ 이 第一 ᄆᆞᄃᆡ니 곧 그 ᄠᅳᆯ 乘ᄒᆞ야셔 나소거롫디니라.(몽산 40-41)

. ᄆᆞᆯᄀᆞᆫ ᄀᆞᆷᆞᆫ ᄆᆡ햇 므리 ᄀᆞᆮᄒᆞ며 녯 廟쏘뱃 香爐ㅣ ᄀᆞᆮᄒᆞ야 괴외ᄒᆞ며 ᄉᆞᆷᄉᆞᆷᄒᆞ야 ᄆᆞᅀᆞ맷 길히 녀디 아니ᄒᆞᆯ ᄢᅴ 또 幻身이 人間애 잇ᄂᆞᆫ ᄃᆞᆯ 모ᄅᆞ고 오직 話頭옷 니스며 니ᅀᅥ 긋디 아니ᄒᆞᄂᆞᆫ ᄃᆞᆯ 보리니.(몽산 41) *-옷/ -ᄃᆞᆯ/ -ㅣ ᄀᆞᆮᄒᆞ다(토씨 쓰임 유의)

. 이 고대 니르러ᄂᆞᆫ 드트른 將次 긋고 光明은 將次 發ᄒᆞ리니 이 ᄃᆞᆯ찻 ᄆᆞᄃᆡ니라. (몽산 42)

. 이 고대 ᄒᆞ다가 아ᄂᆞᆫ ᄆᆞᅀᆞᆷ곳 내면 純一ᄒᆞᆫ 妙ㅣ 그츠리니 큰 害니라.(몽산 42)

. 이 허믈 업스닌 뮈며 ᄀᆞ마니 이시며 호매 ᄒᆞᆫ가지라 ᄭᅵ며 자며 호매 ᄉᆞᆷᄉᆞᆷᄒᆞ야 話頭ㅣ 알ᄑᆡ 나토ᄃᆡ 므레 ᄉᆞᄆᆞᄎᆞᆫ ᄃᆞᆶ비치 ᄀᆞᆮᄒᆞ야 여흘믌결 中에 이셔 活潑潑ᄒᆞ야「活潑潑은 설설 흐르ᄂᆞᆫ 믌겨레 비췬 ᄃᆞᆶ비츨 닐온 마리니 ᄆᆞᅀᆞ미 聲色애 번득호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다 딜어도 흔디 아니ᄒᆞ며 헤텨도 일티 아니ᄒᆞᆫ ᄢᅴ 가온ᄃᆡ 괴외ᄒᆞ야 이 어디 아니ᄒᆞ며 밧도 이어도 뮈디 아니ᄒᆞ리니 이 세찻 ᄆᆞᄃᆡ니라.=無此過者ᄂᆞᆫ 動靜에 一如ㅣ라 寤寐惺惺ᄒᆞ야 話頭ㅣ 現前호ᄃᆡ 如透水月華在灘浪中ᄒᆞ야셔 活潑潑ᄒᆞ야 觸ᄒᆞ야도 不散ᄒᆞ며 蕩ᄒᆞ야도 不失時예 中寂ᄒᆞ야 不搖ᄒᆞ며 外撼ᄒᆞ야도 不動矣리니 是第三箇程節이니라.(몽산 42-43)

. 疑團이 허러 正ᄒᆞᆫ 눈 ᄲᅮ미 갓가ᄫᅳ리라.(몽산 43)

. 믄득 맛ᄃᆞ로매 啐호미 그츠며 더오미 그처 내 모ᄆᆞᆯ 훤히 ᄇᆞᆯ겨 부텨와 祖師왜 사ᄅᆞᄆᆡ게 ᄆᆡ이샨 고ᄃᆞᆯ 솔기자바든「啐은 ᄃᆞᆯᄀᆡ 알히 이러 ᄀᆞᆺ낧제 우루미라. 더오믄 밤 구ᄒᆞᆶ제 더ᄇᆞᆫ 氣韻이 소배 드러 ᄀᆞᆺ 심통애 들면 ᄠᅮᆨ 퍼달씨니 이ᄂᆞᆫ 見性홇젯 이ᄅᆞᆯ 形容ᄒᆞ니라」또 큰 宗匠ᄋᆞᆯ 보아 불요ᄆᆞᆯ 求ᄒᆞ야 큰 法器 ᄃᆞ외욣디언뎡 져기 得ᄒᆞ고 足사모미 몯ᄒᆞ리라.「宗匠은 善知識이라」(몽산 44)

. 안 後에 ᄒᆞ다가 사ᄅᆞᄆᆞᆯ 보디 몯ᄒᆞ면 後ㅅ 일 아디 몯호ᄆᆞᆯ 免티 몯ᄒᆞ리니 그 害 ᄒᆞ나히 아니니라.(몽산 45)

. ᄒᆞ다가 佛祖ㅅ機緣에 ᄀᆞ린 고디 이시면 이ᄂᆞᆫ 아로미 녀터 ᄀᆞ장 玄妙티 몯ᄒᆞ리라.=惑於佛祖機緣上有碍處是悟淺未盡玄妙ᄒᆞ리라.(몽산 45)

. ᄒᆞ마 ᄀᆞ장 玄妙ᄒᆞ거든 또 모ᄃᆡ 므르거러 光ᄋᆞᆯ ᄀᆞ초며 자최ᄅᆞᆯ ᄀᆞ초아 便安히 養ᄒᆞ야 力量이 오ᄋᆞᆯ며 ᄀᆞ자 大藏經이며 儒와 道ᄅᆞᆯ ᄒᆞ야 ᄇᆞ려 淸淨ᄒᆞ야 ᄀᆞᄉᆡ 업스며 圓明ᄒᆞ야 ᄀᆞ료미 업서ᅀᅡ 어루 노피 ᄂᆞᆯ며 머리드러 거싀 光明이 盛大ᄒᆞ야 先宗ᄋᆞᆯ 더러ᄇᆡ디 아니ᄒᆞ리라.= 旣盡玄妙커든 又要退步ᄒᆞ야 韜晦保養力量이 全備ᄒᆞ야 看過藏敎儒道諸書ᄒᆞ야 消磨多生習氣ᄒᆞ야 淸淨無際圓明ᄒᆞ야 無碍커ᅀᅡ 始可高飛遠擧ᄒᆞ야 庶得光明盛大不辱先宗ᄒᆞ리라.(몽산 46) *-ᄅᆞᆯ ᄒᆞ야 ᄇᆞ려(消를 번역한 것)/ -가자(갖추다)

. ᄒᆞ다가 녯 行履處ᄅᆞᆯ 밧고ᄆᆞᆯ 다 몯 ᄒᆞ면 곧 常 무릐게 디리라.(몽산 46-47) *-의게(-에

다)

. 또 ᄒᆞ다가 말ᄒᆞᆯ ᄲᅴ 아ᄂᆞᆫᄃᆞᆺ ᄒᆞ고 境ᄋᆞᆯ 對ᄒᆞ야 도로 迷ᄒᆞ야 말내요미 醉ᄒᆞᆫ 사ᄅᆞ미 ᄀᆞᆮᄒᆞ며 ᄒᆞ저즈로미 俗子ㅣ ᄀᆞᆮᄒᆞ야「俗子ᄂᆞᆫ 쇼히라」조가ᄀᆞᆯ 그슥ᄒᆞ며 現然ᄋᆞᆯ 아디 몯ᄒᆞ며 말ᄊᆞᄆᆞᆯ 邪正ᄋᆞᆯ 아디 몯ᄒᆞ야 因果ᄅᆞᆯ ᄡᅳ러ᄇᆞ리린댄 至極ᄒᆞᆫ 큰 해니라. =更若設時ᄂᆞᆫ 似悟對境ᄒᆞ얀 還迷出語ㅣ 如醉人ᄒᆞ며 作爲似俗子ᄒᆞ야 機不識隱顯ᄒᆞ며 語ᄅᆞᆯ 不知正邪ᄒᆞ야 撥無因果ᄒᆞ리린댄 極爲大害니라.(몽산 47)

. 몬졋 사ᄅᆞᄆᆡ 正ᄒᆞ며 邪호미 큰 양ᄌᆡ 잇ᄂᆞ니라.(몽산 48)

. 일 ᄆᆞᄎᆞᆫ 사ᄅᆞᄆᆞᆫ 주굼 사로매 能히 麤ᄒᆞᆫ 거슬 밧고아 ᄀᆞᄂᆞᆫ 거슬 사ᄆᆞ며 能히 뎌른 것 밧고아 긴거시 ᄃᆞ외에 ᄒᆞ야 智慧 光明 解脫로ᄡᅥ 一切法ᄋᆞᆯ 냃 三昧ᄋᆞᆯ 得ᄒᆞ리니「智光明 解脫은 見性ᄒᆞᆫ 後에 어둔 三昧ㅅ 일후미라」이 三昧ᄅᆞᆯ ᄡᅳᄂᆞᆫ 젼ᄎᆞ로 意生身ᄋᆞᆯ 得ᄒᆞ야 後ᄅᆞᆯ 向ᄒᆞ야 能히 妙應身ᄋᆞᆯ 得ᄒᆞ리니 道ㅣ 큰 바ᄅᆞ리 ᄀᆞᆮᄒᆞ야 더욱 드디옷 더욱 기프리라.(몽산 48-49)

. 達磨ㅣ 頌ᄒᆞ야 니ᄅᆞ샤ᄃᆡ 부쳣 ᄆᆞᅀᆞᄆᆞᆯ 아로ᄃᆡ ᄒᆞᆫ가지라. 差別이 업고도 行과 解왜 서르 마자ᅀᅡ 일후믈 祖ㅣ라 닐옳디라 ᄒᆞ시니라.(몽산 49)

. 또 宗門中에 부텨ᄭᅴ 더으며 祖師애 너믄 혜아료미 잇다ᄒᆞ야 니르디 말라. 聰上人은 信ᄒᆞ며 信티 아니호ᄆᆞᆫ 後ᄅᆞᆯ 向ᄒᆞ야 自然히 알리라.(몽산 50)

. 僧이 趙州ᄭᅴ 무로ᄃᆡ 가히ᄂᆞᆫ 佛性이 잇ᄂᆞ니잇가 업스니잇가. 趙州ㅣ 닐오ᄃᆡ 업스리라 구물구물ᄒᆞᄂᆞᆫ 衆生이 다 佛性이 잇거시니 趙州ᄂᆞᆫ 므스글 因ᄒᆞ야 업다 닐어뇨.(몽산 50-51) *잇+거+시+ᄂᆞᆯ

. ᄒᆞ다가 趙州禪을 口皮邊으로 ᄉᆞᆯ펴보리라 니ᄅᆞ린댄 다른 나래 쇠 막다히ᄅᆞᆯ 마ᄌᆞ리라.「口皮邊은 마ᄅᆞᆯ 니르니라」(몽산 51)

. 三世諸佛ㅅ 骨髓시며 歷代 祖師ㅅ 眼目ᄋᆞᆯ ᄒᆞᆫ 버네 드러내야 네 面前에 둔ᄃᆞᆯ 곧 아디 몯도다.(몽산 51-52) *-번(의존명사)/-ᄃᆞᆯ

. 性ᄆᆞᄅᆞᆫ 사ᄅᆞ미 ᄒᆞᆫ 엇게예 메여 가면 山僧의 막다히로도 또 너를 티고져 아니ᄒᆞ리니 또 니ᄅᆞ라 마ᄎᆞ매 엇더ᄒᆞ도소뇨.(몽산 52) *-도소-뇨

. 오직 이 無ㄱ字ㅣ 全혀 긑고히 업소ᄃᆡ 져기 긑고히 잇ᄂᆞ니라.(몽산 52) *긑곻(巴鼻)

. 惑이 닐오ᄃᆡ 이ᄂᆞᆫ 목수를 그츰 갈히며 差別智慧ᄅᆞᆯ 열 열쇠라 ᄒᆞᄂᆞ니 三十棒ᄋᆞᆯ 됴ᄐᆡ됴토다.(몽산 53) *惑의 경우--명사로 쓰일 때는 ᄒᆞ다가로 번역되지 않음

. 이ᄂᆞᆫ 賞罰이 비록 맛당히 닐어도 네 어듸 이셔 趙州본다.(몽산 53) * 이셔(실사>허사로?)

. 다 닐오ᄃᆡ 趙州 古佛ㅅ 눈光明이 四天下ᄅᆞᆯ 바취ᄂᆞ다 ᄒᆞᄂᆞ니 無ㄱ字ᄅᆞᆯ 닐온고ᄃᆞᆯ 보건댄 性命이 本色衲子의 소내 디여잇다.(몽산 53-54)

. ᄒᆞᆫ 무렛 사ᄅᆞ미 ᄯᅩ 뎌 無ㄱ字ᄅᆞᆯ 向ᄒᆞ야 滋味ᄅᆞᆯ 춧ᄂᆞ니 엇뎨 平生ᄋᆞᆯ 鈍히 ᄇᆞ리디 아니ᄒᆞ료.(몽산 54)

. 趙州ㅅ ᄂᆞᆯ난 갈히 ᄎᆞᆫ 서릿비치 이륵이륵ᄒᆞ니 혜아려 엇더ᄒᆞ뇨 ᄒᆞ야 무르린댄 모미 分ᄒᆞ야 두그티 ᄃᆞ외러라.(몽산 55)

. 喝ᄒᆞ고 니ᄅᆞ샤ᄃᆡ 愚癡ᄒᆞᆫ 사ᄅᆞᄆᆡ 알ᄑᆡ 쑴 니르디 마롤디니라.(몽산 55)

. ᄯᅩ 우리 님금 庫內예ᄂᆞᆫ 이런 갈히 업스니라. ᄆᆞᄎᆞ매 趙州ᄂᆞᆫ 이 엇던 面目고.(몽산 55)

. 妙喜 닐오ᄃᆡ 이 잇다 업다 혼 無도 아니며 이 眞實로 업다혼 無도 아니라 ᄒᆞ니 ᄯᅩ 妙喜ᄅᆞᆯ 아ᄂᆞᆫ다 모ᄅᆞᄂᆞᆫ다.(몽산 56)

. ᄒᆞ다가 눈곳 ᄀᆞᆺ디 몯ᄒᆞ면 ᄯᅩ 東ᄋᆞ로 혜며 西로 혜아려 더욱 意識을 더으리니 모ᄃᆡ 마롤디니라. 靈利ᄒᆞᆫ 사ᄅᆞᄆᆞᆫ ᄯᅩ 니ᄅᆞ라. 趙州ㅅ ᄠᅳ든 엇더ᄒᆞ뇨.(몽산 56)

. 이제ᄂᆞᆫ 해 닐오ᄃᆡ 無ㄱ字ㅣ 이 쇠뷔라 ᄒᆞᄂᆞ니 趙州ㅅ ᄠᅳ든 果然 그러ᄒᆞ도소니야 아니ᄒᆞ도소니야. 다른 後ㅅ 마ᄅᆞᆯ 쳐마ᄀᆡ오리잇ᄂᆞ니 그르안 먼 사ᄅᆞ미로다. =近來多道호ᄃᆡ 無字是鐵掃箒ㅣ라 ᄒᆞᄂᆞ니 趙州意ᄂᆞᆫ 果如是아 不아 有引他後語ᄒᆞ야 爲證者錯了也瞎漢이로다.(몽산 56-57)

. 쇽졀업슨 ᄇᆡ화 아로ᄆᆞᆯ 디녀셔 祖師心ᄋᆞᆯ 무더ᄇᆞ리디 마롤디어다.喝 =莫將閑學解ᄒᆞ야셔 埋沒祖師心이어다. 喝. (몽산 57)

. 사ᄅᆞ미 닐오ᄃᆡ 無ㄱ字ᄂᆞᆫ 이 나귀 ᄆᆡ욘 말히라 ᄒᆞᄂᆞ니 네 어듸 이셔 ᄭᅮ메나 趙州ᄅᆞᆯ 본다. 無閒業ᄋᆞᆯ 쳐 나소디 아니코져 ᄒᆞ린댄 如來ㅅ 正法輪ᄋᆞᆯ 誹謗티 마롤디니라.(몽산 57-58)

. 하나한 외다ᄒᆞᄂᆞᆫ 病을 다 거더 ᄇᆞ려니 ᄆᆞᄎᆞ매 이 無ㄱ字ᄂᆞᆫ 어느 고대 잇ᄂᆞ뇨.(몽산 58)

. 이 無ㄱ字ᄂᆞᆫ 有心과 無心괘 다 ᄉᆞᄆᆞᆺ디 몯ᄒᆞᄂᆞ니라.「有心無心은 有心人 無心人이라 ᄒᆞᄂᆞᆫ 마리라.」(몽산 58)

. 목수믈 ᄇᆞ리고 擧티 아니ᄒᆞᆫ 前ᄋᆞ로 向ᄒᆞ야 누늘 ᄠᅥ 믄득 다시 ᄭᅵ야나ᄆᆞᆫ 곧 업시 ᄉᆞᄆᆞᆺ 일면 一千七百則 公案ᄋᆞᆯ 뉘네 面前ᄋᆞᆯ 向ᄒᆞ야 자바내리오.「則은 法則이라」(몽산 59)

. 모ᄃᆞᆫ 부텨와 祖師왓 大機「体라」 大用이언 神通과 三昧와 三玄과「体」 三要와 種種 差別智와 一切無碍慧 다 이ᄅᆞᆯ 從ᄒᆞ야 나ᄂᆞ니라.「三玄은 体中玄 句中玄 中玄 三要ᄂᆞᆫ 三句ㅣ라. 다

ᄆᆞᅀᆞ매 세 가지론 고ᄃᆞᆯ 니르니라」(몽산 59-60)

. 비록 그러나 어늬 너의 自己오.「自己ᄂᆞᆫ ᄆᆞᅀᆞ미라」(몽산 60)

. ᄒᆞᆫ 大藏敎ㅣ 이 사ᄅᆞᆫ 거시어시니 아래 이 無ㄱ字도 사기도소니야.(몽산 60) *-야(의문씨끝)

. 靈利ᄒᆞᆫ 사ᄅᆞ미 바ᄅᆞ 드위텨 自己ᄅᆞᆯ 훤히 ᄇᆞᆯ겨 趙州ᄅᆞᆯ 자ᄇᆞ며 부텨와 祖師왜 사ᄅᆞᄆᆡ게 ᄆᆡ이샨 고ᄃᆞᆯ 긋 알면 네 大藏敎ㅣ 瘡腫 스저ᄇᆞ룐 ᄌᆞᆨ히라 닐오ᄆᆞᆯ 올타 호리라.(몽산 61)

. 비록 그러ᄒᆞ나 이 無ㄱ字ᄂᆞᆫ 어느 고ᄃᆞᆯ 從ᄒᆞ야나뇨.(몽산 61)

. 이ᄀᆞ티 無ㄱ字ᄅᆞᆯ 도도아 보건댄 므슴 奇特이 잇ᄂᆞ뇨.(몽산 61)

. 宗門中에 하나ᄒᆞᆫ 公案이 도ᄅᆞ혀 조ᅀᆞᄅᆞᄇᆡ요미 이 無ㄱ字애셔 너므니 잇ᄂᆞ니야 업스니야.(몽산 62) *-야(의문)/ -애셔(토씨)

. ᄒᆞ다가 잇ᄂᆞ닌댄 엇뎨 이 양ᄋᆞ로 뎌ᄅᆞᆯ 差等ᄒᆞ야 論量ᄒᆞ며 ᄒᆞ다가 업스닌댄 趙州 아니이신 저긔 엇뎨 佛祖ㅣ 업스리오.(몽산 62)

. 눈 ᄀᆞᄌᆞᆫ 衲僧ᄋᆞᆫ ᄒᆞᆫ 點도 소교미 어려ᄇᆞ니 ᄉᆞᆯ리 니ᄅᆞ라.(몽산 62-63)

. 坐禪이라호ᄆᆞᆫ 모로매 至極 올ᄒᆞᆫ 고ᄃᆞᆯ 通達ᄒᆞ야 반ᄃᆞ기 ᄉᆞᆷᄉᆞᆯ비ᄒᆞᆯ 씨니 思想ᄋᆞᆯ 그처 ᄇᆞ리고 昏沉에 디디 아니ᄒᆞᆯ씨 坐ㅣ오 欲애 이쇼ᄃᆡ 欲 업스며 塵에 이쇼ᄃᆡ 塵ᄋᆞᆯ 여흴ᄊᆞᆯ 禪이오, 밧고로도 노하 드리디 아니ᄒᆞ며 안ᄒᆞ로도 노하내디 아니ᄒᆞᆯ씨 坐ㅣ오, 住着 업스며 브튼ᄃᆡ 업서 샹녜 光明이 알ᄑᆡ 나ᄃᆞᆯ씨 禪이오, 밧고로셔 이어도 뮈디 아니ᄒᆞ며 가온ᄃᆡ 괴외ᄒᆞ야 이어디 아니ᄒᆞᆯ씨 坐ㅣ오 光ᄋᆞᆯ 두르혀 도라 비취여 法의 根源ᄋᆞᆯ 알ᄊᆞᆯ 禪이오, 이 惱亂ᄋᆞᆯ 닙디 아니ᄒᆞ며 聲과 色과의 옮교ᄆᆞᆯ 닙디 아니호ᄆᆞᆯ 坐ㅣ오, 어드ᄇᆞᆫᄃᆡ 비취면 ᄇᆞᆯ고미 日月에셔 더으고 物을 敎化홇디면 히미 乾坤에 느르로ᄆᆞᆯ 禪이오, 差別 잇ᄂᆞᆫ 境에셔 差別 업슨 定에 들씨 坐ㅣ오, 差別 업슨 法에셔 差別 잇ᄂᆞᆫ 智ᄅᆞᆯ 뵐씨 禪이라.(몽산 63-65)

. 뫼화 니르건댄 熾然히 ᄒᆞ저즈로ᄃᆡ 正体如如ᄒᆞ야 縱커나 橫커나 호매 妙ᄅᆞᆯ 得ᄒᆞ야 일이레 ᄀᆞ료미 업슬ᄊᆞᆯ 禪이라 ᄒᆞᄂᆞ니라.「熾然은 ᄀᆞ장 盛ᄒᆞᆯ씨라. 縱橫은 고ᄃᆞ며 빗글씨라」(몽산 66)

. 잢간 닐오ᄆᆞᆫ 이러커니와 字細히 닐옳딘댄 ᄌᆞᆨ히와 먹과로 能히 다 니르디 몯ᄒᆞ리라.(몽산 66)

. 那伽大定ᄋᆞᆫ 寂靜도 업스며 어즈러ᄇᆞᆷ도 업스며 眞如妙体ᄂᆞᆫ 滅도 업스며 生도 업서「那伽ᄂᆞᆫ 龍이라」보ᄃᆡ 보디 몯ᄒᆞ며 드로ᄃᆡ 듣디 몯ᄒᆞ며 空호ᄃᆡ 空이 아니며 有ㅣ로ᄃᆡ 有ㅣ 아니라.(몽산 67)

. 크ᄆᆞ론 밧 업시 ᄲᅳ리고져 ᄆᆞ론 안 업시드니 神通과 智慧와 光明과 壽量과 大機와 大用괘 다 오미 업스니 ᄠᅳᆮ뒷ᄂᆞᆫ 사ᄅᆞᄆᆞᆫ 이대 參究ᄒᆞ야 ᄉᆞᆯ리 ᄀᆞᆺᄀᆞ지ᄒᆞ야 키 아로ᄆᆞ로 門에 드로ᄆᆞᆯ 사ᄆᆞᆷᄃᆡ니라.(몽산 67-68)

. 화ᄒᆞᄂᆞᆫ ᄒᆞᆫ 소릿 後에 하나ᄒᆞᆫ 靈妙ㅣ 다 自然히 具足ᄒᆞ리라.(몽산 68)

. 엇뎨 邪魔外道의 서르 傳受호ᄆᆞ로 스승 弟子 사ᄆᆞ며 이로ᄆᆞ로 究竟을 삼ᄂᆞᆫ 사ᄅᆞᄆᆞ로 ᄀᆞᆮᄒᆞ리오.(몽산 68-69)

. 念이 닐며 念이 滅호ᄆᆞᆯ 生死ㅣ라 니ᄅᆞᄂᆞ니 生死ㅅ 고ᄃᆞᆯ 當ᄒᆞ야 모로매 히믈 ᄀᆞ장ᄒᆞ야 話頭ᄅᆞᆯ 擧호리니 話頭ㅣ ᄒᆞᆫᄀᆞᆯᄋᆞᆫᄒᆞ면 起ᄒᆞ며 滅호미 업스리라.(몽산 69)

. 起ᄒᆞ며 滅호미 곧 그츤 고ᄃᆞᆯ 닐오ᄃᆡ 寂이라 ᄒᆞᄂᆞ니 괴외ᄒᆞᆫ 中에 話頭옷 업스면 無記라 니ᄅᆞᄂᆞ니라.「無記ᄂᆞᆫ 아ᄌᆞᆯᄒᆞᆯ씨라」(몽산 70)

. 괴외ᄒᆞᆫ 中에 話頭ᄅᆞᆯ 어즐티 아니ᄒᆞ면 닐오ᄃᆡ 靈이라 ᄒᆞᄂᆞ니 이 空寂과 靈知왜 허도 아니ᄒᆞ며 어즈럽도 아니ᄒᆞ야 이 양ᄋᆞ로 工夫ᄅᆞᆯ ᄡᅳ면 날 몯ᄒᆞ야셔 일리라.(몽산 70)

---蒙山和尙法語略錄終 ----

자료 제공: 한말연구학회
자료 입력: 허재영 회원
자료 내용: 금강경언해(건)

金剛經諺解 건

◉ 金剛經은 相 업수므로 宗 사ᄆᆞ시고 住 업수므로 體 사ᄆᆞ시고 微妙ᄒᆞᆫ 有로 用 사ᄆᆞ시니 達磨ㅣ 西로 오샴브터 이 經ㅅ ᄠᅳ들 爲ᄒᆞ야 傳ᄒᆞ샤 사ᄅᆞᄆᆞ로 理ᄅᆞᆯ 알며 性을 보게 ᄒᆞ야시ᄂᆞᆯ 오직 世人이 제 性 보디 몯호ᄆᆞᆯ 爲ᄒᆞ샤 이런ᄃᆞ로 見性ㅅ 法을 셰시니 世人이 ᄒᆞ다가 眞如 本體ᄅᆞᆯ ᄉᆞᄂᆡᆺ 보면 곧 法 셰요ᄆᆞᆯ 븐디 아니ᄒᆞ시리라.(금강 건 서: 5)

◉ 이 經을 讀誦ᄒᆞ리 數 업스며 稱讚ᄒᆞ리 ᄀᆞᆺ 업스며 蹂 지스며 注ᄒᆞ야 사기리 믈읫 八百餘家ㅣ로ᄃᆡ 닐온 道理 各各 보ᄆᆞᆯ 조ᄎᆞ니 보미 비록 ᄀᆞᆮ디 아니ᄒᆞ나 法은 곧 둘 업스니라.(금강 건 서: 5-6)

◉ 아ᄃᆡ 시믄 上根은 ᄒᆞᆫ 번 듣고 곧 알어니와 ᄒᆞ다가 아ᄅᆡᆺ 慧 업스면 讀誦호미 비록 하나 부텻 ᄠᅳᆮ 아디 몯ᄒᆞᄉᆞ오릴씨 이럴씨 聖人ㅅ ᄠᅳ들 사겨 學者ᄋᆡ 疑心을 그처 ᄇᆞ리노니 ᄒᆞ다가 이 經에 ᄠᅳ들 得ᄒᆞ야 疑心 업스면 사겨 닐오ᄆᆞᆯ 븐디 아니ᄒᆞ리라.(금강 건 서: 6)

◉ 우브터 如來ㅅ 니ᄅᆞ샨 善法은 凡夫의 不善ᄒᆞᆫ ᄆᆞᅀᆞᆷ 더루믈 爲ᄒᆞ시니 經은 이 聖人ㅅ 마리시니 사ᄅᆞᄆᆞᆯ 듣게 ᄒᆞ샤 凡을 브터 聖을 아라 迷ᄒᆞᆫ ᄆᆞᄉᆞᄆᆞᆯ 永히 긋게 ᄒᆞ시니 이 一卷 經은 衆生 性中에 本來 잇건마ᄅᆞᆫ 제 보디 몯ᄒᆞ닌 오직 文字ᄲᅮᆫ 讀誦ᄒᆞᄂᆞ니 ᄒᆞ다가 本心을 알면 비로서 이 經이 文字애 잇디 아니ᄒᆞᆫᄃᆞᆯ 알리니 ᄒᆞ다가 能히 自性을 ᄇᆞᆯ기 알면 비르서 一切 諸佛이 이 經브터 나샨 ᄃᆞᆯ 알리니..(금강 건 서: 6)

◉ 이제 世人이 몸 밧긔 부텨 어드며 밧ᄀᆞᆯ 向ᄒᆞ야 經을 求ᄒᆞ고 안 ᄆᆞᄉᆞᄆᆞᆯ 發티 아니ᄒᆞ며 앉 經을 디니디 아니ᄒᆞᆯ까 저허 이럴씨 이 訣을 지ᅀᅥ 모ᄃᆞᆫ 學者ㅣ 안 ᄆᆞᅀᆞᆷ 經을 디녀 ᄇᆞᆯ기 제 보아 淸淨 佛心이 數量애 너머 不可思議케 ᄒᆞ노니 後엣 學者ㅣ 經을 닐거 疑心 잇ᄂᆞ니 이 사긴 ᄠᅳ들 보면 疑心이 노가 ᄂᆞ외 訣을 ᄠᅳ디 아니ᄒᆞ리니 ᄇᆞᄅᆞᄆᆞᆫ 學者ㅣ 다 鑛中엣 金性을 보아 「鑛은 쇠 불이ᄂᆞᆫ 돌히라」 智慧 火로 노겨 鑛이 업고 金이 잇게 호미니라.(금강 건 서 : 6)

◉ 우리 釋迦 本師ㅣ 金剛經 니ᄅᆞ실ᄊᆡ 舍衛國에 겨샤 須菩提의 묻ᄌᆞ옴 니ᄅᆞ와도ᄆᆞᆯ 因ᄒᆞ샤 부톄 大悲로 爲ᄒᆞ야 닐어시ᄂᆞᆯ 須菩提ㅣ 法 듣ᄌᆞᆸ고 아로ᄆᆞᆯ 得ᄒᆞ야 부톄 法을 주샤 일훔 지흐샤ᄆᆞᆯ 請ᄒᆞᄉᆞ와 後人으로브터 受持케 ᄒᆞ니 이럴씨 經에 니ᄅᆞ샤ᄃᆡ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 經 일후미 金剛般若波羅密이니 이 일후ᄆᆞ로 네 반ᄃᆞ기 奉持ᄒᆞ라 ᄒᆞ시니 (금강 건 서: 7)

◉ 如來 니ᄅᆞ샨 金剛 般若 波羅密이 法을 주샤 일훔 ᄒᆞ샨 그 ᄠᅳ든 엇뎨오.(금강 건 서: 7)

◉ 金剛은 世界ㅅ 보ᄇᆡ라 그 性이 勇猛코 ᄂᆞᆯ나 能히 한 物을 허ᄂᆞ니 金이 비록 至極 구드나 羚羊角이 能히 허ᄂᆞ니 金剛은 佛性을 가ᄌᆞᆯ비시고 羚羊角은 煩惱ᄅᆞᆯ 가ᄌᆞᆯ비시니 金이 비록 구드나 羚羊角이 能히 ᄇᆞᄉᆞ며 佛性이 비록 구드나 煩惱ㅣ 能히 어즈러며 煩惱ㅣ 비록 구드나 般若智 能히 헐며 羚羊角이 비록 구드나 賓鐵이 能히 허ᄂᆞ니 이 理 알리ᅀᅡ ᄇᆞᆯᄀᆡ 性을 보리니 涅槃經에 닐오ᄃᆡ 佛性 보닌 衆生이라 일훔 아니ᄒᆞ고 佛性 보디 몯ᄒᆞ닐ᅀᅡ 이 일후미 衆生이라 ᄒᆞ니라.(금강 건 서:

7)

◉ 如來 니ᄅᆞ샨 金剛 가ᄌᆞᆯ뵤ᄆᆞᆫ 오직 世人이 性이 堅固ㅣ 업서 이베 비록 經을 외오나 光明이 나디 몯고 밧ᄀᆞ로 외오고 안ᄒᆞ로 行ᄒᆞ야ᅀᅡ 光明이 ᄀᆞᄌᆞ기 等ᄒᆞ며 안해 堅固ㅣ 업스면 定慧 곧 업고 이베 외오고 ᄆᆞᅀᆞ매 行ᄒᆞ야ᅀᅡ 定慧 골오 等ᄒᆞᄂᆞ니 이 일후미 究竟이라. (금강 건 서: 7)

◉ 金이 山中에 이쇼매 山이 이 보빈ᄃᆞᆯ 아디 몯ᄒᆞ며 보ᄇᆡ도 ᄯᅩ 이 山인ᄃᆞᆯ 아디 몯ᄒᆞᄂᆞ니 엇뎨어뇨. 性 업수믈 爲ᄒᆞᆫ 젼ᄎᆡ라.(금강 건 서: 7)

◉ 사ᄅᆞᄆᆞᆫ 性 이셔 보ᄇᆡ를 取ᄒᆞ야 ᄲᅮᄃᆡ 金師를 맛나 山을 파 허러 鑛을 取ᄒᆞ야 노겨 精金을 일워 ᄡᅳ들 조차 ᄡᅥ 艱難ᄒᆞᆫ 受苦 여희요ᄆᆞᆯ 得ᄒᆞᄂᆞ니 四大身中에 佛性도 ᄯᅩ 그러ᄒᆞ니 身은 世界를 가ᄌᆞᆯ비시고 人我ᄂᆞᆫ 山을 가ᄌᆞᆯ비시고 煩惱ᄂᆞᆫ 鑛을 가ᄌᆞᆯ비시고 佛性은 金을 가ᄌᆞᆯ비시고 智慧ᄂᆞᆫ 工匠을 가ᄌᆞᆯ비시고 精進 勇猛은 포ᄆᆞᆯ 가ᄌᆞᆯ비시니 身世界中에 人我山이 잇고 人我山中에 煩惱鑛이 잇고 煩惱鑛中에 佛性寶ㅣ 잇고 佛性寶中에 智慧工匠 잇ᄂᆞ니 智慧工匠을 ᄡᅥ 人我山을 파 허러 煩惱鑛을 보아 覺悟火로 노겨내 金剛佛性이 了然히 ᄇᆞᆯᄀᆞ며 조ᄒᆞᆫ달 볼씨 이런ᄃᆞ로 金剛ᄋᆞ로 가ᄌᆞᆯ비시고 因ᄒᆞ야 일훔ᄒᆞ시니 ᄒᆞᆫ갓 알오 行티 아니ᄒᆞ면 일훔 이쇼ᄃᆡ 體 업고 義를 알오 行을 닷ᄀᆞ면 일훔과 體왜 다 ᄀᆞᄌᆞ리니 닷디 아니ᄒᆞ면 곧 凡夫ㅣ오 닷ᄀᆞ면 곧 聖智 ᄀᆞᆮᄒᆞ릴씨 일후믈 金剛이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서: 8)

◉ 엇뎨 일후미 般若이오.(금강 건 서: 8)

◉ 이ᄂᆞᆫ 梵語ㅣ니 唐 마랜 智慧라. 智ᄂᆞᆫ 어린 ᄆᆞᅀᆞᆷ 니ᄅᆞ왇디 아니ᄒᆞ미오 慧ᄂᆞᆫ 方便 이쇼미니 慧ᄂᆞᆫ 이 智의 體오 智ᄂᆞᆫ 이 慧의 用이니 體 ᄒᆞ다가 慧 업스면 어료ᄆᆞᆯ ᄡᅩ고 智 업ᄉᆞ니 오직 어리여 아디 몯ᄒᆞ닐 爲ᄒᆞ샤 이럴씨 智慧를 닷ᄀᆞ샤 더르시니라.(금강 건 서: 8)

◉ 엇뎨 일후미 波羅密이오.(금강 건 서: 8)

◉ 唐 마랜 뎌 ᄀᆞᅀᅢ 가ᄆᆞᆫ 生滅 여흰 ᄠᅳ디니 오직 世人이 性이 堅固 업수믈 브터 一切法上애 生滅相이 이셔 諸趣에 흘러 眞如地예 가디 몯ᄒᆞᄂᆞ니 다 이 이ᄀᆞᄉᆡ니 모로매 큰 智慧 ᄀᆞ자 一切法에 圓滿ᄒᆞ야 生滅相을 여희욜띠니 곧 이 뎌 ᄀᆞᅀᅢ 가미라.(금강 건 서: 8-9)

◉ ᄯᅩ 닐오ᄃᆡ ᄆᆞᅀᆞ미 迷ᄒᆞ면 이 ᄀᆞᄉᆡ오 ᄆᆞᅀᆞ미 알면 뎌 ᄀᆞᄉᆡ며 ᄆᆞᅀᆞ미 邪ᄒᆞ면 이 ᄀᆞᄉᆡ오 ᄆᆞᅀᆞ미 正ᄒᆞ면 뎌 ᄀᆞᄉᆡ라 이베 니ᄅᆞ고 ᄆᆞᅀᆞ매 行ᄒᆞ면 곧 내 法身이 波羅密 이쇼미오 이베 니ᄅᆞ고 行티 아니ᄒᆞ면 곧 波羅密 업수미니라.(금강 건 서: 9)

◉ 엇뎨 일후미 經고.(금강 건 서: 9)

◉ 經은 길히니 이 부텨 ᄃᆞ외욜 길히니 믈읫 사ᄅᆞ미 이 길헤 다ᄃᆞ로려 홀띤댄 반ᄃᆞ기 안해 般若行을 닷가 究竟에 니르롤띠니 ᄒᆞ다가 오직 能히 외와 니를 ᄲᅮᆫᄒᆞ고 ᄆᆞᅀᆞ매 브터 行티 아니ᄒᆞ면 제 ᄆᆞᅀᆞ미 經이 업고 實히 보아 實히 行ᄒᆞ면 제 ᄆᆞᅀᆞ미 經이 이시릴씨 이 經을 如來ㅣ 일후믈 金剛般若 波羅密이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서 :9)

<金剛般若波羅密經>

◉ 이 ᄀᆞᆮ호ᄆᆞᆯ 내 듣ᄌᆞ오니 = 如是ᄅᆞᆯ 我聞ᄒᆞᅀᆞ오니 (금강 건 1)

☞ 如ᄂᆞᆫ ᄀᆞᄅᆞ치ᄂᆞᆫ ᄠᅳ디오 是ᄂᆞᆫ 一定혼 마리니 阿難이 ᄌᆞ계 닐오ᄃᆡ 이 ᄀᆞᆮ흔 法을 내 부텨를 좃ᄌᆞ와 드로라 ᄒᆞ니 내 말 아닌ᄃᆞᆯ ᄇᆞᆯ기니 이럴ᄊᆡ 닐오ᄃᆡ 如是 我聞이라. ᄯᅩ 나ᄂᆞᆫ 性이니 性이 곧 내니 안팟 動作이 다 性을 브터 一切ᄅᆞᆯ 다 드ᄅᆞᆯᄊᆡ 我聞이라 니ᄅᆞ니라.(금강 건 1)

◉ 一時예 부톄 舍衛國 祇樹給 孤獨園에 겨샤 = 一時이 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ᄒᆞ샤 (금강 건 1)

☞ 一時라 닐오ᄆᆞᆫ 스숭과 弟子왜 모다 맛나 ᄀᆞᄌᆞ기 모ᄃᆞᆫ ᄢᅴ라. 佛은 이 說法ᄒᆞ시ᄂᆞᆫ 主ㅣ시고 겨시다 호ᄆᆞᆫ 處所ᄅᆞᆯ ᄇᆞᆯ기고져 ᄒᆞ니라. 舍衛國은 波斯匿王ᄋᆡ 사ᄂᆞᆫ 나라히라. 祇陀 太子ㅅ 施혼 거실ᄊᆡ 祇樹ㅣ라 니ᄅᆞ니라. 給孤獨은 須達의게 屬ᄒᆞᆯᄊᆡ 給孤獨園이라 니ᄅᆞ니라. 佛은 梵音이니 唐 마랜 覺 ᄠᅳ디 둘히 잇ᄂᆞ니 ᄒᆞ나ᄒᆞᆫ 밧 覺이니 諸法의 空ᄋᆞᆯ 觀ᄒᆞᆯᄊᆡ오 둘흔 안覺이니 ᄆᆞᅀᆞᄆᆡ 空ᄋᆞᆯ 寂을 아라 六塵의 더러요ᄆᆞᆯ 닙디 아니ᄒᆞ야 밧그로 사ᄅᆞᄆᆡ 허므를 보디 아니ᄒᆞ며 안ᄒᆞ로 邪迷의 惑호ᄆᆞᆯ 닙디 아니ᄒᆞᆯᄊᆡ 일후믈 ᄉᆞᆯ오ᄃᆡ 覺이니 覺이 곧 이 佛이시니라.(금강 건 2-3)

◉ 큰 比丘衆 千二百 五十人과 ᄒᆞᆫᄃᆡ 겨시더니 = 與大比丘衆 千二百五十人과 俱ㅣ러시니 (금강 건 3)

☞ 與ㅣ라 ᄉᆞᆯᄫᅩᄆᆞᆫ 부톄 比丘와 金剛 般若 無相 道場애 ᄒᆞᆫᄃᆡ 겨실ᄊᆡ ᄉᆞᆯ오ᄃᆡ 與ㅣ라. 大比丘는 이 大阿羅漢인 젼ᄎᆡ라. 比丘는 이 梵語ㅣ니 唐마랜 能히 六賊 破호미니 그럴ᄊᆡ 일후미 比丘ㅣ라. 衆은 할씨라. 千二百 五十人은 그 數ㅣ라. 俱는 平等 法會예 ᄒᆞᆫᄃᆡ 겨실씨라.(금강 건 3)

◉ 그 ᄢᅴ 世尊이 食時예 옷 니브시고 바리 가지샤 舍衛大城에 드르샤 그 城中에 밥 비르샤 = 爾時 世尊이 食時예 若衣持鉢ᄒᆞ샤 入舍衛大城ᄒᆞ샤 乞食於其城中ᄒᆞ샤 (금강 건 3)

☞ 爾時ᄂᆞᆫ 예 當ᄒᆞᆫ 時節이니 이 이젯 辰時니 齋時ㅣ ᄒᆞ마 니를쩌기라. 옷 니브시고 바리 가지샤ᄆᆞᆫ 敎 나토샤ᄆᆞᆯ 爲ᄒᆞ샤 자최ᄅᆞᆯ 뵈샤ᄂᆞᆫ 젼ᄎᆡ라. 드르샤ᄆᆞᆫ 城 밧ᄀᆞᆯ 브터 드르실씨라. 舍衛大城은 일후미 舍衛國 豊德城이니 곧 波斯匿王의 사ᄂᆞᆫ 城일ᄊᆡ 닐오ᄃᆡ 舍衛大城이라. 밥 비르시다 ᄉᆞᆯ오ᄆᆞᆫ 如來ㅣ 能히 一切 衆生의게 ᄆᆞᅀᆞᆷ ᄂᆞᄌᆞ기 ᄒᆞ샤ᄆᆞᆯ 表ᄒᆞᅀᆞ오니라.(금강 건 4)

◉ 次第로 비르샤ᄆᆞᆯ ᄆᆞ자ㅏ시고 本處에 도로 가샤 반좌샤ᄆᆞᆯ ᄆᆞᄎᆞ시고 옷과 바리ᄅᆞᆯ ᄀᆞ초시고 발 시스시고 座ᄅᆞᆯ 펴샤 안거시늘 = 次第乞已ᄒᆞ시고 還至本處ᄒᆞ샤 飯食乞ᄒᆞ시고 救衣鉢ᄒᆞ시고 洗足已ᄒᆞ시고 敷座而坐ㅣ어시ᄂᆞᆯ (금강 건 4)

☞ 次第ᄂᆞᆫ 艱難ᄒᆞ니 가ᅀᆞ며니 ᄀᆞᆯ히디 아니ᄒᆞ샤 平等으로 化ᄒᆞ샤미라. 비롬 ᄆᆞᄎᆞ샤ᄆᆞᆫ 해 비로ᄆᆞᆯ

닐굽 지븨 너무 아니ᄒᆞ샴 ᄀᆞᆮᄒᆞ니 七家ㅅ 數ㅣ ᄎᆞ거든 ᄂᆞ외 나ᄆᆞᆫ 지븨 가디 아니ᄒᆞ실씨라. 本處에 도로 가샤ᄆᆞᆫ 부텻 ᄠᅳ데 모ᄃᆞᆫ 比丘를 禁止ᄒᆞ샤 請ᄒᆞ야 브르리 덜오 그 外예 믄득 白衣ㅅ 지븨 가디 몯게 ᄒᆞ실씨 그리 ᄉᆞᆯ오니라. 발 시스샤ᄆᆞᆫ 如來ㅣ 凡夫ᄅᆞᆯ 順ᄒᆞ야 ᄀᆞ티 ᄒᆞ샤ᄆᆞᆯ 뵈실씨 ᄉᆞᆯ오ᄃᆡ 洗足이라. ᄯᅩ 大乘法은 ᄒᆞᆫ갓 손발 시수ᄆᆞ로 조호말 삼논디 아니라. 닐오ᄃᆡ 손발 시수미 ᄆᆞᅀᆞᆷ 시솜 ᄀᆞᆮ디 몯ᄒᆞ니 一念에 ᄆᆞᅀᆞ미 조ᄒᆞ면 罪와 ᄢᅴ왜 다 덜리라. 如來ㅣ 說法호려 ᄒᆞ실ᄊᆡ 샹녯 法이 檀座ᄅᆞᆯ 펴실씨 ᄉᆞᆯ오ᄃᆡ 座ᄅᆞᆯ 펴샤 안ᄌᆞ샤미라.「檀은 尼師檀이니 예셔 닐오매 앉ᄂᆞᆫ 거시라」(금강 건 5)

◉ 時예 長老 須菩提ㅣ = 時예 長老須菩提ㅣ(금강 건 6)

☞ 엇뎨 일후미 長老오. 德이 尊코 나히 노ᄑᆞᆯ씨 일후미 長老ㅣ라. 須菩提ᄂᆞᆫ 이 梵語ㅣ니 唐마랜 空 아로미라.(금강 건 6)

◉ 大衆中에 이셔 즉재 座로셔니러 올ᄒᆞᆫ 엇게 메왓고 무ᄅᆞᆸ 짜해 다혀 合掌 恭敬ᄒᆞᄉᆞ와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 在大衆中ᄒᆞ야 卽從座起ᄒᆞ야 偏祖右肩ᄒᆞ고 右膝著地ᄒᆞ야 合掌 恭敬ᄒᆞᄉᆞ와 而白佛言ᄒᆞᄉᆞ오ᄃᆡ (금강 건 60

☞ 衆의 안ᄌᆞᆯ딜 조ᄎᆞᆯ씨 닐오ᄃᆡ 즉재 座로셔 니루미라. 弟子ㅣ 더우믈 請ᄒᆞᆯᄊᆡ 몬져 다ᄉᆞᆺ가짓 威儀ᄅᆞᆯ 行ᄒᆞᄂᆞ니 ᄒᆞ나ᄒᆞᆫ 坐로셔 니루미오 둘흔 衣服ᄋᆞᆯ 端正히 고툐미오 세흔 올ᄒᆞᆫ 엇게 메왓고 올ᄒᆞᆫ 무ᄅᆞᆸ 짜해 다효미오 네흔 合掌ᄒᆞ야 尊顔ᄋᆞᆯ 울워러 보ᄉᆞ와 누늘 깜간도 ᄇᆞ리디 아니호미오 다ᄉᆞᆺ 一心 恭敬ᄒᆞᄉᆞ와 묻ᄂᆞᆫ 마ᄅᆞᆯ 펼씨라.(금강 건 7)

◉ 希有ᄒᆞ신 世尊하.「希ᄂᆞᆫ ᄃᆞ믈씨라」=希有世尊하.(금강 건 7)

☞ 希有는 略히 니ᄅᆞ건댄 세 ᄠᅳ디니 第一 希有는 能히 金輪王位 ᄇᆞ리샤미시고 第二 希有는 身長이 丈六 이시며 紫磨金ㅅ 양ᄌᆞ애 三十二相과 八十種好ㅣ 三戒예 가ᄌᆞᆯ비리 업스샤미시고 第三 希有는 性이 能히 八萬四千 法을 머구며 비와 ᄐᆞ시며 三身이 두려이 ᄀᆞᄌᆞ샤미시니 웃 세 ᄠᅳ디 ᄀᆞᄌᆞ실씨 希有ㅣ라 ᄉᆞᆯ오니라. 世尊은 智慧 三界ᄅᆞᆯ ᄲᅮ여 디니샤 能히 믿ᄌᆞ오리 업스시며 德이 노ᄑᆞ샤 외야 우업스샤 一切 다 恭敬ᄒᆞᄉᆞ올씨 ᄉᆞᆯ오ᄃᆡ 世尊이시니라.(금강 건 7-8)

◉ 如來ㅣ 諸菩薩ᄋᆞᆯ 이대 護持ᄒᆞ야 念ᄒᆞ시며 諸菩薩ᄋᆞᆯ 이대 付囑ᄒᆞ시ᄂᆞ니 =如來ㅣ 善護念諸菩薩ᄒᆞ시며 善付囑諸菩薩ᄒᆞ시ᄂᆞ니 (금강 건 8)

☞ 護持ᄒᆞ샤 念ᄒᆞ샤ᄆᆞᆫ 如來ㅣ 般若波羅密法으로 諸菩薩ᄋᆞᆯ 護持ᄒᆞ야 念ᄒᆞ실씨라. 付囑은 如來ㅣ 般若波羅密法으로 須菩提와 諸大菩薩ᄋᆞᆯ 付囑ᄒᆞ실씨라. 이대 護念ᄒᆞ시다 ᄉᆞᆯ오ᄆᆞᆫ 모ᄃᆞᆫ ᄇᆡ홀싸ᄅᆞᄆᆞ로 般若智로 제 身心을 護念ᄒᆞ야 ᄆᆡ며 ᄃᆞᆶ오ᄆᆞᆯ 간대로 니ᄅᆞ와다 밧ᄀᆡ 六塵에 더러여 生死苦海예 ᄠᅥ러디디 아니케 ᄒᆞ야 내 心中에 念念이 샹녜 正ᄒᆞ야 邪ㅣ 니디 아니케 ᄒᆞ샤 自性 如來ㅣ ᄌᆞ걔 이대 護念ᄒᆞᆯ씨라. 이대 付囑ᄒᆞ시다 ᄉᆞᆯ오ᄆᆞᆫ 前念이 淸淨ᄒᆞ야 後念을 付囑ᄒᆞ고 後念이 淸淨ᄒᆞ야 그 춤 업서 究竟히 解脫호미니 如來ㅣ 委曲히 衆生과 會예 잇ᄂᆞᆫ 衆ᄋᆞᆯ ᄀᆞᄅᆞ쳐 뵈샤 반ᄃᆞ기 샹녜 이ᄅᆞᆯ 行케 ᄒᆞ실씨 이대 付囑ᄒᆞ시다 ᄉᆞᆯ오니라. 菩薩은 梵語ㅣ니 唐 마랜 道心 衆生이며 ᄯᅩ 닐오맨 覺有情이니「智로 우희 菩提 求ᄒᆞᆯ씨 ᄉᆞᆯ오ᄃᆡ 覺이오 悲로 아래 衆生 化ᄒᆞᆯ씨 ᄉᆞᆯ오ᄃᆡ 有情이라.」道心은 샹녜 恭敬을 行ᄒᆞ야 구믈어리ᄂᆞᆫ 含靈에 니르리 너비 恭敬ᄒᆞ며 어엿비 너겨 므던히 너길 ᄆᆞᅀᆞᆷ 업슬씨 일후미 菩薩이라.(금강 건 9)

◉ 世尊하 善男子善女人이 =世尊하 善男子善女人이 (금강 건 10)

☞ 善男子ᄂᆞᆫ 平ᄒᆞᆫ ᄆᆞᅀᆞ미며 ᄯᅩ 正定 ᄆᆞᅀᆞ미니 能히 一切 功德을 일워 간고대 ᄀᆞ료미 업ᄂᆞ니라. 善女人은 이 正慧ㅅ ᄆᆞᅀᆞ미니 正慧ㅅ ᄆᆞᅀᆞᄆᆞᆯ브터 能히 一切ㅅ 有爲 無爲 功德을 내ᄂᆞ니라.(금강 건 10)

◉ 阿耨多羅三藐 三菩提ㅅ ᄆᆞᅀᆞᆷ 發ᄒᆞ니 엇뎨 반ᄃᆞ기 住ᄒᆞ며 엇뎨 그 ᄆᆞᅀᆞᄆᆞᆯ 降伏히라잇고. = 發阿耨多羅三藐 三菩提心ᄒᆞ니 云何應住ᄒᆞ며 云何降伏其心ᄒᆞ리잇고.(금강 건 10)

☞ 須菩提ㅣ 묻ᄌᆞ오ᄃᆡ 一切ㅅ 菩提ㅅ ᄆᆞᅀᆞᆷ 發ᄒᆞᆫ 사ᄅᆞ미 반ᄃᆞ기 엇뎨 住ᄒᆞ며 엇뎨 그 ᄆᆞᅀᆞᄆᆞᆯ 降伏히리잇고 ᄒᆞ니 須菩提ㅣ 一切 衆生이 어즈러워 머므디 아니호미 ᄲᅳ멧 드틀 ᄀᆞᆮᄒᆞ며 搖動ᄒᆞᄂᆞᆫ ᄆᆞᅀᆞ미 니루미 飄風갇ᄒᆞ야「飄風은 회로리 ᄇᆞᄅᆞ미라」念念이 서르 니ᅀᅥ 그처 歇ᄒᆞᆯ 쩍 업수믈 볼씨 묻ᄌᆞ오ᄃᆡ 修行호려 ᄒᆞᆯ뗸 엇뎨 降伏히리잇고 ᄒᆞ니라.(금강 건 11) *회로리 ᄇᆞᄅᆞᆷ(회오리바람)

◉ 부톄 니ᄅᆞ샤ᄃᆡ 됴타됴타 須菩提여. 네 닐옴 ᄀᆞᆮᄒᆞ야 如來ㅣ 諸菩薩ᄋᆞᆯ 이대 護念ᄒᆞ며 諸 菩薩ᄋᆞᆯ 이대 付囑ᄒᆞᄂᆞ니 =佛言ᄒᆞ샤ᄃᆡ 善哉善哉라. 須菩提야. 如汝所說ᄒᆞ야 如來ㅣ 善護念諸菩薩ᄒᆞ며 善付囑諸菩薩ᄒᆞᄂᆞ니(금강 건 11)

☞ 이ᄂᆞᆫ 부톄 須菩提ᄅᆞᆯ 讚歎ᄒᆞ샤ᄃᆡ 내 ᄆᆞᅀᆞᄆᆞᆯ 이대 得ᄒᆞ며 내 ᄠᅳ들 이대 得ᄒᆞ니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11)

◉ 네 이제 仔細히 드르라. 반ᄃᆞ기 너 爲ᄒᆞ야 닐오리라. = 汝 今諦聽ᄒᆞ라. 當爲汝說호리라.(금강 건 11)

☞ 부톄 說法호려 ᄒᆞ실쩨 샹녜 몬져 警戒ᄒᆞ샤 모ᄃᆞᆫ 듣ᄌᆞ오리로 一心으로 괴외ᄒᆞ라. 내 반ᄃᆞ기 爲ᄒᆞ야 닐오리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12)

◉ 善男子善女人이 阿耨多羅三藐 三菩提ㅅ 心을 發ᄒᆞ니 반ᄃᆞ기 ᄀᆞ티 住ᄒᆞ며 이ᄀᆞ디 그 ᄆᆞᅀᆞᄆᆞᆯ 降伏히욜띠니라. = 善男子善女人이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ᄒᆞ니 應如是住ᄒᆞ며 如是降伏其心이니라.(금강 건 12)

☞ 阿ㅣ라 혼 마ᄅᆞᆫ 無ㅣ오 耨多羅ㅣ라 혼 마ᄅᆞᆫ 上이오 三이라 혼 마ᄅᆞᆫ 正이오 藐이라 혼 마ᄅᆞᆫ 徧이오 菩提라 혼 마ᄅᆞᆫ 知ㅣ니 無는 한 ᄠᅴ 더러움 업수미오 上은 三界예 能히 가줄비리 업수미오 正은 正ᄒᆞᆫ 보미오 徧은 一切智오 知는 一切 有情이 다 佛性을 두실씨 오직 能히 修行ᄒᆞ면 다 成佛ᄒᆞᆯᄯᆞᆯ(ᄃᆞᆯ) 아로미니 佛은 곧 이 우 업슨 淸淨 般若 波羅密이니 이런ᄃᆞ로 一切 善男子善女人이 ᄒᆞ다가 修行호려 홀띤댄 반ᄃᆞ기 우 업슨 菩提道ᄅᆞᆯ 아롤띠며 반ᄃᆞ기 우 업슨 淸淨 般若波羅密多法을 아롤띠니 일로 그 ᄆᆞᅀᆞᄆᆞᆯ 降伏홀띠니라.(금강 건 13)

◉ 唯然 世尊하. 듣ᄌᆞᆸ고져 願樂ᄒᆞᅀᆞᆸ노이다. =唯然世尊하. 願樂欲聞ᄒᆞᅀᆞᆸ노이다.(금강 건 13)

☞ 唯然은 對答ᄒᆞᅀᆞᆸᄂᆞᆫ 마리오 願樂ᄂᆞᆫ 부톄 너비 니ᄅᆞ샤 中下 根機로다 여러 알에 ᄒᆞ시과뎌 願호미오 樂ᄂᆞᆫ 기픈 法 듣ᄌᆞ오ᄆᆞᆯ 즐길씨라. 듣ᄌᆞᆸ고져 호ᄆᆞᆫ 慈悲ㅅ ᄀᆞᄅᆞ치샤ᄆᆞᆯ 渴望ᄒᆞ야 ᄇᆞᄅᆞᅀᆞ올씨

라.(금강 건 13)

◉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諸菩薩摩訶薩이 반ᄃᆞ기 이ᄀᆞ티 그 ᄆᆞᅀᆞᆯ 降伏히욜띠니 =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諸菩薩摩訶薩이 應如是降伏其心이니 (금강 건 14)

☞ 前念이 淸淨ᄒᆞ며 後念이 淸淨ᄒᆞᆯ씨 일후미 菩薩이오 念念에 므르디 아니ᄒᆞ야 비록 塵勞애 이시나 ᄆᆞᅀᆞ미 샹녜 淸淨ᄒᆞᆯ씨 일후미 摩訶薩이라. ᄯᅩ 慈悲 喜捨와 種種 方便으로 衆生ᄋᆞᆯ 化ᄒᆞ야 引導ᄒᆞᆯ씨 일후미 菩薩이오 能히 化와 所化애 ᄆᆞᅀᆞ미 取著 업슬씨 이 일후미 摩訶薩이라. 一切 衆生ᄋᆞᆯ 恭敬호미 곧 이제 ᄆᆞᅀᆞᆷ 降伏히논 고디라. 眞ᄋᆞᆫ 變티 아니ᄒᆞ고 如는 다ᄅᆞ디 아니ᄒᆞ니 한 境界ᄅᆞᆯ 맛나 ᄆᆞᅀᆞ미 變ᄒᆞ야 달옴 업수미 일후믈 닐오ᄃᆡ 眞如ㅣ라. ᄯᅩ 닐오ᄃᆡ 밧기 거츠디 아니호ᄆᆞᆯ 닐오ᄃᆡ 眞이오 안히 亂티 아니호ᄆᆞᆯ 닐오ᄃᆡ 如ㅣ니 念念이 어긔욤 업수미 곧 이 그 ᄆᆞᅀᆞᆷ 降伏히요미라.(금강 건 15)

◉ 잇ᄂᆞᆫ 一切 衆生類ㅣ 卵生과 胎生과 濕生과 化生과 有色과 無色과 有想과 無想과 非有想과 非無想ᄋᆞᆯ 내 다 無餘涅槃애 들에 ᄒᆞ야 = 所有一切衆生之類ㅣ 若卵生若胎生若濕生若化生若有色若無色若有想若無想若非有想若非無想을 我皆令入無餘涅槃ᄒᆞ야.(금강 건 15)

☞ 卵生ᄋᆞᆫ 迷ᄒᆞᆫ 性이오 胎生ᄋᆞᆫ 習ᄒᆞᆫ 性이오 濕生ᄋᆞᆫ 邪ᄅᆞᆯ 좃ᄂᆞᆫ 性이오 化生ᄋᆞᆫ 보아 가ᄂᆞᆫ 性이니 迷ᄒᆞᆫ 젼ᄎᆞ로 한 業을 짓고 習ᄒᆞᆫ 젼ᄎᆞ로 샹녜 흘러 그울오 邪ᄅᆞᆯ 조차 ᄆᆞᅀᆞ미 一定티 몯ᄒᆞ고 보아가 ᄲᅢ듀미 하ᄂᆞ니 ᄆᆞᅀᆞᆯ 니ᄅᆞ와다 ᄆᆞᅀᆞᆯ 닷가 올ᄒᆞ며 외요ᄆᆞᆯ 간대로 보아 안해 無相理예 맛디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有色이오 안 ᄆᆞᅀᆞ매 直을 가져 恭敬 供養을 行티 아니ᄒᆞ야 오직 直心이 이 佛이라 니ᄅᆞ고 福慧ᄅᆞᆯ 닷디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無色이오, 中道ᄅᆞᆯ 아디 몯ᄒᆞ고 누네 보며 귀예 드러 ᄆᆞᅀᆞ매 너기며 ᄉᆞ랑ᄒᆞ야 法相을 ᄃᆞ사 着ᄒᆞ야 부텻 行을 이베 닐오ᄃᆡ ᄆᆞᅀᆞ매브터 行티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有想이오, 迷ᄒᆞᆫ 사ᄅᆞ미 坐禪호ᄃᆡ ᄒᆞᆫ갓 妄을 덜오 慈悲 喜捨와 智慧 方便을 ᄇᆡ호디 아니ᄒᆞ야 木石의 作用 업 ᄃᆞᆺᄒᆞᆯ씨 일후미 若非有想이라. 煩惱ㅣ 萬으로 다ᄅᆞ나다 이 더러운 ᄆᆞᅀᆞ미며 몸 얼구리 數 업스나 다 일후미 衆生이니 如來ㅣ 大悲로 너비 化ᄒᆞ샤 다 無餘涅槃애 들에 ᄒᆞ실씨 닐오ᄃᆡ ᄲᅢ듀미 하미라.(금강 건 16-17)

◉ 滅度ᄒᆞ노니 = 而滅度之ᄒᆞ노니 (금강 건 17)

☞ 如來ㅣ 三界九地 衆生이 各各 涅槃 妙心 이쇼ᄆᆞᆯ ᄀᆞᄅᆞ쳐 뵈샤 제 無餘에 아라 들에 ᄒᆞ시니 無餘ᄂᆞᆫ 習氣 煩惱 업슬씨라. 涅槃ᄋᆞᆫ 圓滿 淸淨ᄒᆞᆫ ᄠᅳ디니 一切 習氣ᄅᆞᆯ 滅ᄒᆞ야 다아 永히 나디 아니케 ᄒᆞ야ᅀᅡ 비르서 이에 마ᄌᆞ리라. 度ᄂᆞᆫ 生死大海예 건널씨니 부텻 ᄆᆞᅀᆞ미 平等ᄒᆞ샤 너비 願ᄒᆞ샤ᄃᆡ 一切 衆生과 圓滿 淸淨ᄒᆞᆫ 無餘 涅槃애 ᄀᆞ티 들며 生死 大海예 ᄀᆞ티 건너며 諸佛證ᄒᆞ샨 고대 ᄀᆞᆫ과뎌 ᄒᆞ시ᄂᆞ니라. 사ᄅᆞ미 비록 아라 비록 닷ᄀᆞ나 得혼 곧 잇ᄂᆞᆫ ᄆᆞᅀᆞᆷ 짓ᄂᆞ닌 도로 我相이 날씨 일후미 法我ᄅᆞᆯ 다 더러ᅀᅡ 미르서 일후미 滅度ㅣ니라.(금강 건 18)

◉ 이ᄀᆞ티 無量無數無邊 衆生ᄋᆞᆯ 滅度호ᄃᆡ 實로 衆生이 滅度 得ᄒᆞ니 업스니 =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호ᄃᆡ 實無衆生이 得滅度者ᄒᆞ니 (금강 건 18)

☞ 이 ᄀᆞᆫ호ᄆᆞᆫ 알ᄑᆡ 法을 ᄀᆞᄅᆞ치시고 滅度ᄂᆞᆫ 큰 解脫이니 큰 解脫ᄋᆞᆫ 煩惱와 習氣ㅅ 一切 한 業障이 滅ᄒᆞ야 다 아ᄂᆞ 외야 나ᄆᆞᆫ 것 업슬씨 이 일후미 큰 解脫이라. 無量無數無邊 衆生이 本來 各各 제 一切 煩惱 貪嗔惡業을 뒷ᄂᆞ니 ᄒᆞ다가 그처 더디 아니ᄒᆞ면 ᄆᆞᄎᆞᆷ내 解脫ᄋᆞᆯ 得디 몯ᄒᆞ릴씨 니ᄅᆞ

샤ᄃᆡ 이ᄀᆞ티 無量無數無邊衆生ᄋᆞᆯ 滅度ㅣ라 ᄒᆞ시니라. 一切 迷人이 自性을 아라ᅀᅡ 미르서 부톄 ᄌᆞ갯 相ᄋᆞᆯ 보디 아니ᄒᆞ시며 ᄀᆞ갯 智ᄅᆞᆯ 두디 아니커시니 엇뎨 일쯕 衆生ᄋᆞᆯ 濟度ᄒᆞ시리오. 오직 凡夫ㅣ 제 本心을 보디 몯ᄒᆞ며 부텻 ᄠᅳ들 아디 몯ᄒᆞᄉᆞ와 諸相애 執着ᄒᆞ야 無爲ㅅ理ᄅᆞᆯ 아디 몯ᄒᆞ야 我人을 더디 몯ᄒᆞᆯᄊᆡ 이 일후미 衆生이니 ᄒᆞ다가 이 病을 여희면 實로 衆生이 滅度 得ᄒᆞ니 업슨ᄃᆞᆯ 알리니 이럴ᄊᆡ 닐오ᄃᆡ 妄心 업슨 고디 곧 菩提오 生死와 涅槃이 本來 平等타 ᄒᆞ니 엇뎨 滅度ㅣ 이시리오.(금강 건 19-20)

◉ 엇뎨어뇨. 須菩提여. ᄒᆞ다가 菩薩이 我相과 人相과 衆生相과 壽者相이 이시면 곧 菩薩아니라. = 何以故오. 須菩提야. 若菩薩이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면 卽非菩薩이라.(금강 건 20)

☞ 衆生과 부텨왓 性이 本來 달오미 업건마ᄅᆞᆫ 四相 이슈믈 브터 無餘 涅槃애 드니 몯ᄒᆞᄂᆞ니 四相 이시면 이 부톄니 迷ᄒᆞ면 부톄 이 衆生이오 알면 衆生이 이 부톄라. 迷ᄒᆞᆫ 사ᄅᆞᄆᆞᆫ 財寶와 學問과 族姓 두믈 미더 一切人을 므던히 너기ᄂᆞ니 일후미 我相이오 비록 仁義禮智信을 行ᄒᆞ나 ᄠᅳ디 노파 제 미더 너비 恭敬을 行티 아니ᄒᆞ야 닐오ᄃᆡ 내 仁義禮智信을 아라 行ᄒᆞ가니 너를 恭敬호미 맛당티 아니ᄒᆞ니라. ᄒᆞᄂᆞ니 일후미 人相이오 됴ᄒᆞᆫ 일란 내게 보내오 구즌 일란 ᄂᆞᄆᆡ게 주ᄂᆞ니 일후미 衆生相 境을 對ᄒᆞ야 取ᄒᆞ며 捨ᄒᆞ야 分別ᄒᆞᄂᆞ니 일후미 壽者相이니 이ᄅᆞᆯ 닐온 凡夫 四相이 잇ᄂᆞ니 ᄆᆞᅀᆞ미 能所ㅣ 이셔 衆生ᄋᆞᆯ 므던히 너길ᄊᆡ 일후미 我相이오 제 持戒ᄅᆞᆯ 미더 破戒ᄒᆞ닐 므던히 너길ᄊᆡ 일후미 人相이오 三塗ㅅ 受苦ᄅᆞᆯ 슬ᄒᆞ야 諸天에 나고져 願ᄒᆞᆯᄊᆡ 이 衆生相이오 ᄆᆞᅀᆞ매 長壽를 ᄃᆞᅀᅡ 福業을 브즈러니 닷가 한 執을 닛디 몯ᄒᆞᆯᄊᆡ 이 壽者相이니 四相 이시면 곧 이 衆生이오 四相 업스면 곧 이 부톄라.(금강 건 21-22) * ᄒᆞ-가니/ ᄒᆞᄂᆞ니/ -의게(게)

◉ ᄯᅩ 버거 須菩提여. 菩薩이 法에 반ᄃᆞ기 住혼 곧 업시ᄒᆞ야 布施ᄅᆞᆯ 行홀ᄄᆡ니 닐온 色애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와 聲香味觸法애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니 = 復次須菩提야. 菩薩이 於法에 應無所住ᄒᆞ야 行於布施니 所謂不住色布施와 不住聲香味觸法布施니 (금강 건 22)

☞ 凡夫의 布施ᄂᆞᆫ 身相이 端正ᄒᆞ며 싁싁홈과 五欲 快樂ᄋᆞᆯ 求ᄒᆞᄂᆞᆫ 젼ᄎᆞ로 報ㅣ 다ᄋᆞ면 도로 三塗애 ᄠᅥ러딜ᄊᆡ 世尊이 大慈로 無相 布施行호ᄆᆞᆯ ᄀᆞᄅᆞ치샤ᄆᆞᆫ 身相 端正ᄒᆞ며 싁싁홈과 五欲 快樂ᄋᆞᆯ 求티 아니ᄒᆞ고 오직 안ᄒᆞ로 慳貪ᄒᆞᆫ ᄆᆞᅀᆞᄆᆞᆯ 헐오 밧ᄀᆞ로 一切 衆生ᄋᆞᆯ 利益게 ᄒᆞ시니 이ᄀᆞ티 相應호미 일후미 色에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라. (금강 건 22-23)

◉ 須菩提여. 菩薩이 반ᄃᆞ기 이ᄀᆞ티 布施ᄒᆞ고 相애 住티 아니홀ᄄᆡ니 = 須菩提야. 菩薩이 應如是布施ᄒᆞ고 不住於相이니 (금강 건 23)

☞ 반ᄃᆞ기 相 업슨 ᄆᆞᅀᆞᄆᆞ로 布施홈 ᄀᆞᆮ호ᄆᆞᆫ 能히 施ᄒᆞᄂᆞᆫ ᄆᆞᅀᆞᆷ 업스며 施ᄒᆞᄂᆞᆫ 物 이쇼ᄆᆞᆯ 보디 몯ᄒᆞ며 施ᄅᆞᆯ 受ᄒᆞᄂᆞᆫ 사ᄅᆞᆷ 分別 아니호미 이 일후미 相애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라.(금강 건 23)

◉ 엇뎨어뇨 ᄒᆞ다가 菩薩이 相애 住티 아니ᄒᆞ야 布施ᄒᆞ면 그 福德이 思量 몯ᄒᆞ리라.= 何以故오. 若菩薩이 不住相布施ᄒᆞ면 其福德이 不可思量이니라.(금강 건 23)

☞ 菩薩ㅅ 布施 行호ᄆᆞᆫ ᄆᆞᅀᆞ미 ᄇᆞ라옴 업슬ᄊᆡ 그 어둔 福德이 十方 虛空 ᄀᆞᆮᄒᆞ야 마초아 혜아리디 몯ᄒᆞ리라. ᄯᅩ 버게라 니ᄅᆞ샤ᄆᆞᆫ 알ᄑᆞᆯ 니ᅀᅥ 뒤흘 니ᄅᆞ와ᄃᆞ시ᄂᆞᆫ 마리라. ᄒᆞᆫ 마래 布ᄂᆞᆫ 너블씨오 施ᄂᆞᆫ ᄒᆞ틀씨니 能히 너비 心中엣 安念을 흐터 업게 ᄒᆞ야 習氣와 煩惱와 四相이 그처 업서 싸홈 업수미 이 眞實ㅅ 布施라. ᄯᅩ 닐오ᄃᆡ 布施ᄂᆞᆫ 六塵 境界예 住티 아니ᄒᆞ며 ᄯᅩ 漏 잇ᄂᆞᆫ 分別 아니코

반ᄃᆞ기 本來 淸淨에 도라가 萬法이 空寂ᄒᆞᆫᄃᆞᆯ 아롤띠니 ᄒᆞ다가 이 ᄠᅳ들 아디 몯ᄒᆞ면 한 業을 더으릴씨 모로매 안ᄒᆞ로 貪愛ᄅᆞᆯ 덜오 밧ᄀᆞ로 布施ᄅᆞᆯ 行ᄒᆞ야 안팟기 相應ᄒᆞ야ᅀᅡ 福 어두미 無量ᄒᆞ리라. 사ᄅᆞᄆᆡ 모딘 일 ᄒᆞ욤 보고 그 허므를 보디 아니ᄒᆞ며 제 性에 分別 내디 아니호미 이 일후미 相 여희요미며 敎ᄅᆞᆯ 브터 修行ᄒᆞ야 ᄆᆞᅀᆞ미 能所 업수미 곧 이 善法이오 修行人이 ᄆᆞᅀᆞ미 能所 이시면 善法이라 일훔 몯ᄒᆞ리니 能所心이 업디 아니ᄒᆞ면 ᄆᆞᄎᆞᆷ내 解脫ᄋᆞᆯ 得디 몯ᄒᆞ리니 念念에 샹녜 般若智ᄅᆞᆯ 行ᄒᆞ면 그 福이 無量 無邊ᄒᆞ리니 이 ᄀᆞᆮ호ᄆᆞᆯ 브터 修行ᄒᆞ면 一切 人天의 恭敬 供養호ᄆᆞᆯ 感ᄒᆞ야 得ᄒᆞ리니 이 일후미 福德이라. 샹녜 相에 住티 아니ᄒᆞᆫ 布施ᄅᆞᆯ 行ᄒᆞ야 一切 含生ᄋᆞᆯ 너비 恭敬ᄒᆞ면 그 功德이 ᄀᆞᄉᆡ 업서 ᄃᆞᆯ며 혜디 몯ᄒᆞ리라.(금강 건 24-25)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東方 虛空ᄋᆞᆯ 어루 思量ᄒᆞ려 몯ᄒᆞ려. 아니이다. 世尊하. = 須菩提야. 於意예 云何오. 東方虛空을 可思量가. 不아. 不也ㅣ이다. (금강 건 25) *의문씨끝 -가

☞ 住相 아니ᄒᆞᆫ 布施의 得혼 功德이 稱量 몯호ᄆᆞᆯ 브트샤 부톄 東方 虛空ᄋᆞ로 譬喩ᄒᆞ실씨 須菩提ᄃᆞ려 무르샤ᄃᆡ 東方 虛空ᄋᆞᆯ 어루 思量ᄒᆞ려. 몯ᄒᆞ려 ᄒᆞ시니라. 不也 世尊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東方 虛空ᄋᆞᆯ 思量 몯ᄒᆞ리이다 ᄒᆞ니라.(금강 건 26)

◉ 須菩提여. 南西北方과 四維上下ㅅ 虛空ᄋᆞᆯ 어루 思量ᄒᆞ려 몯ᄒᆞ려. 아니이다. 세존河. 須菩提여. 菩薩의 住相 업슨 布施ㅅ 福德도 ᄯᅩ 이 ᄀᆞᆮᄒᆞ야 思量 몯ᄒᆞ리니. =須菩提야. 南西北方四維上下虛空을 可思量가. 不아. 不也世尊하. 須菩提야. 菩薩無住相布施福德도 亦復如是ᄒᆞ야 不可思量이니 (금강 건 26)

☞ 부톄 니ᄅᆞ샤ᄃᆡ 虛空이 ᄀᆞᆺ업서 혜아리디 몯ᄒᆞ리니 菩薩ㅅ 住相 업슨 布施의 得혼 功德도 ᄯᅩ 虛空ᄋᆡ 혜아리디 몯ᄒᆞ야 ᄀᆞᆺ 업숨 ᄀᆞᆮᄒᆞ니라. 世界中에 큰 거시 虛空애 너므니 업스니 엇뎨어뇨. 믈읫 形相 잇ᄂᆞᆫ 거슨 크다 일훔 몯ᄒᆞ려니와 虛空은 形相 업슬씨 크다 일훔 ᄒᆞ여 一切ㅅ 한 性은 다 限量 이실씨 크다 일훔 몯ᄒᆞ려니와 佛性은 限量업슬씨 크다 일훔ᄒᆞᄂᆞ니라. 이 虛空中에 本來 東西南北 업스니 ᄒᆞ다가 東西南北을 보면 ᄯᅩ 이 住相이라. 解脫ᄋᆞᆯ 得디 몯ᄒᆞ리며 佛性도 本來我와 人衆生과 壽者왜 업스니 ᄒᆞ다가 이 四相 어루보미 이시면 곧 이 衆生性이라. 佛性이라 일훔 몯ᄒᆞ리니 ᄯᅩ 닐온 住相布施라. 비록 妄心中에 東西南北이 잇다 니ᄅᆞ나 理예 이션 엇뎨 이시리오. 닐온 東西ㅣ 眞實 아니오 南北이 엇뎨 다ᄅᆞ리오. 自性이 本來 空寂ᄒᆞ야 모다 노가 分別홀 ᄭᅳᆫ(곧) 업스니 이럴씨 如來ㅣ 分別 내디 아니호ᄆᆞᆯ 기피 기리시니라.(금강 건 27-28)

◉ 須菩提여. 菩薩은 오직 ᄀᆞᄅᆞᄎᆞᆷᄀᆞ티 住홀띠니라. =須菩提야. 菩薩은 但應如所敎住ㅣ니라.(금강 건 28)

☞ 應은 오직홀씨니 오직 우희 니ᄅᆞ샨 ᄀᆞᄅᆞ치샴ᄀᆞ티 ᄒᆞ야 無相布施예 住ᄒᆞ면 곧 이 菩薩이라.(금강 건 28)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어루 身相ᄋᆞ로 如來ᄅᆞᆯ 보려. 몯ᄒᆞ려. 아니이다. 世尊하. 身相ᄋᆞ로 如來ᄅᆞᆯ 시러 보ᄉᆞᆸ디 몯ᄒᆞ리니.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可以身相으로 見如來아. 不아. 不也世尊하. 不可以身相으로 得見如來니 (금강 건 29)

☞ 色身은 곧 相이 잇고 法身은 곧 相이 업스니 色身은 四大和合ᄒᆞ야 父母ㅅ 나혼 거시라 肉眼ᄋᆡ 보ᄂᆞᆫ 고디오, 法身은 얼굴 업스며 靑黃赤白 잇디 아니ᄒᆞ며 一切相貌ㅣ 업서 肉眼의 能히 볼껏 아

니라 慧眼이사 能히 보ᄂᆞ니 凡夫는 오직 色身 如來를 보숩고 法身 如來를 보숩디 몯ᄒᆞᄂᆞ니 法身은 量이 虛空과 ᄀᆞᆮᄒᆞ실씨 이럴씨 부톄 須菩提ᄃᆞ려 무르샤ᄃᆡ 어루 身相ᄋᆞ로 如來를 보려 몯ᄒᆞ려ᄒᆞ야시ᄂᆞᆯ 須菩提ㅣ 凡夫의 오직 色身 如來를 보숩고 法身 如來를 보숩디 몯ᄒᆞᆫᄃᆞᆯ 알씨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身相ᄋᆞ로 如來를 시러 보숩디 몯ᄒᆞᄉᆞ오리이다 ᄒᆞ니라.(금강 건 29-30)

◉ 엇뎨어뇨. 如來 니ᄅᆞ샨 身相이 곧 身相이 아니니이다. =何以故ㅣ어뇨. 如來所說身相이 卽非身相이니이다.(금강 건 30)

☞ 色身은 이 相이오 法身은 이 性이니 一切 善惡이 다 法身ᄋᆞᆯ 븓고 色身 븓디 아니ᄒᆞᄂᆞ니 法身이 ᄒᆞ다가 惡ᄋᆞᆯ 지스면 色身이 善處에 나디 몯고 法身이 善을 지스면 色身이 惡處에 ᄠᅥ러디디 아니ᄒᆞᄂᆞ니 凡夫는 오직 色身ᄋᆞᆯ 보고 法身을 몯볼씨 能히 住相 업슨 布施를 行티 몯ᄒᆞ며 能히 一切 處에 平等行ᄋᆞᆯ 行티 몯ᄒᆞ며 能히 一切 衆生ᄋᆞᆯ 너비 恭敬 몯거니와 法身 보닌 곧 能히 無住相 布施를 行ᄒᆞ며 곧 能히 一切 衆生ᄋᆞᆯ 너비 恭敬ᄒᆞ며 곧 能히 般若 波羅密行ᄋᆞᆯ 닷가 비르서 一切 衆生이 ᄒᆞᆫ가지로 ᄒᆞᆫ 眞性이라 本來 淸淨ᄒᆞ야 더러움 업서 恒河 微妙ᄒᆞᆫ 用이 ᄀᆞᄌᆞᆫᄃᆞᆯ 信ᄒᆞᄂᆞ니라.(금강 건 31)

◉ 부텨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믈읫 잇ᄂᆞᆫ 相이 다 이 虛妄이니 ᄒᆞ다가 諸相의 相 아닌ᄃᆞᆯ 보면 곧 如來를 보리라 =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凡所有相이 皆是虛妄이니 若見諸相의 非相ᄒᆞ면 卽見如來리라.(금강 건 31)

☞ 如來ㅣ 法身ᄋᆞᆯ 나토고져 ᄒᆞ신 젼ᄎᆞ로 一切 諸相이 다 이 虛妄이라 니ᄅᆞ시니 ᄒᆞ다가 一切 諸相의 虛妄ᄒᆞ야 實티 아니ᄒᆞᆫᄃᆞᆯ 보면 곧 如來ㅅ 相 업슨 理를 보리라.(금강 건 31-32)

◉ 須菩提ㅣ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世尊하 ᄌᆞ모 衆生이 이ᄀᆞᆮᄒᆞᆫ 말ᄊᆞᆷ 章句 듣ᄌᆞᆸ고 實ᄒᆞᆫ 信ᄋᆞᆯ 내리 이시리잇가 몯ᄒᆞ리잇가. = 須菩提ㅣ 白佛言ᄒᆞᄉᆞ오ᄃᆡ 世尊하 頗有衆生이 得聞如是言說章句ᄒᆞᄉᆞᆸ고 生實信不ㅣ잇가.(금강 건 32)

☞ 須菩提ㅣ 묻ᄌᆞ오ᄃᆡ 이 法이 甚히 기펴 信홈 어려우며 아롬 어려우니 末世 凡夫ㅣ 智慧 微劣커시니 엇뎨 信ᄒᆞ야 들리잇고. 부텻 對答이 버근 아래 겨시니라.(금강 건 32)

◉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 말ᄒᆞ디 말라. 如來滅ᄒᆞᆫ 後ㅅ 後五百歲예 持戒ᄒᆞ며 福 닷ᄀᆞ리 이시면 이 章句에 能히 信心 내리니 일로 實 사ᄆᆞ라. 이 사ᄅᆞᄆᆞᆫ 一佛 二佛 三四五佛ᄭᅴ 善根ᄋᆞᆯ 심군디 아니라. ᄒᆞ마 無量千萬佛쎄 한 善根ᄋᆞᆯ 심거 이 章句를 듣고 ᄒᆞᆫ 念애 니르리나 조ᄒᆞᆫ 信ᄋᆞᆯ 내ᄂᆞᆫᄃᆞᆯ 반ᄃᆞ기 아롤띠니라. (금강 건 33) *-쎄(께)

☞ 나 滅ᄒᆞᆫ 後ㅅ 後五百勢예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能히 大乘無相戒를 디녀 간대로 諸相ᄋᆞᆯ 取티 아니ᄒᆞ야 生死ㅅ 業을 짓디 아니코 一切 時中에 ᄆᆞᄉᆞ미 샹녜 空寂ᄒᆞ야 諸相ᄋᆡ ᄆᆡ욤 닙디 아니호미 곧 이 住혼ᄃᆡ 업슨 ᄆᆞᄉᆞ미니 如來ㅅ 기ᄑᆞᆫ 法에 ᄆᆞᄉᆞ미 能히 信ᄒᆞ야 들리니 이 사ᄅᆞᄆᆡ 뒷논 마리 眞實ᄒᆞ야 믿브리라. 엇뎨어뇨 이 사ᄅᆞ미 一劫 二劫 三四五劫에 善根을 심군디 아니라. ᄒᆞ마 無量千萬億劫에 한 善根을 시므니 이런ᄃᆞ로 如來ㅣ 니ᄅᆞ샤ᄃᆡ 나 滅度ᄒᆞᆫ 後ㅅ 後五百歲예 能히 相ᄋᆞᆯ 여희여 修行ᄒᆞ리 이시면 이 사ᄅᆞᄆᆞᆫ 一二三四五佛ᄭᅴ 한 善根을 심군디 아닌ᄃᆞᆯ 반ᄃᆞ기 알리라 ᄒᆞ시니라. 엇뎨 일후미 한 善根 심굼고. 버거 아래 ᄆᆞᆼ히 니ᄅᆞ노니 닐온 諸佛ᄭᅴ 一心으로 供養ᄒᆞᄉᆞ와 敎法을 조차 順ᄒᆞᄉᆞ오며 諸菩薩와 善知識과 師僧과 父母와 나 늘근 德 오란 尊長ㅅ 處에 샹녜 恭敬

供養올 行ᄒᆞ야 ᄀᆞᄅᆞ치ᄂᆞᆫ 命을 바다 順ᄒᆞ야 그 ᄠᅳ들 거스디 아니ᄒᆞᆯ씨 이 일후미 한 善根 심구미며 一切 艱難ᄒᆞᆫ 受苦ㅅ 衆生의게 慈悲ㅅ ᄆᆞᅀᆞᄆᆞᆯ 니ᄅᆞ완고 므던히 너기며 아쳐로ᄆᆞᆯ 내디 아니ᄒᆞ며 求호미 잇거든 히믈 조차 주어 施ᄒᆞᆯ씨 이 일후미 한 善根 심구미며 一切 모딘 類예 내 부드러이 忍辱올 行ᄒᆞ야 歡喜心을 發ᄒᆞ고 구든 거슬 ᄇᆞᆫ ᄆᆞᅀᆞᄆᆞᆯ 그치게 ᄒᆞᆯ씨 이 일후미 한 善根 심구미며 六道 衆生에 殺害ᄅᆞᆯ 더으디 아니ᄒᆞ며 소기디 아니ᄒᆞ며 辱ᄒᆞ디 아니ᄒᆞ며 ᄐᆞ디 아니ᄒᆞ며 티디 아니ᄒᆞ며 그 고기 먹디 아니ᄒᆞ고 饒益을 샹녜 行ᄒᆞᆯ씨 이 일후미 한 善根 심구미라. 信心은 般若 波羅密이 能히 一切 煩惱 더로ᄆᆞᆯ 信ᄒᆞ며 般若 波羅密이 能히 一切 出世 功德 일우믈 信ᄒᆞ며 般若 波羅密이 能히 一切 諸佛 내요ᄆᆞᆯ 信ᄒᆞ며 自身中엣 佛性이 本來 淸淨ᄒᆞ야 더러움 업서 諸佛性과 平等ᄒᆞ야 둘 업수믈 信ᄒᆞ며 六道 衆生이 本來 相 업수믈 信ᄒᆞ며 一切 衆生이 다 能히 成佛호ᄆᆞᆯ 信ᄒᆞᆯ씨 이 일후미 조ᄒᆞᆫ 信心이라. (금강 건 35-36)

◉ 須菩提여 如來ㅣ 다 알며 다 보ᄂᆞ니 이 한 衆生이 이ᄀᆞᆮᄒᆞᆫ 無量 福德을 得ᄒᆞ리니 엇뎨어뇨. 이 한 衆生이 ᄂᆞ외 我相과 人相과 衆生相과 壽者相이 업스며 法相 업스며 ᄯᅩ 非法相 업스리라. = 須菩提야. 如來ㅣ 悉知悉見ᄒᆞᄂᆞ니 是諸衆生이 得如是無量福德ᄒᆞ리니 何以故오. 是諸衆生이 無復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며 無法相ᄒᆞ며 亦無非法相ᄒᆞ리라.(금강 건 36)

☞ ᄒᆞ다가 사ᄅᆞ미 如來 滅ᄒᆞᆫ 後에 般若 波羅密心을 發ᄒᆞ며 般若 波羅密 行ᄋᆞᆯ 行ᄒᆞ야 닷가 니겨 아라 부텨 기픈 ᄠᅳ들 得ᄒᆞ닌 諸佛이 모ᄅᆞ시리 업스시니 ᄒᆞ다가 사ᄅᆞ미 上乘法을 듣고 一心으로 受持ᄒᆞ면 곧 能히 般若 波羅密 無相 無著行ᄋᆞᆯ 行ᄒᆞ야 我와 人과 衆生과 壽者ㅅ 四相 업수믈 알리니 我 업수ᄆᆞᆫ 色과 受와 想과 行과 識괘 업슬씨오 人 업수믄 四大實티 아니ᄒᆞ야 ᄆᆞᄎᆞ매 地와 水와 火와 風에 갈ᄯᆞᆯ 알씨오 衆生 업수ᄆᆞᆫ 生滅心 업슬씨오 壽者 업수믄 내 모미 本來 업거니 엇뎨 壽者 ㅣ 이시리오 ᄒᆞᆯ씨니 四相이 ᄒᆞ마 업스면 곧 法眼이 ᄇᆞᆯ가 ᄉᆞᄆᆞ차 有無에 着디 아니ᄒᆞ야 二邊에 머리 여희여 自心 如來ㅣ 내 ᄭᅴ며 내 아라 塵勞 妄念을 永히 여희여 自然히 福 得호미 ᄀᆞᆺ 업스리라. 法相 업수믄 일훔 여희며 相 그처 文字에 거디 아니ᄒᆞᆯ씨오 ᄯᅩ 非法相 업수믄 般若 波羅密法 업다 닐오미 몯ᄒᆞ리니 ᄒᆞ다가 般若 波羅密法이 업다 니ᄅᆞ면 곧 이 法을 誹謗호미라. (금강 건 37-38)

◉ 엇뎨어뇨 이 한 衆生이 ᄒᆞ다가 ᄆᆞᅀᆞ매 相ᄋᆞᆯ 取ᄒᆞ면 곧 我人衆生壽者애 着ᄒᆞ리며 ᄒᆞ다가 法相ᄋᆞᆯ 取ᄒᆞ면 곧 我人衆生壽者애 着ᄒᆞ리니 엇뎨어뇨 ᄒᆞ다가 非法相ᄋᆞᆯ 取ᄒᆞ면 곧 我人衆生壽者애 着ᄒᆞ리니 =何以故오. 是諸衆生이 若心取相ᄒᆞ면 卽爲着我人衆生壽者ㅣ며 若取法相ᄒᆞ면 卽着我人衆生壽者ㅣ니 何以故오. 若取非法相ᄒᆞ면 卽着我人衆生壽者ㅣ리니 (금강 건 38)

☞ 이 세 相ᄋᆞᆯ 取ᄒᆞ면 다 邪見에 著ᄒᆞ리니 다 이 迷ᄒᆞᆫ 사ᄅᆞᄆᆡ 經 ᄠᅳᆫ 아디 몯ᄒᆞᆯᄊᆡ니 이럴ᄊᆡ 修行人이 如來ㅅ 三十二相애 ᄃᆞ사 著호미 몯ᄒᆞ리며 내 般若 波羅密法을 아노라 닐오미 몯ᄒᆞ리며 ᄯᅩ 般若 波羅密行ᄋᆞᆯ 行티 아니ᄒᆞ야 成佛ᄋᆞᆯ 得호려 닐오미 몯ᄒᆞ리라.(금강 건 39)

◉ 이럴ᄊᆡ 法을 取호미 맛당티 몯ᄒᆞ며 非法을 取호미 맛당티 몯ᄒᆞ니 이 ᄠᅳ딘 젼ᄎᆞ로 如來ㅣ 샹녜 닐오ᄃᆡ 너희ᄃᆞᆯ 比丘ㅣ 내 說法이 筏로 가ᄌᆞᆯᄇᆞᆷ ᄀᆞᆮ호ᄆᆞᆯ 알면「筏은 ᄇᆡ라」法도 오히려 반ᄃᆞ기 ᄇᆞ료ᄆᆡ어니 ᄒᆞᄆᆞᆯ며 非法이ᄯᅥ녀. = 是故로 不應取法이며 不應取非法이니 以是義故로 如來ㅣ 常說호ᄃᆡ 汝等比丘ㅣ 知我說法이 如筏喩者ㅣ면 法尙應捨ㅣ어니 何況非法이여.(금강 건 39)

☞ 法은 이 般若波羅密法이오 非法은 生天ᄃᆞᆯ햇 法이니 般若 波羅密法은 能히 一切 衆生ᄋᆞ로 生死大海ᄅᆞᆯ 디나게 ᄒᆞᄂᆞ니 ᄒᆞ마 디나ᄆᆞᆯ 得ᄒᆞ얀 오히려 住호미 맛당티 아니ᄒᆞ곤 ᄒᆞᄆᆞᆯ며 生天ᄃᆞᆯ햇 法을

즐겨 著ᄒᆞ리여.(금강 건 40)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如來ㅣ 阿耨多羅三藐 三菩提ᄅᆞᆯ 得ᄒᆞ니여. 如來ㅣ 說法호미 잇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내 부텻 니ᄅᆞ샨 ᄠᅳᆮ 아로ᄆᆞᆫ 一定ᄒᆞᆫ 法이 일후미 阿耨多羅三藐 三菩提ㅣ 업스며 ᄯᅩ 一定ᄒᆞᆫ 法이 如來 니ᄅᆞ샤미 업스시니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耨多羅三藐 三菩提耶아. 如來有所說法耶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如我解佛所說義ᄂᆞᆫ 無有定法이 名阿耨多羅三藐 三菩提며 亦無有定法이 如來可說이니 (금강 건 40)

☞ 阿耨多羅ᄂᆞᆫ 밧글 브터 得홀ᄯᅴ 아니라 오직 ᄆᆞᅀᆞ매 我所 업수미 곧 이니 오직 病을 對ᄒᆞ야 藥 ᄆᆡᆼᄀᆞᄅᆞ샤ᄆᆞᆯ 브트샤 맛당호ᄆᆞᆯ 조ᄎᆞ샤 니ᄅᆞ실 ᄲᅮ니어신뎡 엇뎨 一定ᄒᆞᆫ 法이 겨시리오. 如來ㅣ 無上正法을 니ᄅᆞ샤ᄃᆡ ᄆᆞᅀᆞ매 本來 得 업스시며 ᄯᅩ 得 아니ᄒᆞ샤ᄆᆞᆯ 니르디 아니커신마ᄅᆞᆫ 오직 衆生의 보미 ᄀᆞᆮ디 아니호ᄆᆞᆯ 爲ᄒᆞ샤 如來ㅣ 뎌 根性을 應ᄒᆞ샤 種種 方便으로 여러 달애샤 化ᄒᆞ샤 引導ᄒᆞ샤 한 執着ᄋᆞᆯ 여희에 ᄒᆞ시며 一切 衆生의 妄心 生滅이 머므디 아니ᄒᆞ야 境界조차 뮈여 前念이 믄득 닐어든 後念이 반ᄃᆞ기 이ᄂᆞ니 아로미 ᄒᆞ마 머므디 아니ᄒᆞ면 보미 ᄯᅩ 잇디 아니호ᄆᆞᆯ ᄀᆞᄅᆞ쳐 뵈시니 이 ᄀᆞᆮᄒᆞ면 엇뎨 一定ᄒᆞᆫ 法이 如來 니ᄅᆞ샤미 겨시리오. 阿ᄂᆞᆫ ᄆᆞᅀᆞ미 妄念 업수미오 耨多羅ᄂᆞᆫ ᄆᆞᅀᆞ미 驕慢 업수미오 三은 ᄆᆞᅀᆞ미 샹녜 正定에 이슈미오 藐은 ᄆᆞᅀᆞ미 샹녜 正慧예 이수미오 三菩提ᄂᆞᆫ ᄆᆞᅀᆞ미 샹녜 空寂호미니 一念에 凡夫ㅅ ᄆᆞᅀᆞ미 다 업스면 곧 佛性ᄋᆞᆯ 보리라.(금강 건 41-42)

◉ 엇뎨어뇨. 如來 니ᄅᆞ샨 法이 다 取티 몯ᄒᆞ며 니ᄅᆞ디 몯ᄒᆞ며 法 아니며 非法 아니니. =何以故ㅣ어뇨. 如來所說法이 皆不可取며 不可說이며 非法이며 非非法이니 (금강 건 42)

☞ 사ᄅᆞ미 如來ㅅ 니ᄅᆞ샨 文字 章句에 執着ᄒᆞ고 無相ㅅ 理ᄅᆞᆯ 아디 몯ᄒᆞ야 간대로 아로ᄆᆞᆯ 낼까 저ᄒᆞᆫ 젼ᄎᆞ로 ᄉᆞᆯ오ᄃᆡ 取티 몯ᄒᆞ리라. 如來ㅣ 種種 衆生化호ᄆᆞᆯ 爲ᄒᆞ샤 機ᄅᆞᆯ 應ᄒᆞ시며 量ᄋᆞᆯ 조ᄎᆞ샤 두샨 말ᄊᆞ미 ᄯᅩ 엇뎨 一定ᄒᆞ샴 겨시리오. ᄇᆡ홀 싸ᄅᆞ미 如來ㅅ 기픈 ᄠᅳᆮ 아디 몯ᄒᆞᅀᆞ와 오직 如來ㅅ 니ᄅᆞ샨 敎法을 외오ᄉᆞᆸ고 本心을 아디 몯ᄒᆞ야 ᄆᆞᄎᆞᆷ내 成佛 몯ᄒᆞ린 젼ᄎᆞ로 니르디 몯ᄒᆞ리라 ᄉᆞᆯ오니라. 이베 외오고 ᄆᆞᅀᆞ매 行티 아니호미 곧 法 아니오 이베 외오고 ᄆᆞᅀᆞ매 行ᄒᆞ야 得혼 곧 업숨 아로미 곧 非法 아니라.(금강 건 43)

◉ 엇뎨어뇨. 一切賢聖이 다 ᄒᆞ욤 업슨 法으로 差別이 겨시니이다 = 所以者何ㅣ어뇨. 一切賢聖이 皆以無爲法으로 而有差別이시니이다.(금강 건 43)

☞ 三乘 根性의 아로미 ᄀᆞᆮ디 아니ᄒᆞ며 보미 기프며 녀투미 이실ᄊᆡ 差別이라 니ᄅᆞ니라. 부텨 니ᄅᆞ샨 ᄒᆞ욤업슨 法은 곧 이 住 업수미니 住 업수미 곧 이 相 업수미오 相 업수미 곧 니르와돔 업수미오 니르와돔 업수미 곧 滅 업수미니 훤히 空寂ᄒᆞ야 비취여 ᄲᅮ믈 ᄒᆞᆫ ᄢᅴ 펴며 비취여 아로미 ᄀᆞ욤 업서 眞實ㅅ 이 解脫 佛性이니 佛이 곧 이 覺이오 覺이 곧 이 觀照ㅣ오 觀照ㅣ 곧 智慧오 智慧 곧 이 般若波羅密多ㅣ라. 또 本애 닐오ᄃᆡ 聖賢說法이 一切智 萬法이 ᄀᆞᄌᆞ시니 性에 겨샤 무루믈 조ᄎᆞ샤 差別ᄒᆞ샤 사ᄅᆞᄆᆞ로 ᄆᆞᅀᆞ미 여러 各各 제 見性케 ᄒᆞ시ᄂᆞ니라.(금강 건 44)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ᄒᆞ다가 사ᄅᆞ미 三千大千 世界예 七寶ᄅᆞᆯ ᄀᆞᄃᆞ기 ᄒᆞ야 ᄇᆡ 布施ᄒᆞ면 이 사ᄅᆞᄆᆡ 得혼 福德이 하려 몯하려.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하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이 福德이 곧 福德性 아닐ᄊᆡ 이럴ᄊᆡ 如來ㅣ 福德 하다 니ᄅᆞ시ᄂᆞ니이다.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若人이 滿三千大千世界 七寶ᄒᆞ야 以用布施ᄒᆞ면 是人所得福德이 寧爲多아 不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甚多ᄒᆞ

이다. 世尊하 何以故ㅣ어뇨. 是福德이 卽非福德性일ᄉᆡ 是故로 如來ㅣ 說福德多ㅣ시니이다.(금강 건 44-45)

☞ 三千大千 世界ㅅ 七寶로 가져 布施ᄒᆞ닌 福 得호미 비록 하나 性上앤 ᄒᆞᆫ 利益도 업거니와 摩訶般若波羅密을 브터 修行ᄒᆞ야 自性으로 諸有에 ᄠᅥ러디디 아니케ᄒᆞ면 이 일후미 福德性이니 ᄆᆞᅀᆞ미 能所ㅣ 이시면 곧 福德性 아니오 能所ㅅ ᄆᆞᅀᆞ미 부텻 敎를 브터 行이 부텻 行이 곧ᄒᆞ면 이 일후미 福德性이오 부텻 敎를 븓디 아니ᄒᆞ야 能히 부텻 行을 붋디 몯ᄒᆞ면 곧 福德性 아니라.(금강 건 45)

◉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이 經에 四句偈ᄃᆞᆯ해 니르리 受持ᄒᆞ야 다른 사ᄅᆞᆷ 爲ᄒᆞ야 니ᄅᆞ면 그 福이 뎌에 더으리니.= 若復有人이 於此經中에 受持乃至四句偈等ᄒᆞ야 爲他人說ᄒᆞ면 其福이 勝彼하리니.(금강 건 46)

☞ 十二部 敎ㅅ 큰 ᄠᅳ디 四句ㅅ 中에 다 잇ᄂᆞ니 엇뎨 그러호ᄆᆞᆯ 알료. 諸經中에 讚歎ᄒᆞ샨 四句偈 곧 이 摩訶 般若波羅密多ㅣ니 摩訶 般若ㅣ 諸佛ㅅ 毋ᆯ씨니 三世 諸佛이 다 이 經을 브트샤 修行ᄒᆞ샤ᅀᅡ 비르서 成佛을 得ᄒᆞ시ᄂᆞ니라. 般若心經에 닐오ᄃᆡ 三世 諸佛이 般若 波羅密多ᄅᆞᆯ 브트신 젼ᄎᆞ로 阿耨多羅三藐 三菩提ᄅᆞᆯ 得ᄒᆞ시다 ᄒᆞ니라. 스스을 조차 ᄇᆡ호ᄆᆞᆯ 닐오ᄃᆡ 受ㅣ오 ᄠᅳ들 아라 修行호ᄆᆞᆯ 닐오ᄃᆡ 持오 제 아라 제 行호미 이제 利오 사ᄅᆞᆷ 爲ᄒᆞ야 펴 닐오미 이 ᄂᆞᄆᆞᆯ 利호미니 功德이 넙고 커 ᄀᆞᆺ 업스니라.(금강 건 46-47)

◉ 엇뎨어뇨. 須菩提여 一切 諸佛와 佛ㅅ 阿耨多羅三藐 三菩提法이 다 이 經 브터 나ᄂᆞ니라 = 何以故오. 須菩提야. 一切諸佛와 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이 皆從此經出ᄒᆞᄂᆞ니라.(금강 건 47)

☞ 이 經은 이 一卷ㅅ 그를 ᄀᆞᄅᆞ치샨디 아니라. 當ᄒᆞᆫ 사ᄅᆞᄆᆡ 佛性이 體를 브터 用을 니ᄅᆞ와다 微妙ᄒᆞᆫ 利ㅣ 無窮호ᄆᆞᆯ 나토려 ᄒᆞ시니라. 般若ᄂᆞᆫ 곧 智慧니 智ᄂᆞᆫ 方便으로 功 삼고 慧ᄂᆞᆫ 決斷호ᄆᆞ로 用삼ᄂᆞ니 곧 一切 時中에 아라 비취ᄂᆞᆫ ᄆᆞᅀᆞ미 이니 一切 諸佛와 阿耨多羅三藐 三菩提法이 다 아라 비취욤브터 날씨 니ᄅᆞ샤ᄃᆡ 이 經브터 나다 ᄒᆞ시니라.(금강 건 47-48) *ᄆᆞᅀᆞ미 이니 =是니

◉ 須菩提여. 닐온 佛法이 곧 佛法 아니라 = 須菩提야. 所謂佛法者ㅣ 卽非佛法이라.(금강 건 48)

☞ 니ᄅᆞ샨 一切 文字 章句ᄂᆞᆫ 標 곧ᄒᆞ며 ᄉᆞᆺ가락 곧ᄒᆞ니 「標ᄂᆞᆫ 보라미라」 標와 ᄉᆞᆺ가라ᄀᆞᆫ 그리메와 뫼ᅀᅡ리왓 ᄠᅳ디니 標標ᄅᆞᆯ 브터 物을 取ᄒᆞ고 ᄉᆞᆺ가라ᄀᆞᆯ브터 ᄃᆞᄅᆞᆯ 볼 ᄲᅮ니언뎡 ᄃᆞ리 이 ᄉᆞᆺ가락 아니며 標ㅣ 이 法 아니니 오직 經을 브터 法을 取ᄒᆞᆯ ᄲᅮ니언뎡 經이 이 法 아니니라. 經文은 肉眼이 어루 보려니와 法은 慧眼이ᅀᅡ 能히 보리니 ᄒᆞ다가 慧眼 업스닌 오직 그 文을 보고 그 法을 보디 몯ᄒᆞ리니 ᄒᆞ다가 法을 보디 몯ᄒᆞ면 곧 부텻 ᄠᅳ들 아디 몯ᄒᆞᅀᆞ오리니 부텻 ᄠᅳ들 아디 몯ᄒᆞᅀᆞ오면 經을 외와도 佛道ᄅᆞᆯ 일우디 몯ᄒᆞ리라.(금강 건 48-49) * 뫼ᅀᅡ리(메아리) =響/-왓 (사이시옷: 토씨 다음에도 사잇소리가 옴)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須陁洹이 能히 이 念을 호ᄃᆡ 내 須陁洹果ᄅᆞᆯ 得호라 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須陁洹이 能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須陁洹果아 不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不也 世尊하.(금강 건 49)

☞ 須陁洹은 梵語ㅣ니 唐마랜 流에 거스류미니 生死流에 거스려 六塵에 더럽디 아니ᄒᆞ야 ᄒᆞᆫ갓 無

漏業을 닷가 鹿(총)ᄒᆞ며 므거운 煩惱ㅣ 나디 아니호ᄆᆞᆯ 得ᄒᆞ야 決定히 地獄 畜生 修羅 다ᄅᆞᆫ 類ㅅ 모ᄆᆞᆯ 受티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須陁洹果ㅣ라. ᄒᆞ다가 無相法을 알면 곧 果得혼 ᄆᆞᅀᆞᆷ 업스리니 져기 果得혼 ᄆᆞᅀᆞᆷ 두면 곧 須陁洹이라 일훔 몯ᄒᆞ릴씨 不也ㅣ라 ᄉᆞᆯ오니라.(금강 건 49-50)

◉ 엇뎨어뇨. 須陁洹을 일후미 流에 드로미로ᄃᆡ 드론 곧 업스니 色과 聲과 味와 觸과 法에 드디 아니호미 이 일후미 須陁洹이이다.= 何以故ㅣ어뇨. 須陁洹을 名爲入流ㅣ로ᄃᆡ 而無所入ᄒᆞ니 不入色聲香味觸法이 是名須陁洹이이다.(금강 건 50)

☞ 流는 聖人ㅅ 무리니 須陁洹ㅅ 사ᄅᆞ미 ᄒᆞ마 총(한자입력 안됨)ᄒᆞ며 므거운 煩惱ᄅᆞᆯ 여흴씨 聖人ㅅ 무레 드로ᄃᆡ 드론 곧 업수믄 果得혼 ᄆᆞᅀᆞᆷ 업슬씨라. 須陁洹은 修行ᄒᆞᆯ 싸ᄅᆞᄆᆡ 첫 果ㅣ라.(금강 건 50)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斯陁含이 能히 이 念을 호ᄃᆡ 내 斯陁含果ᄅᆞᆯ 得호라 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斯陁含ᄋᆞᆯ 일후미 ᄒᆞᆫ번 가며 오미로ᄃᆡ 實로 가며 오미 업슬씨 이 일후미 斯陁含이니이다.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斯陁含이 能作是念호ᄃᆡ 我ㅣ 得斯陁含果不아. 須菩提言不也世尊하. 何以故ㅣ어뇨. 斯陁含을 名一往來로ᄃᆡ 而實無往來ᄒᆞᆯᄉᆡ 是名斯陁含이이다.(금강 건 50-51)

☞ 斯陁含은 梵語ㅣ니 唐 마랜 ᄒᆞᆫ 번 가며 오미니 三界ㅅ ᄆᆡ요ᄆᆞᆯ ᄇᆞ려 三界ㅅ ᄆᆡ요미 다ᄋᆞᆯ씨 일후미 斯陁含이라. 斯陁含ᄋᆞᆯ ᄒᆞᆫ 번 가며 오다 일훔호ᄆᆞᆫ 가 天上ᄋᆞᆯ 조차 도로 人間애 와 나고 人間ᄋᆞᆯ 브터 주거 도로 天上애 나 ᄆᆞ차 生死애 나 三界業이 다ᄋᆞᆯ씨 일후미 斯陁含果ㅣ라. 大乘 斯陁含은 누네 諸境을 보고 ᄆᆞᄉᆞ매 一生 滅이 이셔 第二生滅이 업슬씨 일후미 ᄒᆞᆫ 번 가며 오미니 前念이 妄ᄋᆞᆯ 니ᄅᆞ와다ᄃᆞᆫ 後念이 곧 그치며 前念이 着 잇거든 後念이 곧 여흴씨 實로 가며 오미 업스니라.(금강 건 51-52)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阿那含이 能히 이 念을 호ᄃᆡ 내 阿那含果ᄅᆞᆯ 得호라 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阿那含ᄋᆞᆯ 일후미 오디 아니호미로ᄃᆡ 實로 오디 아니홈 업슬씨 이럴씨 일후미 阿那含이니이다.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那含이 能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阿那含果不아. 須菩提言不也世尊하. 何以故ㅣ어뇨. 阿那含을 名爲不來로ᄃᆡ 而實無不來ᄒᆞᆯᄉᆡ 是故로 名阿那含이이다.(금강 건 52)

☞ 阿那含은 梵語ㅣ니 唐마랜 도라오디이니호미며 ᄯᅩ 일후미 欲애 나미니 欲애 나ᄆᆞᆫ 밧ᄀᆞ로 欲ᄒᆞ얌직ᄒᆞᆫ 境 보디 몯ᄒᆞ고 안ᄒᆞ로 欲心이 得홀껏 업시 一定히 欲界ᄅᆞᆯ 向ᄒᆞ야 受生 아니ᄒᆞᆯ씨 일후미 오디아니호미로ᄃᆡ 實로 옴 업스니라. ᄯᅩ 일후미 도라오디 아니호미니 欲習이 永히 업서 決定히 와 受生 아니ᄒᆞᆯ씨 이럴씨 일후미 阿那含이라. (금강 건 52-53) *'-이다'의 문법화-- 도라오디+이니+호미며(도라오디 일다?+홈?)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阿羅漢이 能히 이 念을 호ᄃᆡ 내 阿羅漢道ᄅᆞᆯ 得호라 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世尊하.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羅漢이 能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阿羅漢道不아. 須菩提言不也世尊하. (금강 건 53)

☞ 諸佛이 ᄒᆞ마 다아 ᄂᆞ외야 煩惱 업수미 일후미 阿羅漢이니 阿羅漢은 煩惱ㅣ 永히 업서 物와 ᄃᆞ톰 업스니 ᄒᆞ다가 果得혼 ᄆᆞᄉᆞᆯ 지ᄉᆞ면 곧 이 ᄃᆞ톰 이슈미라.(금강 건 53)

◉ 엇뎨어뇨. 實로 法 이슴 업수미 일후미 阿羅漢이니 世尊하. ᄒᆞ다가 阿羅漢이 이 念을 호ᄃᆡ 내 阿羅漢道를 得호라 ᄒᆞ면 곧 我人 衆生 壽者애 着호미니이다. = 何以故ㅣ어뇨. 實無有法이 名阿羅漢이니 世尊하. 若阿羅漢이 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阿羅漢道ㅣ라면 卽爲着我人衆生壽者ㅣ니이다.(금강 건 53)

☞ 阿羅漢은 梵語ㅣ니 唐마랜 無諍이니 煩惱ㅣ 그출껏 업스며 貪嗔이 여희욜껏 업서 性이 어긔며 順호미 업서 心과 境괘 다 空ᄒᆞ야 안팟기 샹녜 괴외ᄒᆞ니 ᄒᆞ다가 果得혼 ᄆᆞᅀᆞᆷ 이시면 곧 凡夫와 ᄀᆞᆮ홀씨 不也ㅣ라 ᄉᆞᆯ오니라.(금강 건 54)

◉ 世尊하 부톄 나를 無諍 三昧를 得ᄒᆞ야 人中에 ᄆᆞᆺ 第一이라 ᄒᆞ시나니 이 第一欲 여흰 阿羅漢이니 世尊하 내 이 念을호ᄃᆡ 내 이 欲 여흰 阿羅漢이로라 아니ᄒᆞ노이다. =世尊하 佛說我를 得無諍三昧ᄒᆞ야 人中에 最爲第一이라ᄒᆞ시ᄂᆞ니 是第一離欲阿羅漢이니 世尊하 我ㅣ 不作是念호ᄃᆡ 我ㅣ 是離欲阿羅漢이로라 ᄒᆞ노이다.(금강 건 54)

☞ 엇뎨 일후미 無諍 三昧오 닐오ᄃᆡ 阿羅漢이 ᄆᆞᅀᆞ미 生滅 去來업고 오직 本覺이 샹녜 비췰씨 일후미 無諍 三昧라. 三昧ᄂᆞᆫ 梵語ㅣ니 예셔 닐오맨 正ᄒᆞᆫ 受ㅣ며 ᄯᅩ 닐오맨 正ᄒᆞᆫ 見이니 九十五 種 邪見 머리 여희요미 이 일후미 正見이라. 그러나 空中에 ᄯᅩ 블ᄀᆞ며 어드운 諍이 이시며 性中에 邪ᄒᆞ며 正ᄒᆞᆫ 諍이 잇ᄂᆞ니 念念이 샹녜 正ᄒᆞ야 ᄒᆞᆫ 念ㅅ 邪ᄒᆞᆫ ᄆᆞᅀᆞᆷ 업수미 곧 이 無諍 三昧니 이 三昧를 닷ᄀᆞ면 人中에 ᄆᆞᆺ 第一이니 ᄒᆞ다가 ᄒᆞᆫ 念이나 果得혼 ᄆᆞᅀᆞᆷ 두면 곧 無諍 三昧라 일훔 몯 ᄒᆞ리라.(금강 건 55)

◉ 世尊하 내 ᄒᆞ다가 이 念을 호ᄃᆡ 내 阿羅漢 道를 得호라 ᄒᆞ면 世尊이 곧 須菩提ㅣ 이 阿蘭那行을 즐기ᄂᆞ니라 니ᄅᆞ디 아니ᄒᆞ시려ᄂᆞᆯ 須菩提ㅣ 實로 行혼 곧 업슬씨 須菩提를 일훔ᄒᆞ샤ᄃᆡ 이 阿蘭那行을 즐기ᄂᆞ니라 ᄒᆞ시ᄂᆞ이다. =世尊하 我ㅣ 若作是念호ᄃᆡ 我ㅣ 得阿羅漢道호라 ᄒᆞ면 世尊이 卽不說須菩提ㅣ 是樂阿蘭那行者ㅣ라 ᄒᆞ시려ᄂᆞᆯ 以須菩提ㅣ 實無所行ᄒᆞᆯ식 而名須菩提ᄒᆞ샤ᄃᆡ 是樂阿蘭那行이라 ᄒᆞ시ᄂᆞ이다.(금강 건 55-56)

☞ 阿蘭那ᄂᆞᆫ 梵語ㅣ니 唐 마랜 無諍行이니 無諍이 곧 이 淸淨行이라. 淸淨行은 得홈 윗ᄂᆞᆫ ᄆᆞᅀᆞᆷ 더러ᄇᆞ릴씨니 ᄒᆞ다가 得홈 잇ᄂᆞᆫ ᄆᆞᅀᆞᆷ 두면 곧 이 有諍이니 有諍이 곧 淸淨道 아니니 샹녜 得홈 업슨 ᄆᆞᅀᆞᄆᆞᆯ 行ᄒᆞ면 곧 이 無諍이라.(금강 건 56)

◉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ᄠᅳ데 엇더뇨. 如來ㅣ 녜 燃燈佛所애 이셔 法애 得혼 고디 잇ᄂᆞ녀 아니녀. 아니이다. 世尊하. 如來ㅣ 燃燈佛所애 겨샤 法에 實로 得ᄒᆞ샨 곧 업스시니이다. =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於意云何오. 如來ㅣ 昔在燃燈佛所ᄒᆞ야 於法에 有所得가 不아. 不也世尊하. 如來ㅣ 在燃燈佛所ᄒᆞ샤 於法에 實無所得ᄒᆞ시니이다.(금강 건 56-57)

☞ 부톄 須菩提ㅣ 法得혼 ᄆᆞᅀᆞᆷ 둘까 저흐샤 이 疑心 아ᄉᆞᄆᆞᆯ 爲ᄒᆞ시ᄂᆞᆫ 젼ᄎᆞ로 무러시ᄂᆞᆯ 須菩提ㅣ 法의 得혼 곧 업수믈 아라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아니이다 ᄒᆞ니라. 燃燈佛은 이 釋迦佛ㅅ 授記ᄒᆞ신 스스이시니 이럴씨 須菩提ᄃᆞ려 무르샤ᄃᆡ 내 스승ᄭᅴ 法을 드러 法이 어루 得호미 잇ᄂᆞ녀 아니녀 ᄒᆞ야시날 須菩提ㅣ 즉자히 ᄉᆞᆯ오ᄃᆡ 法은 스스의 여러 뵈요ᄆᆞᆯ 因ᄒᆞ나 實로 得혼 곧 업스니 오직 自性이 本來 淸淨ᄒᆞ며 塵勞 업서 괴외히 샹녜 비취ᄂᆞᆫᄃᆞᆯ 알면 곧 제 成佛ᄒᆞ리니 반ᄃᆞ기 아ᄉᆞ오리로다. 世尊이 燃燈佛所애 겨샤 法에 實로 得ᄒᆞ샨 곧 업스샷다. 如來ㅅ 法은 가ᄌᆞᆯ비건댄 힛 光明 ᄇᆞᆯ기 비

취요미 ᄀᆞᆺ 업ᄃᆞᆯᄒᆞ야 取티 몯ᄒᆞ리라.(금강 건 57-58) *아소다=遣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菩薩이 佛土ᄅᆞᆯ 莊嚴ᄒᆞᄂᆞ녀 아닌ᄂᆞ녀. 아니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佛土ᄅᆞᆯ 莊嚴호미 곧 莊嚴이 아니라 이 일후미 莊嚴이니이다.=須菩提야. 於意云何오. 菩薩이 莊嚴佛土아 不아. 不也世尊하. 何以故오. 莊嚴佛土者ㅣ 卽非莊嚴이라. 是名莊嚴이니이다.(금강 건 58)

☞ 淸淨ᄒᆞᆫ 佛土ᄂᆞᆫ 相 어스며 形 업거니 어느 物이 能히 莊嚴ᄒᆞ리오. 오직 定慧 財寶로 莊嚴이라 비러 일훔ᄒᆞᄂᆞ니 第一은 世間佛土 莊嚴호미니 뎔 지스며 經 ᄊᆞ며 布施ᄒᆞ며 供養호미오. 第二ᄂᆞᆫ 身佛土 莊嚴호미니 一切人을 보아 너비 恭敬을 行호미 이오 第三은 心佛土 莊嚴호미니 ᄆᆞᅀᆞ미 조ᄒᆞ면 佛土ㅣ 좃ᄂᆞ니 念에 샹녜 부텻 ᄆᆞᅀᆞᆷ 行호미라.(금강 건 59)

◉ 이럴ᄊᆡ 須菩提여. 諸菩薩 摩訶薩이 반ᄃᆞ기 이 ᄀᆞ티 淸淨心을 내욜띠니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미 몯ᄒᆞ리며 聲과 香과 味와 觸과 法에 住혼 곧 업시ᄒᆞ야 그 ᄆᆞᅀᆞᆷ 내욜띠니라. =是故로 須菩提야. 諸菩薩摩訶薩이 應如是生淸淨心이니 不應住色生心ᄒᆞ며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이니 應無所住ᄒᆞ야 而生其心이니라.(금강 건 59)

☞ 이ᄂᆞᆫ 修行ᄒᆞᆯ 싸ᄅᆞ미 ᄂᆞᄆᆡ 是非 보고 제 닐오ᄃᆡ 내 能ᄒᆞ며 내 아노라 ᄒᆞ야 ᄆᆞᅀᆞ매 末學ᄋᆞᆯ 므던히 너교미 맛당티 아니ᄒᆞ니 이 淸淨心이 아니오, 自性에 샹녜 智慧ᄅᆞᆯ 내야 平等慈ᄅᆞᆯ 行ᄒᆞ야 ᄆᆞᅀᆞᄆᆞᆯ ᄂᆞᄌᆞ기 ᄒᆞ야 一切 衆生ᄋᆞᆯ 恭敬호미 이 修行ᄒᆞᆯ 싸ᄅᆞᄆᆡ 淸淨心이라. ᄒᆞ다가 제 그 ᄆᆞᅀᆞᄆᆞᆯ 조히 아니코 淸淨ᄒᆞᆫ 고ᄃᆞᆯ ᄃᆞ사 着ᄒᆞ야 ᄆᆞᅀᆞ미 住혼 곧 이시면 곧 이 法相애 著호미니 色ᄋᆞᆯ 보고 色애 著ᄒᆞ야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면 곧 이 迷ᄒᆞᆫ 사ᄅᆞ미오 色ᄋᆞᆯ 보고 色ᄋᆞᆯ 여희여 色애 住티 아니ᄒᆞ야 ᄆᆞᅀᆞᆷ내면 곧 이 안 사ᄅᆞ미니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ᄆᆞᆫ 구루미 하ᄂᆞᆯ ᄀᆞ리옴 ᄀᆞᆮ고 色애 住티 아니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만 虛空애 구룸 업서 日月이 댱샹 비취 ᄃᆞᆺᄒᆞ니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ᄆᆞᆫ 곧 이 妄念이오 色이 住티 아니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ᄆᆞᆫ 곧 이 眞實ㅅ 智 비취면 곧 ᄇᆞᆯ고미니 ᄇᆞᆯᄀᆞ면 곧 煩惱ㅣ 나디 아니코 어드우면 둗그레 난 겻니ᄂᆞ니라. *ᄃᆞᆺ다(愛)/ *난겻니ᄂᆞ니라 =競起

◉ 須菩提여. 가ᄌᆞᆯ비건댄 사ᄅᆞ미 모미 須彌山王 ᄀᆞᆮᄒᆞ면 ᄠᅳ데 엇더뇨. 이 모미 크녀 아니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크이다. 世尊하. 엇뎨어뇨. 부텨 니ᄅᆞ샤미 몸 아니라 이 일후미 큰 모미니이다. =須菩提야. 譬如有人이 身如須彌山王ᄒᆞ면 於意云何오. 是身이 爲大아 不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甚大ᄒᆞ이다. 世尊하. 何以故ㅣ어뇨. 佛說이 非身이라. 是名大身이니이다.(금강 건 61)

☞ 色身이 비록 크나 안 ᄆᆞᅀᆞ미 量이 져그면 큰 모미라 일훔 몯ᄒᆞ리오. 안 ᄆᆞᅀᆞ미 量이 커ᅀᅡ 비르서 일후미 큰 모미리라.(금강 건 61)

◉ 須菩提여. 恒河中에 잇ᄂᆞᆫ 몰앳 數 ᄀᆞᆮᄒᆞ야 이 몰애 ᄀᆞᆮᄒᆞᆫ 恒河ᄅᆞᆯ ᄠᅳ데 엇더뇨. 이 한 恒河ㅅ 몰애 하려 몯하려.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하이다. 世尊하. 오직 한 恒河ᄲᅮᆫ도 오히려 하 數 업곤 ᄒᆞ ᄆᆞᆯ며 그 몰애ᄯᅳ녀. 須菩提여. 내 이제 實ᄒᆞᆫ 마ᄅᆞᆯ 너ᄃᆞ려 니ᄅᆞ노니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七寶로 이런 恒河ㅅ 몰애 數ㅅ 三千大千 世界예 ᄎᆡ와 ᄡᅥ 布施ᄒᆞ면 福 得호미 하려 몯하려.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하이다. 世尊하.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이 經中에 四句偈ᄃᆞᆯ 호ᄆᆞᆯ 受持ᄒᆞ야 다ᄅᆞᆫ 사ᄅᆞᆷ 爲ᄒᆞ야 닐우매 니를면 이 福德이 알ᄲᅴ 福德에 더으니라. = 須菩提야. 如恒河中所有沙數ᄒᆞ야 如是沙等恒河ᄅᆞᆯ 於意云何오. 是諸恒河沙ㅣ 寧爲多아 不아. 須菩提ㅣ 言ᄒᆞᅀᆞ오ᄃᆡ 甚多ᄒᆞ이다. 世尊하. 但諸恒河도 尙多無數ㅣ혼 何況其沙ㅣ잇가. 須菩提야. 我今實言告汝ᄒᆞ노니 若有善男子善女人이 以七寶로 滿爾所恒河沙數三千大千世界ᄒᆞ야 以用布施ᄒᆞ면 福得이 多아 不아.

須菩提言甚多世尊하.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若善男子善女人이 於此經中에 乃至受持四句偈等ᄒᆞ야 爲他人說ᄒᆞ면 而此福德이 勝前福德ᄒᆞ니라.(금강 건 62)

☞ 七寶를 布施ᄒᆞ면 三界中엣 富貴報를 得ᄒᆞ고 大乘經典을 講說ᄒᆞ면 한 드르니로 큰 智慧를 내야 우 업슨 道를 일우게 ᄒᆞ리니 受持혼 福德이 알ᄑᆡ 七寶ㅅ 福德에 더은들 반ᄃᆞ기 알리로다.(금강 건 63)

◉ 또 버거 須菩提여. 조차 이 經을 닐어 四句偈ᄃᆞᆯ해 니르리 반ᄃᆞ기 알라. 이 고ᄃᆞᆫ 一切 世間ㅅ 天人 阿修羅ㅣ 다 반ᄃᆞ기 供養호ᄃᆡ 부텻 塔廟ᄀᆞ티 ᄒᆞ리니 = 復次須菩提야. 隨說是經ᄒᆞ야 乃至四句偈等히 當知此處ᄂᆞᆫ 一切世間天人阿修羅ㅣ 皆應供養호ᄃᆡ 如佛塔廟ㅣ니 (금강 건 63)

☞ 잇논 고대 ᄒᆞ다가 사ᄅᆞ미 잇거든 곧 이 經을 닐오ᄃᆡ 念念에 念 업슨 ᄆᆞᅀᆞᆷ과 得혼 곧 업슨 ᄆᆞᅀᆞᆷ과 能所 짓디 아니ᄒᆞᆫ ᄆᆞᅀᆞᆷ을 샹녜 行ᄒᆞ야 닐올띠니 ᄒᆞ다가 能히 여러 ᄆᆞᅀᆞᆷ을 머리 여희오 샹녜 得혼 곧 업슨 ᄆᆞᅀᆞᆷ을 브트면 곧 이 身中에 如來ㅅ 全身舍利 겨신 젼ᄎᆞ로 니ᄅᆞ샤ᄃᆡ 부텻 塔廟 ᄀᆞᆮ다 ᄒᆞ시니라. 得혼 곧 업슨 ᄆᆞᅀᆞᆷ로 이 經 니ᄅᆞᄂᆞ닌 天龍八部ㅣ 다 와 드러 受호ᄆᆞᆯ 感得ᄒᆞ려니 聲과 利益 爲ᄒᆞ야 이 經 니ᄅᆞᄂᆞ닌 주거 三塗애 ᄠᅥ러디려니 므슴 利益 이시리오. ᄆᆞᅀᆞ미 ᄒᆞ다가 淸淨ᄒᆞ야 爲ᄒᆞ야 이 經을 닐어 한 드르니로 迷妄ᄒᆞᆫ ᄆᆞᅀᆞᆷ을 덜오, 本來ㅅ 佛性ᄋᆞᆯ 아라 샹녜 眞實을 行케 ᄒᆞ면 天人 阿修羅等이 다 와 持經ᄒᆞᆯ 싸ᄅᆞᆷ 供養호ᄆᆞᆯ 感得ᄒᆞ리라.(금강 건 64)

◉ ᄒᆞᆯ며 사ᄅᆞ미 다 能히 受持讀誦호미ᄯᅳ녀. 須菩提여. 이 사ᄅᆞ미 ᄆᆞᆺ 노ᄑᆞᆫ 第一 希有ᄒᆞᆫ 法을 일울ᄯᆞᆯ 반ᄃᆞ기 아ᄅᆞᆯ띠니 ᄒᆞ다가 이 經典 잇ᄂᆞᆫ 고ᄃᆞᆫ 부텨와 尊重ᄒᆞᆫ 弟子 이슈미니라. = 何況有人이 盡能受持讀誦호미여. 須菩提야. 當知是人이 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이니 若是經典所在之處ᄂᆞᆫ 則爲有佛若尊重弟子ㅣ니라.(금강 건 65)

☞ 제 ᄆᆞᅀᆞ매 이 經을 외오며 제 ᄆᆞᅀᆞ매 經ㅅ ᄠᅳ들 알며 제 ᄆᆞᅀᆞ매 無著 無相ㅅ 理ᄅᆞᆯ 體得ᄒᆞ야 잇논 고대 샹녜 부텻 行ᄋᆞᆯ 닷가 念念에 ᄆᆞᅀᆞ미 그쳐 歇홈 업스면 제 ᄆᆞᅀᆞ미 이 부톄론 젼ᄎᆞ로 니ᄅᆞ샤ᄃᆡ 잇논 고디 부텨 이슈미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65)

◉ 그 ᄢᅴ 須菩提ㅣ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世尊하 반ᄃᆞ기 이 經을 엇뎨 일훔ᄒᆞ며 우리ᄃᆞᆯ히 엇뎨 奉持ᄒᆞ리잇고.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 經이 일후미 金剛般若波羅密이니 이 名字로 네 반ᄃᆞ기 奉持ᄒᆞᆯ띠니라. 엇뎨어뇨. 須菩提여. 부텨 니ᄅᆞᄂᆞᆫ 般若波羅密이 곧 般若波羅密이 아니라. 이 일후미 般若波羅密이니라. = 爾時須菩提ㅣ 白佛言ᄒᆞᄉᆞ오ᄃᆡ 世尊하 當何名此經ᄒᆞ며 我等이 云何奉持잇고. 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是經이 名爲金剛般若波羅密이니 以是名字로 汝當奉持니라. 所以者何오. 須菩提야. 佛說般若波羅密이 卽非般若波羅密이라. 是名般若波羅密이니라.(금강 건 66)

☞ 부텨 니ᄅᆞ샨 般若波羅密은 한 ᄇᆡ홀 싸ᄅᆞᄆᆞ로 智慧를 ᄇᆞ 어린 ᄆᆞᅀᆞᆷ 生滅을 덜에 ᄒᆞ시니 生滅이 더러 업수미 곧 뎌 ᄀᆞᅀᅢ 가미니 ᄒᆞ다가 ᄆᆞᅀᆞ미 得혼 곧 이시면 곧 뎌 ᄀᆞᅀᅢ 감 아니오, ᄆᆞᅀᆞ미 ᄒᆞᆫ 法도 得홈 업스면 곧 이 뎌 ᄀᆞᅀᅢ니 이베 니ᄅᆞ고 ᄆᆞᅀᆞ매 行ᄒᆞ야ᅀᅡ 이 뎌 ᄀᆞᅀᅢ 가미라.(금강 건 66)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如來ㅣ 法 날옴 잇ᄂᆞ녀 아니녀. 須菩提ㅣ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世尊하 如來ㅣ 니ᄅᆞ샴 업스시니이다.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如來ㅣ 有所說法가. 不아. 須菩提ㅣ 白佛言ᄒᆞ

ᄉᆞ오ᄃᆡ 世尊하 如來 無所說ᄒᆞ시니이다.(금강 건 67)

☞ 부톄 須菩提ᄃᆞ려 무르샤ᄃᆡ 如來 說法이 ᄆᆞᄉᆞ매 得홈 잇ᄂᆞ녀 아니녀. 須菩提ㅣ 如來ㅅ 說法이 ᄆᆞᄉᆞ매 得ᄒᆞ샴 업스신ᄃᆞᆯ 아ᄉᆞ올씨 니ᄅᆞ샴 업스시다 ᄉᆞᆯ오니라. 如來ㅅ ᄠᅳ든 世앳 사ᄅᆞᄆᆞ로 得홈 잇ᄂᆞᆫ ᄆᆞᅀᆞᆷ 여희에 코져 ᄒᆞ실씨 般若 波羅密法을 니ᄅᆞ샤 一切ㅅ 사ᄅᆞᄆᆞ로 듣ᄌᆞᆸ고 다 보리心을 發ᄒᆞ야 無生理ᄅᆞᆯ 아라 우 업슨 道ᄅᆞᆯ 일우게 ᄒᆞ시니라.(금강 건 67)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三千大天 世界예 잇ᄂᆞᆫ 微塵이 이 하녀 아니녀. 須菩提ㅣ ᄉᆞᆯ오ᄃᆡ 甚히 하이다. 世尊하. 須菩提여 諸微塵을 如來ㅣ 니ᄅᆞᄂᆞ니 微塵 아니라 이 일후미 微塵이며 如來 니ᄅᆞᄂᆞᆫ 世界 世界 아니라 이 일후미 世界니라.=須菩提야. 於意云何오. 三千大千世界옛 所有微塵이 是爲多아 不아. 須菩提 言ᄒᆞᄉᆞ오ᄃᆡ 甚多ᄒᆞ이다. 世尊하. 須菩提야. 諸微塵을 如來說이 非未盡이라. 是名微塵이며, 如來說世界ㅣ 非世界라. 是名世界니라.(금강 건 68)

☞ 如來ㅣ 니ᄅᆞ샤ᄃᆡ 衆生性中에 妄念이 三千大千世界中엣 잇ᄂᆞᆫ 微塵 ᄀᆞᆮᄒᆞ니 一切 衆生이 妄念微塵의 니룸과 滅호미 긋디 아니호ᄆᆞᆯ 니버 佛性을 ᄀᆞ리와 解脫ᄒᆞᆯ 得디 몯ᄒᆞᄂᆞ니 ᄒᆞ다가 能히 念念이 眞實ᄒᆞ며 正ᄒᆞ야 般若波羅密ㅅ 無著無相ㅅ 行ᄒᆞᆯ 닷가 妄念塵勞ㅣ 곧 淸淨法性인ᄃᆞᆯ 아라 妄念이 ᄒᆞ마 업스면 곧 微塵이 아니니라. 이 일후미 微塵은 眞이 곧 妄인ᄃᆞᆯ 알며 妄이 곧 眞인ᄃᆞᆯ 아라 眞妄이 다 업서 各別ᄒᆞᆫ 法이 업슬씨 니ᄅᆞ샤ᄃᆡ 이 일후미 微塵이라. 性中에 塵勞 업스면 곧 이 佛世界心中에 塵勞 이시면 곧 이 衆生 世界니 한 妄念의 空寂을 알씨 니ᄅᆞ샤ᄃᆡ 世界 아니오 如來ㅅ 法身이 塵刹애 너비 現ᄒᆞ샤 應ᄒᆞ샤 ᄡᅳ샤미 덛덛홈 업스샤ᄆᆞᆯ 證후미 世界라.(금강 건 69)

◉ 須菩提여. ᄠᅳ데 엇더뇨. 어루 三十二相으로 如來ᄅᆞᆯ 보려 몯ᄒᆞ려. 아니이다. 世尊하. 三十二相으로 如來ᄅᆞᆯ 시러 보ᄉᆞᆸ디 몯ᄒᆞᄉᆞ오리니 엇뎨어뇨. 如來 니ᄅᆞ시ᄂᆞᆫ 三十二相이 곧 이 相 아니라 이 일후미 三十二相이시니이다. =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可以三十二相으로 見如來아 不아. 不也世尊하. 不可以三十二相으로 得見如來ᄒᆞᄉᆞ오리니 何以故ㅣ어뇨. 如來說三十二相이 卽是非相이라. 是名三十二相이시니이다. (금강 건 69)

☞ 三十二相은 이 三十二 淸淨行이시니 三十二 淸淨行은 五根中에 六波羅蜜ᄋᆞᆯ 닷ᄀᆞ시며 意根中에 無相爲ᄅᆞᆯ 닷ᄀᆞ시니 이 일후미 三十二 淸淨行이시니 샹녜 이 三十二 淸淨行ᄋᆞᆯ 닷고미 곧 이 成佛이시고 ᄒᆞ다가 三十二相 淸淨行ᄋᆞᆯ 닷디 아니ᄒᆞ면 ᄆᆞᄎᆞᆷ내 成佛 몯ᄒᆞ리니 오직 如來ㅅ 三十二相ᄋᆞᆯ ᄃᆞ사 著ᄒᆞᅀᆞᆸ고 제 三十二行ᄋᆞᆯ 닷디 아니ᄒᆞ면 ᄆᆞᄎᆞᆷ내 如來ᄅᆞᆯ 시러 보ᄉᆞᆸ디 몯ᄒᆞᄉᆞ오리라.(금강 건 70)

◉ 須菩提여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恒河沙ᄃᆞᆱ 身命으로 布施ᄒᆞ야도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이 經中에 四句偈ᄃᆞᆯᄒᆞᆯ 受持ᄒᆞ야 다ᄅᆞᆫ 사ᄅᆞᆷ 爲ᄒᆞ야 닐우매 니를면 그 福이 甚히 하니라. =須菩提야 若有善男子善女人이 以恒河沙等身命으로 布施ᄒᆞ야도 若復有人이 於此經中에 乃至受持四句偈等ᄒᆞ야 爲他人說ᄒᆞ면 其福이 甚多ᄒᆞ니라.(능엄 건 71)

☞ 世間애 重ᄒᆞ니 身命에 너므니 업스니 菩薩이 法을 爲ᄒᆞ야 無量怯中에 身命을 ᄇᆞ려 施ᄒᆞ야 一切 衆生ᄋᆞᆯ 주ᄂᆞ니 그 福이 비록 하나 ᄯᅩ 이 經ㅅ 四句 受持혼 福ᄀᆞᆮ디 몯ᄒᆞ니 한 怯에 모ᄆᆞᆯ ᄇᆞ려도 空ㅅ ᄠᅳᆯ 아디 몯ᄒᆞ야 妄心을 더니 몯ᄒᆞ면 ᄉᆞᆫ지 이 衆生이어니와 ᄒᆞᆫ 念에 經을 디녀 我人이 다 업서 妄想ᄋᆞᆯ ᄒᆞ마 덜면 말ᄊᆞ매 成佛ᄒᆞ릴씨 한 怯에 몸 ᄇᆞ료미 經四句 디늉 福 ᄀᆞᆮ디 몯호ᄆᆞᆯ 알리로다.(금강 건 71-72)

◉ 그 ᄠᅴ 須菩提ㅣ 이 經 니ᄅᆞ시ᄆᆞᆯ 듣ᄌᆞᆸ고 ᄠᅳ들 기피 아라 눈믈 흘려 슬피 우러 부텻긔 ᄉᆞᆯ오ᄃᆡ 希有ᄒᆞ신 世尊하. 부톄 이 ᄀᆞᆮᄒᆞᆫ 甚히 기픈 經典 니ᄅᆞ샤ᄆᆞᆯ 내 녜브터 오매 得혼 慧眼으로 일쯕 이 ᄀᆞᆮᄒᆞᆫ 經을 시러 듣ᄌᆞᆸ디 몯ᄒᆞᄉᆞ왯다니 世尊하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이 經을 시러 듣ᄌᆞᆸ고 信心이 淸淨ᄒᆞ면 곧 實相이 나리니 이 사ᄅᆞᄆᆞᆫ 第一 希有ᄒᆞᆫ 功德 일울ᄯᆞᆯ 반ᄃᆞ기 알리로소이다. =爾時須菩提ㅣ 聞說是經ᄒᆞᄉᆞᆸ고 深解義趣ᄒᆞ야 涕漏慈泣ᄒᆞ야 而白佛言ᄒᆞᄉᆞ오ᄃᆡ 希有ᄒᆞ신 世尊하. 佛說如是甚深經典을 我從昔來예 所得慧眼으로 未曾得聞如是之經ᄒᆞᄉᆞ왯다니 世尊하 若復有人이 得聞是經ᄒᆞᄉᆞᆸ고 信心淸淨ᄒᆞ면 卽生實相ᄒᆞ리니 當知是人은 成就第一希有功德이로소이다.(금강 건 71)

☞ 自性 어리디 아니호미 일후미 慧眼이오 法 듣고 제 아로미 일후미 法眼이니 須菩提ᄂᆞᆫ 阿羅漢이라 五百 弟子中에 空 아로미 第一이라 ᄒᆞ마 한 부톄를 브즈러니 셤기ᄉᆞ오니 엇뎨 이 ᄀᆞᆮᄒᆞᆫ 기픈 法을 듣ᄌᆞᆸ디 몯ᄒᆞ관ᄃᆡ 엇뎨 釋迦牟尼 佛所애 비르서 듣ᄌᆞ오ᄆᆞᆯ ᄉᆞᆯ오뇨. 그러나 시혹 이 須菩提ㅣ 녜 得혼 거슨 聲聞의 慧眼이라 가 이제 니르러ᅀᅡ 부텻 ᄠᅳ들 아ᄉᆞ올씨 비르서 이 ᄀᆞᆮᄒᆞᆫ 기픈 經 듣ᄌᆞᆸ고 아ᄅᆡ 아디 몯호ᄆᆞᆯ 슬허 이럴씨 눈믈 흘려 슬피 우니라. 經 듣고 仔細히 念호미 닐오ᄃᆡ 淸淨이니 淸淨體中을 브터 般若波羅蜜多ㅅ 기픈 法이 흘러 나ᄂᆞ니 決定히 諸佛ㅅ 功德 일울ᄯᆞᆯ 반ᄃᆞ기 알리로다.(금강 건 73)

◉ 世尊하 이 實相이 곧 이 相 아닐씨 이럴씨 如來ㅣ 니ᄅᆞ샤ᄃᆡ 일후미 實相이라 ᄒᆞ시ᄂᆞ니이다.= 世尊하 是實相者ㅣ 卽是非相일ᄉᆡ 是故로 如來ㅣ 說名實相ᄒᆞ시ᄂᆞ니이다.(금강 건 73)

☞ 비록 淸淨行ᄋᆞᆯ 行ᄒᆞ나 ᄒᆞ다가 더러우며 조호ᄆᆞᆯ 보아 두 相이 ᄠᅳ데 當ᄒᆞ면 다 이 더러운 ᄆᆞᄉᆞ미라. 곧 淸淨心이 아니며 오직 ᄆᆞᄉᆞ매 得홈 이시면 곧 實相 아니라.(금강 건 74)

◉ 世尊하 내 이제 이ᄀᆞᆮᄒᆞᆫ 經典을 시러 듣ᄌᆞᆸ고 信ᄒᆞ야 아라 受持호미ᅀᅡ 足히 어렵디 아니커니와 ᄒᆞ다가 當來 世ㅅ 後 五百歲예 그 衆生이 이 經을 시러 듣고 信ᄒᆞ야 아라 受持ᄒᆞ면 이 사ᄅᆞ미 我相 업스며 人相 업스며 衆生相 업스며 壽者相 업스니 엇뎨어뇨. 我相이 곧 이 相 아니며 人相衆生相壽者相이 곧 이 相 아니니 엇뎨어뇨 一切 諸相 여희요미 곧 일후미 諸佛이니이다. = 世尊하 我今得聞如是經典ᄒᆞᄉᆞᆸ고 信解受持ᅀᅡ 不足爲難이어니와 若當來世後五百歲예 其有衆生이 得聞是經ᄒᆞ고 信解受持ᄒᆞ면 是人은 卽爲第一希有ㅣ니 何以故ㅣ어뇨. 此人이 無我相ᄒᆞ며 無人相ᄒᆞ며 無衆生相ᄒᆞ며 無壽者相이니 所以者何ㅣ어뇨. 我相이 卽是非相이며 人相衆生相壽者相이 卽是非相이니 何以故ㅣ어뇨. 離一切諸相이 卽名諸佛이니이다.(금강 건 74-75)

☞ 須菩提ㅣ 부텻 ᄠᅳ들 기피 아ᄉᆞ오니 ᄌᆞ졔 業이 다ᄋᆞ며 ᄢᅵ 업서 慧眼이 ᄇᆞᆯ가 ᄉᆞᄆᆞᄎᆞᆯ씨 信ᄒᆞ야 아라 受持호미 곧 어렵디 아니ᄒᆞᆫᄃᆞᆯ 보도다. 世尊이 世예 겨샤 說法ᄒᆞ실제도 ᄯᅩ 無量 衆生이 能히 信ᄒᆞ야 아라 受持 몯ᄒᆞ리 이시니 엇뎨 구틔여 ᄒᆞ오ᅀᅡ 後五百歲ᄅᆞᆯ 니ᄅᆞ뇨. 부텨 겨신 나랜 비록 中下根이 信티 아니ᄒᆞ며 ᄯᅩ 疑心 머그리 이셔도 즉재 가 부텻긔 묻ᄌᆞ와든 부톄 즉재 맛당호ᄆᆞᆯ 조차 爲ᄒᆞ야 닐어시든 마초아디 아니ᄒᆞ리 업서니와 부텨 滅度後ㅅ 後五百歲옌 漸漸末法에 니르러 聖人 버으로미 머러 오직 말ᄊᆞᆷ ᄀᆞᄅᆞ치샴 이시니 사ᄅᆞ미 ᄒᆞ다가 疑心 이셔도 무러 決홀ᄭᅳᆫ 업서 어리여 執을 가져 無生ᄋᆞᆯ 아디 몯ᄒᆞ야 相에 著ᄒᆞ야 ᄃᆞᆯ여 求ᄒᆞ야 諸有에 그우니ᄂᆞ니 이 時中엔 기픈 經을 듣고 ᄆᆞᅀᆞᆷ ᄆᆞᆯ겨 恭敬ᄒᆞ야 信ᄒᆞ야 無生理 알리 甚히 希有ᄒᆞᆯ씨 닐오ᄃᆡ 第一 希有ㅣ라 ᄒᆞ니라. 如來 滅度ㅅ 後 五百歲예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能히 般若波羅蜜 甚히 기픈 經典에 信ᄒᆞ야 아라 受持ᄒᆞ린 곧 이 사ᄅᆞ미 我人衆生壽者ㅅ 相 업슨ᄃᆞᆯ 아롤ᄊᆡ니 이 四相 업수미 이 일후미 實相이며 곧 이 佛心일씨 ᄉᆞᆯ오ᄃᆡ 一切 諸相 여희요미 곧 일후미 諸佛이라 ᄒᆞ니라.(금강 건 76)

◉ 부톄 須菩提ᄃᆞ려 니ᄅᆞ샤ᄃᆡ 이ᄀᆞᆮ다 이ᄀᆞᆮ다.=佛告須菩提ᄒᆞ샤ᄃᆡ 如是如是타.(금강 건 77)

☞ 부톄 須菩提의 아로미 이대 내 ᄆᆞᅀᆞ매 마조ᄆᆞᆯ 印可ᄒᆞ실ᄊᆡ 다시 如是라 니ᄅᆞ시니라.(금강 건 77)

◉ ᄒᆞ다가 ᄯᅩ 사ᄅᆞ미 이 經을 시러 듣고 놀라디 아니ᄒᆞ며 두리디 아니ᄒᆞ며 저티 아니ᄒᆞ면 이 사ᄅᆞᄆᆞᆫ 甚히 希有ᄒᆞᆫᄃᆞᆯ 반ᄃᆞ기 아롤띠니 =若復有人이 得聞是經ᄒᆞ고 不驚不怖不畏ᄒᆞ면 當知是人은 甚爲希有ㅣ니.(금강 건 77)

☞ 聲聞은 오래 法相애 著ᄒᆞ야 有를 자바 아롬 삼고 諸法의 本來 空ᄒᆞ야 一切 文字ㅣ 다 이 거즛 셴ᄃᆞᆯ 아디 몯ᄒᆞᆯᄊᆡ 기픈 經에 諸相이 나디 아니ᄒᆞ면 말ᄊᆞ매 곧 부톄라 ᄒᆞ샤ᄆᆞᆯ 믄득 듣ᄌᆞ올ᄊᆡ 놀라 두리거니와 오직 이 上根 菩薩은 이 理 시러 듣ᄌᆞᆸ고 歡喜ᄒᆞ야 受持ᄒᆞ야 ᄆᆞᅀᆞ미 저허 믈리 그우룸 업스니 이 ᄀᆞᆮᄒᆞᆫ 무리 甚히 希有ᄒᆞ니라.(금강 건 77-78)

◉ 엇뎨어뇨. 須菩提여. 如來 니ᄅᆞᄂᆞᆫ 第一 波羅蜜이 곧 第一波羅蜜 아니라 이 일후미 第一波羅蜜이라. =何以故오. 須菩提야. 如來說第一波羅蜜이 卽非第一波羅蜜이라 是名第一波羅蜜이라.(금강 건 78)

☞ 이베 니ᄅᆞ고 ᄆᆞᅀᆞ매 行티 아니호ᄆᆞᆫ 곧 아니오 이베 니ᄅᆞ고 ᄆᆞᅀᆞ매 行호ᄆᆞᆫ 곧 이며 ᄆᆞᅀᆞ매 能所 이쇼ᄆᆞᆫ 곧 아니오 ᄆᆞᅀᆞ매 能所 업수믄 이라.(금강 건 78)

◉ 須菩提여. 忍辱 波羅蜜이 如來 니ᄅᆞᄂᆞ니 忍辱 波羅蜜 아니라 이 일후미 忍辱 波羅蜜이라.= 須菩提야. 忍辱波羅蜜이 如來說이 非忍辱波羅蜜이라 是名忍辱波羅蜜이라.(금강 건 78)

☞ 辱 ᄃᆞ윈 境이 ᄠᅳ데 當ᄒᆞ니 이슈믈 보디 몯호미 곧 이며 身相의 뎌 害호ᄆᆞᆯ 當ᄒᆞ리 이쇼ᄆᆞᆯ 보미 곧 아니오 身相의 뎌 害호ᄆᆞᆯ 當ᄒᆞ리 이쇼ᄆᆞᆯ 보디 몯호미 곧 이라.(금강 건 79)

◉ 엇뎨어뇨 須菩提여 내 녜 歌利王의 身體ᄅᆞᆯ 버효미 ᄃᆞ외야 내 그 ᄢᅴ 我相업스며 人相업스며 衆生相 업스며 壽者相 업다니 엇뎨어뇨. 녜 ᄆᆞᄃᆡᄆᆞᄃᆡ 활기 ᄠᅳ즐쩨 ᄒᆞ다가 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잇던댄 반ᄃᆞ기 瞋心ᄒᆞ야 ᄆᆡ유믈 내리러니라. =何以故오. 須菩提야 如我ㅣ 昔爲歌利王의 割截身體ᄒᆞ야 我於爾時예 無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다니 何以故오 我於往昔節節支解時예 若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던댄 應生瞋心ᄒᆞ리러니라.(금강 건 79)

☞ 如來ㅣ 因中에 初地예 겨신제 忍辱 仙人이 ᄃᆞ외샤 歌利王ᄋᆡ 身體 버효ᄆᆞᆯ 니브샤ᄃᆡ ᄒᆞᆫ 念ㅅ 셜운 ᄆᆞᅀᆞ미 업스니니 ᄒᆞ다가 셜운 ᄆᆞᅀᆞ미 겨시면 곧 嗔心ᄒᆞ야 ᄆᆡ요ᄆᆞᆯ 내시리러니라. 歌利王은 梵語ㅣ니 예셔 닐오맨 無道ᄒᆞᆫ ᄀᆞ장 모딘 님그미라. ᄒᆞᆫ 마래 如來ㅣ 因中에 일ᄶᅳᆨ 國王이 ᄃᆞ외샤 샹녜 十善을 行ᄒᆞ샤 蒼生ᄋᆞᆯ 利益ᄒᆞ실ᄊᆡ 「蒼生은 퍼러히 살씨니 머리 보ᄂᆞᆫ ᄠᅳ디라」 나랏 사ᄅᆞ미 이 王ᄋᆞᆯ 놀애 블러 기리ᄉᆞᄋᆞᆯᄊᆡ ᄉᆞᆯ오ᄃᆡ 歌利王이라. 王이 無上菩提ᄅᆞᆯ 求ᄒᆞ샤 忍辱行ᄋᆞᆯ 닷더시니 그 ᄢᅴ 天帝釋이 化ᄒᆞ야 旃陁羅ㅣ ᄃᆞ외야 王의 身肉을 비ᄉᆞ온대 王이 곧 버혀 주샤 잢간도 嗔心ᄒᆞ야 셜워홈 업스시니라 ᄒᆞ니 이제 두 마ᄅᆞᆯ 두노니 理예 다 通ᄒᆞ니라.(금강 건 80)

◉ 須菩提여 ᄯᅩ 念호니 過去에 五百世예 忍辱 仙人이 ᄃᆞ외야 이런 世예 我相 업스며 人相 업스며

衆生相 업스며 壽者相 업다니 = 須菩提야. 又念過去於五百世예 作忍辱仙人於爾所世예 無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ᄒᆞ다니 (금강 건 80-81)

☞ 世ᄂᆞᆫ 生이라 如來ㅣ因中에 五百世예 忍辱波羅蜜을 修行ᄒᆞ샤 四相이 나디 아니ᄒᆞ샤ᄆᆞᆯ 得ᄒᆞ시니라. 如來ㅣ ᄌᆞ개 녯 因을 니ᄅᆞ샤ᄆᆞᆫ 一切ㅅ 修行ᄒᆞᆯ 싸ᄅᆞᄆᆞ로 忍辱波羅蜜을 일우게코져 ᄒᆞ시니 忍辱波羅蜜行ᄒᆞᆯ 싸ᄅᆞ미 ᄒᆞ마 忍辱行ᄋᆞᆯ 行ᄒᆞᄂᆞ닌 一切人의 過惡ᄋᆞᆯ 보디 아니ᄒᆞ야 怨讐와 親을 平等히 ᄒᆞ야 올홈 업스며 외욤 업서 ᄂᆞᄆᆡ 티며 구지저 殘害ᄅᆞᆯ 니버도 歡喜ᄒᆞ야 바다 恭敬을 倍히 더ᄒᆞ니 이 ᄀᆞᆮᄒᆞᆫ 行ᄋᆞᆯ 行ᄒᆞ리ᅀᅡ 곧 能히 忍辱波羅蜜을 일우리라.(금강 건 81)

◉ 이럴ᄊᆡ 須菩提여. 菩薩이 반ᄃᆞ기 一切相ᄋᆞᆯ 여희여 阿耨多羅三藐三菩提ㅅ ᄆᆞᅀᆞᆷ 發홀띠니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미 몯ᄒᆞ리며 聲과 香과 味와 觸과 法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요미 몯ᄒᆞ리니 반ᄃᆞ기 住혼 곧 업슨 ᄆᆞᅀᆞᆷᄋᆞᆯ 내욜띠니라. = 是故로 須菩提야 菩薩이 應離一切相ᄒᆞ야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이니 不應住色生心ᄒᆞ며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이니 應生無所住心이니라.(금강 건 82)

☞ 반ᄃᆞ기 色애 住ᄒᆞ야 ᄆᆞᅀᆞᆷ 내욤 몯ᄒᆞ리라 ᄒᆞ야ᄆᆞᆫ 이ᄂᆞᆫ 뫼화 標ᄒᆞ시고 聲香ᄃᆞᆯᄒᆞᆫ 各別히 그 일후믈 버리시니라. 이 六塵에 믜며 ᄃᆞᆶ온 ᄆᆞᅀᆞᆷ 니ᄅᆞ와다. 이 妄心을 브터 無量業 ᄆᆡ요ᄆᆞᆯ 뫼화 佛性을 두퍼 비록 種種ᄋᆞ로 勤苦히 修行ᄒᆞ야도 ᄆᆞᄉᆞ맷 ᄠᅴ를 더디 아니ᄒᆞᆯᄊᆡ ᄆᆞᄎᆞᆷ내 解脫홀 理 업스니 根本ᄋᆞᆯ 推尋컨댄 다 色上애 ᄆᆞᅀᆞᆷ 住호ᄆᆞᆯ 브트니라. ᄒᆞ다가 能히 念念에 般若 波羅蜜을 샹녜 行ᄒᆞ야 諸法의 空ᄋᆞᆯ 推尋ᄒᆞ야 혜아려 著호ᄆᆞᆯ 내디 아니ᄒᆞ야 念念에 샹녜 제 精進ᄒᆞ야 一心으로 간슈ᄒᆞ야 放蕩히 노호ᄆᆞᆯ 업게홀띠니 淨名經에 닐오ᄃᆡ 一切智ᄅᆞᆯ 求호ᄃᆡ 時節 아닌 求호미 업다ᄒᆞ며 大般若經에 닐오ᄃᆡ 菩薩摩訶薩이 밤나재 精勤ᄒᆞ야 샹녜 般若波羅蜜多애 住ᄒᆞ야 서르 맛게 ᄲᅳᆫ 지ᅀᅥ 잢간도 ᄇᆞ릴 ᄊᆡ 업스니라 ᄒᆞ니라.(금강 건 83)

◉ ᄒᆞ다가 ᄆᆞᄉᆞ미 住 이시면 곧 住ㅣ 아니니 = 若心이 有住ᄒᆞ면 卽爲非生ㅣ니 (금강 건 83)

☞ ᄒᆞ다가 ᄆᆞᄉᆞ미 涅槃애 住ᄒᆞ면 이 菩薩ㅅ 住홀ᄁᆞᆫ 아니니 涅槃애 住티 아니ᄒᆞ며 諸法에 住티 아니ᄒᆞ야 一切處에 住티 아니ᄒᆞ야ᅀᅡ 비르서 이 菩薩ㅅ 住홀 ᄭᅩ디니 웃그레 니ᄅᆞ샨 반ᄃᆞ기 住혼 곧 업시 ᄒᆞ야 그 ᄆᆞᅀᆞᆷ 내요미 이라.(금강 건 83-84)

◉ 이럴ᄊᆡ 부톄 菩薩ㅅᄆᆞᄉᆞᄆᆞᆫ 色애 住ᄒᆞ야 布施호미 몯ᄒᆞ리라 니ᄅᆞᄂᆞ니 須菩提여. 菩薩이 一切衆生利益호ᄆᆞᆯ 爲ᄒᆞᆫ 젼ᄎᆞ로 반ᄃᆞ기 이ᄀᆞ티 布施홀띠니라. =是故로 佛說菩薩心은 不應住色布施니 須菩提야. 菩薩이 爲利益一切衆生故로 應如是布施니라.(금강 건 84)

☞ 菩薩이 내 모맷 五欲 快諾 求望호ᄆᆞᆯ 爲ᄒᆞ야 布施行티 아니코 오직 안ᄒᆞ로 慳貪ㅅ ᄆᆞᅀᆞᆷ 헐며 밧ᄀᆞ로 一切 衆生 利益호ᄆᆞᆯ 爲ᄒᆞ야 布施行ᄒᆞᄂᆞ니라. 菩薩ㅅ 行은 法財ᄅᆞᆯ 平等히 施ᄒᆞ야 利益을 ᄀᆞᆺ 업시 ᄒᆞᄂᆞ니 ᄒᆞ다가 能히 利益ᄒᆞ논 ᄆᆞᄉᆞᄆᆞᆯ 지스면 곧 이 法 아니니 利益ᄒᆞ논 ᄆᆞᅀᆞᆷ 짓디 아니호미 이 일후미 住 업수미니 住 업수미 곧 이 부텻 ᄆᆞᄉᆞ미라.(금강 건 84-85)

◉ 如來 니ᄅᆞᄂᆞᆫ 一切 諸相이 곧 이 相 아니며 ᄯᅩ 니ᄅᆞᄂᆞᆫ 一切 衆生이 곧 衆生 아니라 = 如來說一切諸相이 卽是非相이며 又說一切衆生이 卽非衆生이라.(금강 건 85)

☞ 如ᄂᆞᆫ 生 아니호미오 來ᄂᆞᆫ 滅 아니호미니 生 아니호ᄆᆞᆫ 我人이 生티 아니호미오 滅 아니호ᄆᆞᆫ 覺照ㅣ 滅 아니호미라. 아랫 그레 니ᄅᆞ샤ᄃᆡ 如來ᄂᆞᆫ 브터 온ᄃᆡ 업스며 ᄯᅩ 간ᄃᆡ 업슬ᄊᆡ 如來라 ᄒᆞ시

니 如來 니ᄅᆞ시ᄂᆞᆫ 我人ᄃᆞᆱ 相이 ᄆᆞᄎᆞ매 어루 허롤띠라. 眞實ㅅ 體 아니며 一切 衆生이 다 이 거즛 일후미니 ᄒᆞ다가 妄心을 여희면 곧 衆生이 어루 得홀껏 업스릴씨 니ᄅᆞ샤ᄃᆡ 곧 衆生 아니라 ᄒᆞ시니라.(금강 건 85)

◉ 須菩提여. 如來ᄂᆞᆫ 眞ᄒᆞᆫ 말ᄒᆞᄂᆞ니며 實ᄒᆞᆫ 말 ᄒᆞᄂᆞ니며 如ᄒᆞᆫ 말 ᄒᆞᄂᆞ니며 소기디 아닌ᄂᆞᆫ 말 ᄒᆞᄂᆞ니며 다ᄅᆞ디 아니ᄒᆞᆫ 말 ᄒᆞᄂᆞ니라 = 須菩提야. 如來ᄂᆞᆫ 是眞語者ㅣ며 實語者ㅣ며 如語者ㅣ며 佛誑語者ㅣ며 不異語者ㅣ니라.(금강 건 86)

☞ 眞ᄒᆞ신 마ᄅᆞᆫ 一切ㅅ 有情無情아 다 佛性 잇다 니ᄅᆞ실씨오 實ᄒᆞ신 마ᄅᆞᆫ 衆生이 惡業을 지므면 一定히 苦報ᄅᆞᆯ 受ᄒᆞᄂᆞ니라 니ᄅᆞ실씨오 如ᄒᆞ신 마ᄅᆞᆫ 衆生이 善法을 닷ᄀᆞ면 一定히 즐거운 報ㅣ 잇ᄂᆞ니라 니ᄅᆞ실씨오 소기디 아니ᄒᆞ시ᄂᆞᆫ 마ᄅᆞᆫ 般若波羅蜜法이 三世佛을 내야 決定히 虛티 아니타 니ᄅᆞ실시오 다ᄅᆞ디 아니ᄒᆞ신 마ᄅᆞᆫ 如來 니ᄅᆞ샨 初善中善後善이 ᄠᅳ디 微妙ᄒᆞ야 一切ㅅ 天魔와 外道왜 能히 건너 더으며 또 부텻 말ᄉᆞᆷ 허ᅀᆞ오리 업스니시니라.(금강 건 86-87) *없+으니+시+니라

◉ 須菩提여 如來 得혼 法이 法이 實홈 업스며 虛홈 업스니라. = 須菩提야 如來所得法이 此法이 無實無虛ᄒᆞ니라.(금강 건 87)

☞ 實홈 업수믄 法體空寂ᄒᆞ야 相이 어루 得홀껏 업슬씨니 그러나 中에 恒沙性德이 북디 다ᄋᆞ디 아니홈 이실씨 虛홈 업다 니ᄅᆞ시니라. 그 實을 닐오려 ᄒᆞ야도 相이 어루 得홀껏 업스며 그 虛를 닐오려 ᄒᆞ야도 북디 긋디 아니ᄒᆞ니 이럴씨 업다 닐오미 몯ᄒᆞ리며 잇다 닐오미 몯ᄒᆞ리니 이쇼ᄃᆡ 잇디 아니ᄒᆞ며 업수ᄃᆡ 업디 아니ᄒᆞ야 말ᄉᆞᆷ과 가ᄌᆞᆯ뵤ᄆᆞ로 밋디 몯ᄒᆞᆯ꺼시 그 眞實ㅅ 智ㄴ뎌. 하다가 相 여흰 修行 아니면 이에 니르롤쭐 업스니라.(금강 건 87) * 것/줄/-인뎌

◉ 須菩提여 ᄒᆞ다가 菩薩이 ᄆᆞᅀᆞᄆᆞᆯ 法에 住ᄒᆞ야 布施行ᄒᆞ면 사ᄅᆞ미 어두운ᄃᆡ 드러 곧 봄 업숨 ᄀᆞᆮ거니와 = 須菩提야 若菩薩이 心住於法ᄒᆞ야 而行布施ᄒᆞ면 如人이 入闇ᄒᆞ야 卽無所見이어니와 (금강 건 88)

☞ 一切法에 ᄆᆞᅀᆞ미 住著 이시면 三輪体空ᄒᆞᆫ ᄃᆞᆯ 아디 몯ᄒᆞ야 눈 머니 어드운ᄃᆡ 이셔 아롬 업숨 ᄀᆞᆮᄒᆞ니 華嚴經에 닐오ᄃᆡ 聲聞이 如來ㅅ 會中에 이셔 法 듣ᄌᆞ오ᄃᆡ 눈머니 ᄀᆞᆮᄒᆞ며 귀머그니 ᄀᆞᆮ다 ᄒᆞ니 諸法相애 住호ᄆᆞᆯ 爲ᄒᆞᆫ 젼ᄎᆡ라.(금강 건 88)

◉ ᄒᆞ다가 菩薩이 ᄆᆞᅀᆞᄆᆞᆯ 法에 住티 아니ᄒᆞ야 布施行ᄒᆞ면 사ᄅᆞ미 누니 잇거든 힛 光明이 ᄇᆞᆯ기 비취여 種種 비츨 보ᄃᆞᆺᄒᆞ니라. = 若菩薩이 心不住法ᄒᆞ야 而行布施ᄒᆞ면 如人이 有目거든 日光이 明照ᄒᆞ야 見種種色 ᄃᆞᆺᄒᆞ니라.(금강 건 88) *-기(어찌씨끝처럼 쓰임)

☞ ᄒᆞ다가 菩薩이 般若波羅蜜多ㅅ 無著無相行ᄋᆞᆯ 샹녜 行ᄒᆞ면 사ᄅᆞ미 눈 이셔 ᄇᆞᆯᄀᆞᆫ 힛 中에 處홈 ᄀᆞᆮ거니 어ᄃᆡᆯ 보디 몯ᄒᆞ료.(금강 건 89)

◉ 須菩提여 當來世예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能히 이 經에 受持讀誦ᄒᆞ면 곧 如來ㅣ 佛智慧로 이 사ᄅᆞᄆᆞᆯ 다 알며 이 사ᄅᆞᄆᆞᆯ 다 보ᄂᆞ니 다 無量無邊功德을 일우리라. =須菩提야 當來之世예 若有善男子善女人이 能於此經에 受持讀誦ᄒᆞ면 卽爲如來ㅣ 以佛智慧로 悉知是人ᄒᆞ며 悉見是人ᄒᆞᄂᆞ니 皆得成就無量無邊功德ᄒᆞ리라.(금강 건 89)

☞ 當來世ᄂᆞᆫ 如來 滅後ㅅ 後 五百歲 濁惡ᄒᆞᆫ 世예 邪ᄒᆞᆫ 法이 난겻니러 正法이 行호미 어려우리니 이 時節ㅅ 中에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이 經을 맛나 스스을 조차 바다 受ᄒᆞ야 讀誦ᄒᆞ야 ᄆᆞᅀᆞ매 두어 精進ᄒᆞ야 거츠리 아니ᄒᆞ야 ᄠᅳ들 브터 修行ᄒᆞ야 부텻 知見에 아라 들면 能히 阿耨 菩提ᄅᆞᆯ 일우리니 이럴ᄊᆡ 三世諸佛이 모ᄅᆞ시리 업스시니라.(금강 건 89-90) *없+으시+니라/없+으+ㄴ+이+시+니라

<金剛經諺解 乾 > 끝

<金剛經諺解 坤>

◉ 須菩提여 ᄒᆞ다가 善男子善女人이 初日分에 恒河沙等 모ᄆᆞ로 布施ᄒᆞ고 中日分에 ᄯᅩ 恒河沙等 모ᄆᆞ로 布施ᄒᆞ고 後日分에 ᄯᅩ 恒河沙等 모ᄆᆞ로 布施ᄒᆞ야 이ᄀᆞ티 無量百千萬億劫에 모ᄆᆞ로 布施ᄒᆞ야도 거스디 아니ᄒᆞ면 그 福이 經典듣고 信心이 거스디 아니ᄒᆞ면 그 福이 뎌에 더으리니 ᄒᆞᄆᆞᆯ며 書寫ᄒᆞ며 受持ᄒᆞ며 讀誦ᄒᆞ야 사ᄅᆞᆷ 爲ᄒᆞ야 사겨 닐오미ᄯᅳ녀. (금강 곤 91)

☞